통계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9. 26.(목) 12:00 배포 2024. 9. 26.(목) 8:30

2024 고령자 통계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희 (042-481-2233)
		담당자	사무관	박순옥 (042-481-22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일 러 두 기

□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고령인구,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및 의식변화 등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하여 「고령자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인용된 각 통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연령이 다른 통계 자료 출처 및 대상 연령 >

○ 「국가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60세 이상
○ 「상대적빈곤율」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OECD: 66세 이상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금년에는 특별기획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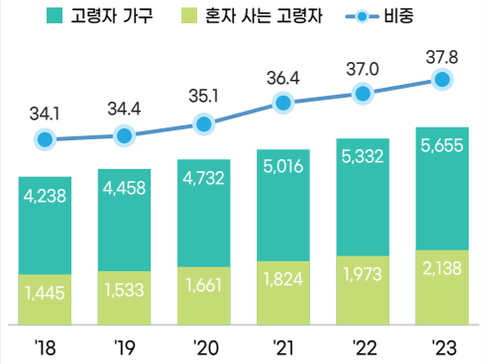
□ 이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통계청

혼자 사는 고령자 및 비중

(단위: 천 가구, %)



성별(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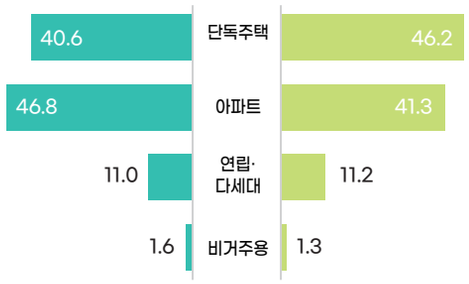
(단위: %)

연령별(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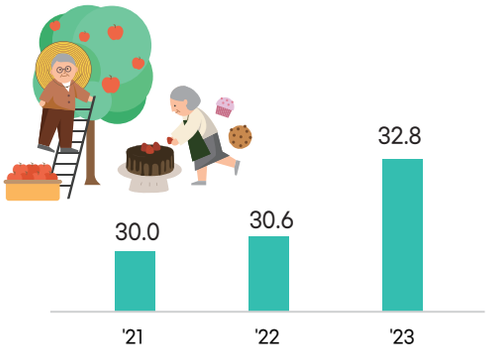
거처 유형(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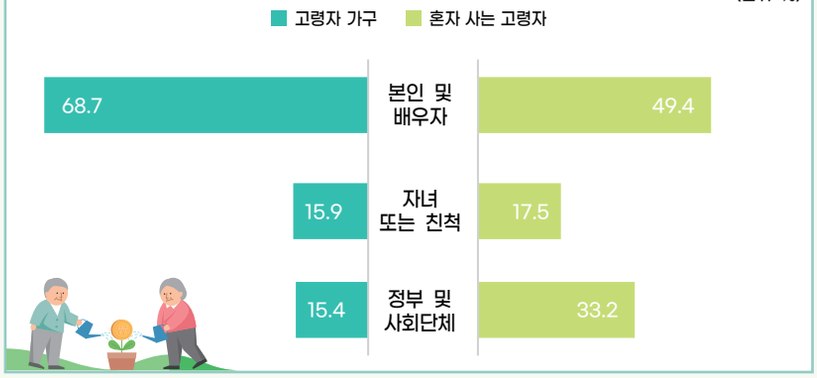
혼자 사는 고령자의 취업 비중

(단위: %, 각 년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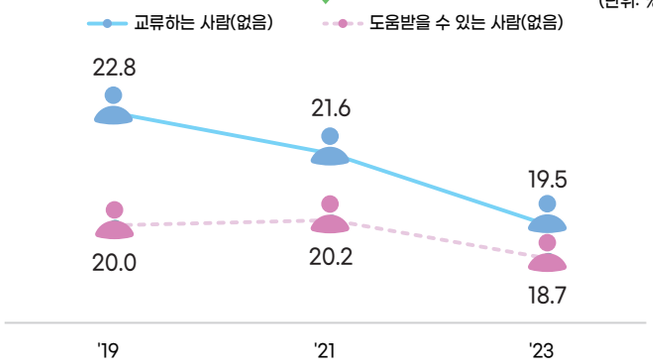
생활비 마련 방법(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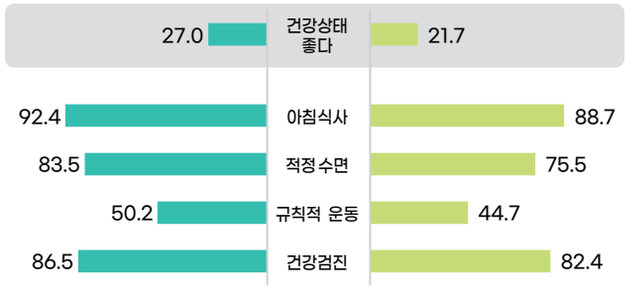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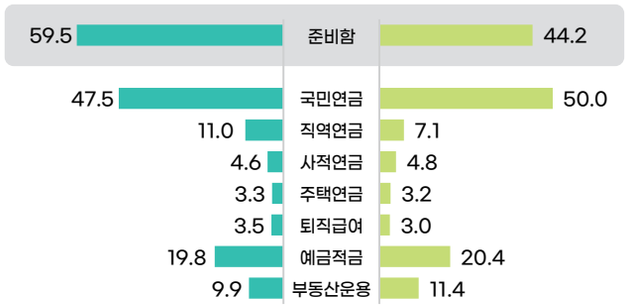
건강 평가 및 건강 관리(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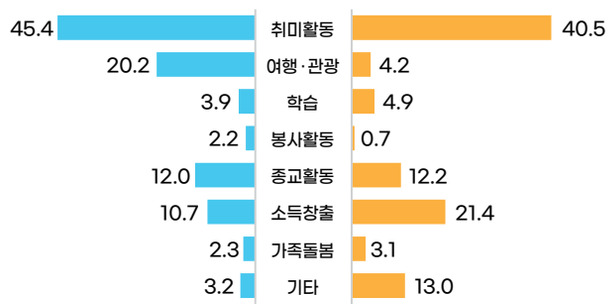
노후 준비(2023)

(단위: %)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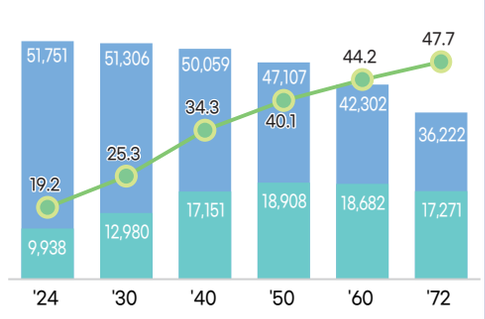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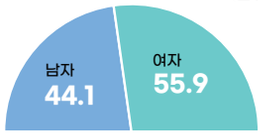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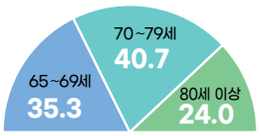
성별(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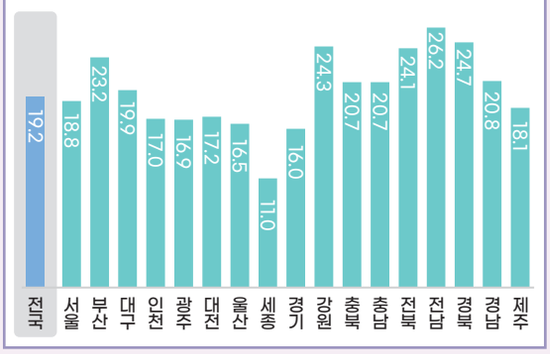
연령별(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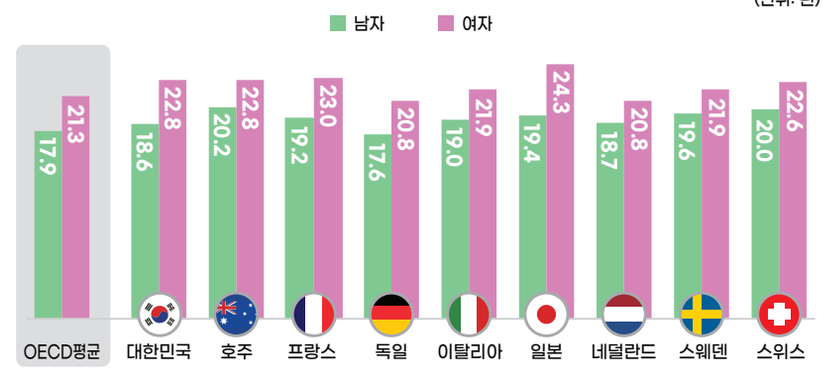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202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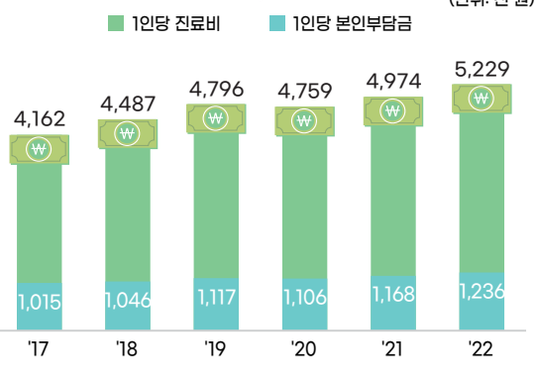
65세 기대 여명(2022)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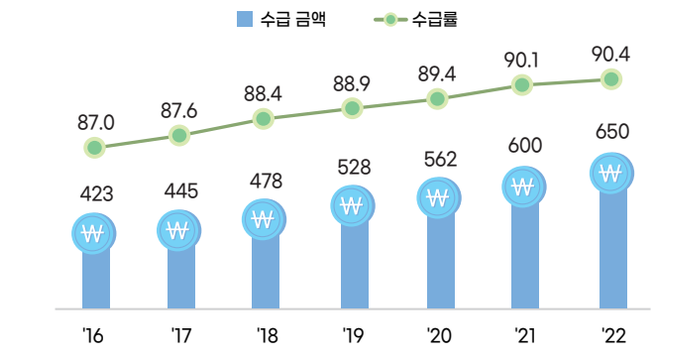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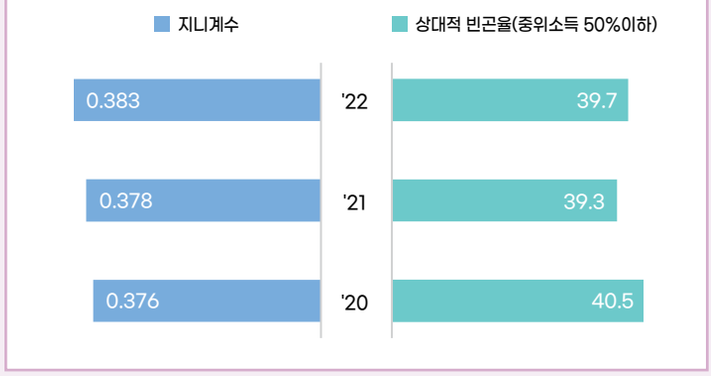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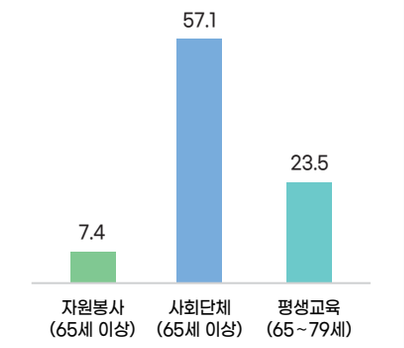


은퇴연령(66세 이상)층 주요 소득분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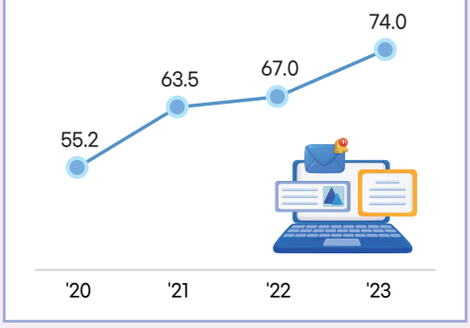
사회 참여(20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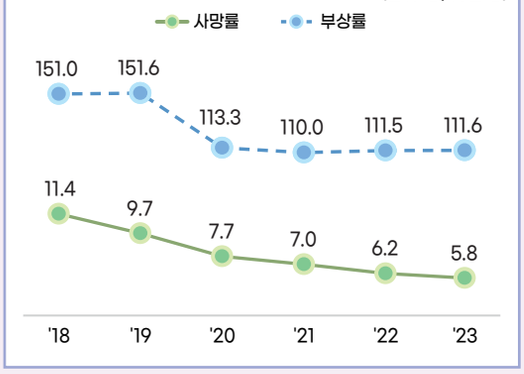
인터넷 이용률

(단위: %)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부상률

(단위: 명/10만 명)



목 차

□ (특별기획)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 1

□ 2024 고령자 통계 ····· 17

◇ 요 약 ····· 19

Ⅰ.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 22
2. 지역별 고령인구 ····· 24
3. 고령자 가구 ····· 25
4. 이혼 및 재혼 ····· 26
5. 주택 소유율 ····· 27

Ⅱ. 건강

6. 기대여명 ····· 28
7. 본인부담 의료비 ····· 29
8. 건강검진 수검률 ····· 30
9. 운동 실천율 ····· 31
10.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32
11. 노인 복지시설 ····· 33

Ⅲ. 소득보장

12. 자산 소유액 및 구성 ····· 34
13. 은퇴연령층 빈곤율 ····· 35
14.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 ····· 36
15. 고용률 ····· 37
16.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 39

Ⅳ. 사회참여·관계

17.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 ····· 40
18. 단체 참여율 ····· 41
19. 평생교육 참여율 ····· 42
20. 노인차별 ····· 43
21. 세대 갈등 ····· 44

Ⅴ. 생활환경

22.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 목적 ····· 45
23.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및 이용 기능 ····· 46
24. 보행 안전성 ····· 47
25. 운전자 사고 비중 ····· 48
26.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 49
27. 주거 만족도 ····· 50

Ⅵ. 주관적 웰빙

28. 삶에 대한 만족도 ····· 51
29. 성취에 대한 만족도 ····· 52

□ 통계표 ····· 53

□ 국제비교

1. OECD 주요 국가별 연령구조 ····· 86
2.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 87
3.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 ····· 88

<특별기획>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요약)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

○ ‘23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총 565만 5천 가구이며, 이중 혼자 사는 가구는 213만 8천 가구로 37.8%를 차지함(2쪽)

○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15년 32.9% 이후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며, 단독주택(46.2%)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3쪽)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중 취업 비중은 32.8%, 생활비는 49.4%가 스스로 마련

○ ’23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중 취업 비중은 32.8%(4쪽)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는 절반 가까이가 근로·사업소득이나 연금 등을 통해 스스로(49.4%) 마련하였고, 다음은 정부 및 사회단체 등 지원(33.2%) 순임(5쪽)

○ ’22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연금 수급률은 94.1%, 월평균 수급 금액은 58만 원임(6쪽)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18.7%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18.7%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갑자기 큰돈을 빌리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음(8쪽)

○ 혼자 사는 고령자의 19.5%는 가족이나 친인척, 그 외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음(8쪽)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 평가는 전체 고령자에 비해 부정적

○ ’22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7%,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4.0%로 전체 고령자(33.3%)보다 높게 나타남(10쪽)

○ 건강관리 실천율은 전체 고령자보다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아침 식사하기(88.7%), 정기건강검진(82.4%) 등을 주로 실천하고, 규칙적 운동(44.7%)은 낮게 나타남(11쪽)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44.2%는 노후를 준비, 45.4%는 취미활동 희망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44.2%는 국민연금, 예·적금, 부동산운용 등의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취미활동(45.4%), 여행·관광활동(20.2%), 종교활동(12.0%) 등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함(13·15쪽)

<특별기획>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1. 1인 가구 규모

2023년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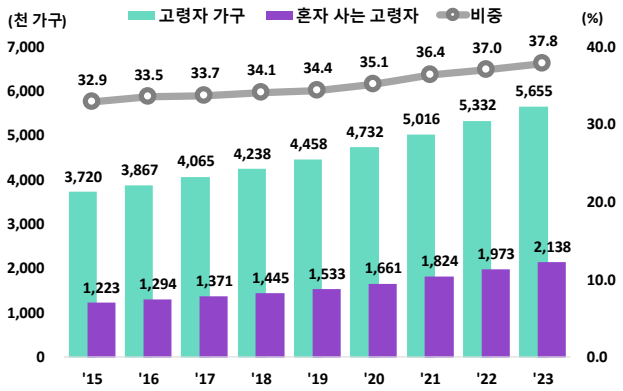
□ '23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 5천 가구이며, 이 중 37.8%인 213만 8천 가구는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자 가구 중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비중도 '15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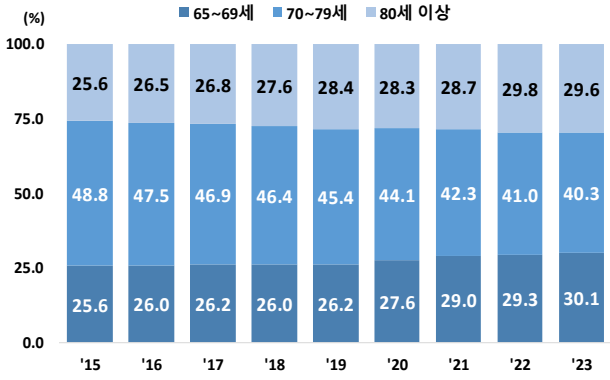
○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성별 비중은 '23년 기준 여자가 남자의 2.2배 수준

○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70대는 축소되고, 65~69세와 80세 이상에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고령자 가구 >



< 연령대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고령자 가구 >

(단위: 천 가구, %)

	고령자 가구	1인 가구	비중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3,720	1,223	32.9	24.4	75.6	25.6	48.8	25.6
2016	3,867	1,294	33.5	25.1	74.9	26.0	47.5	26.5
2017	4,065	1,371	33.7	26.0	74.0	26.2	46.9	26.8
2018	4,238	1,445	34.1	26.6	73.4	26.0	46.4	27.6
2019	4,458	1,533	34.4	27.4	72.6	26.2	45.4	28.4
2020	4,732	1,661	35.1	28.1	71.9	27.6	44.1	28.3
2021	5,016	1,824	36.4	29.1	70.9	29.0	42.3	28.7
2022	5,332	1,973	37.0	29.8	70.2	29.3	41.0	29.8
2023	5,655	2,138	37.8	31.0	69.0	30.1	40.3	29.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주: 2015년 이후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임

2. 거처 유형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46.2%는 단독주택에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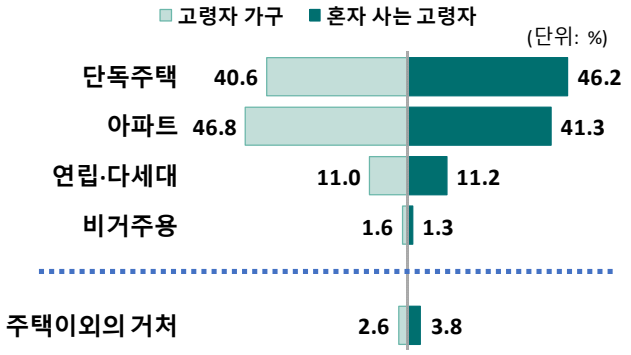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46.2%는 단독주택, 41.3%는 아파트에 거주함

○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남자(52.4%)가 여자(43.5%)보다 높고, 아파트 거주 비중은 여자(44.0%)가 남자(35.1%)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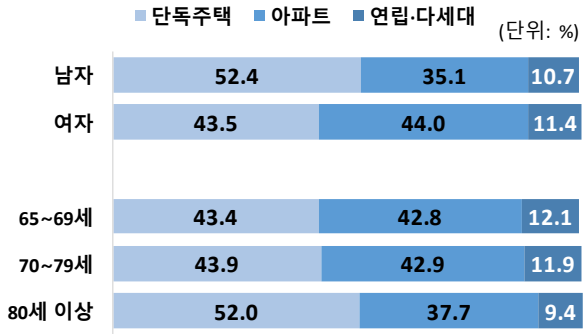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독주택의 거주 비중이 높아짐

○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전체 고령자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고령자 가구의 거처유형(2023) >



< 성별·연령대별 거처유형(2023)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의 거처 유형(2023) >

(단위: 천 가구, %)

	전체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거주용	주택이외의 거처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2,138	96.2	46.2	41.3	11.2	1.3	3.8
남자	663	93.6	52.4	35.1	10.7	1.8	6.4
여자	1,475	97.4	43.5	44.0	11.4	1.1	2.6
65~69세	645	94.6	43.4	42.8	12.1	1.7	5.4
70~79세	861	96.5	43.9	42.9	11.9	1.3	3.5
80세이상	633	97.6	52.0	37.7	9.4	0.9	2.4
고령자 가구	5,655	97.4	40.6	46.8	11.0	1.6	2.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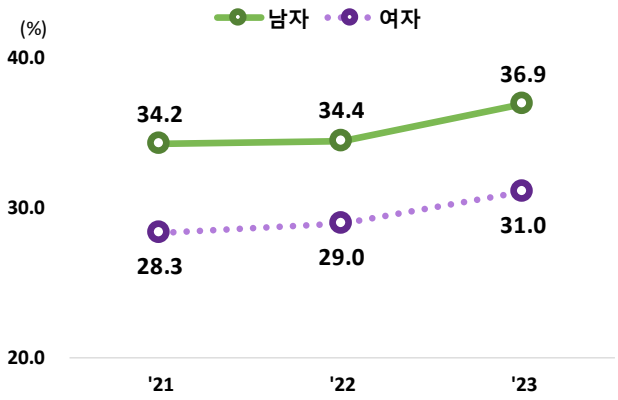
2023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66만 5천 명, 취업 비중은 32.8%

□ ’23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66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1천여 명 증가하고, 취업 비중은 32.8%로 2.2%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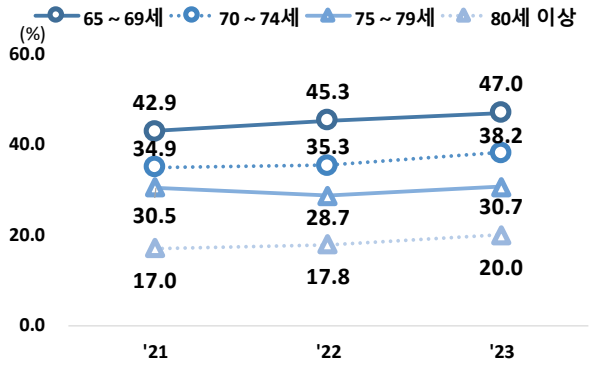
○ 성별 취업 비중은 남자(36.9%)가 여자(31.0%)보다 5.9%p 높음

○ 연령대별 취업 비중은 65~69세 47.0%, 70~74세 38.2%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며,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 비중이 상승 추세임

< 성별 취업 비중(혼자 사는 고령자) >



< 연령대별 취업 비중(혼자 사는 고령자) >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각년도 10월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 >

(단위: 천 명, %)

	2021		2022(A)		2023(B)		증감(B-A)	
	취업자	취업 비중	취업자	취업 비중	취업자	취업 비중	취업자	취업 비중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539	30.0	583	30.6	665	32.8	81	2.2
남자	176	34.2	192	34.5	222	36.9	30	2.4
여자	363	28.3	392	28.9	443	31.0	51	2.1
65～69세	187	42.9	214	45.3	242	47.0	28	1.7
70～74세	136	34.9	148	35.3	164	38.2	16	2.9
75～79세	114	30.5	106	28.7	122	30.7	16	2.0
80세이상	102	17.0	116	17.8	137	20.0	21	2.1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각년도 10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혼자 사는 고령자로 분석함

4. 생활비 마련 방법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은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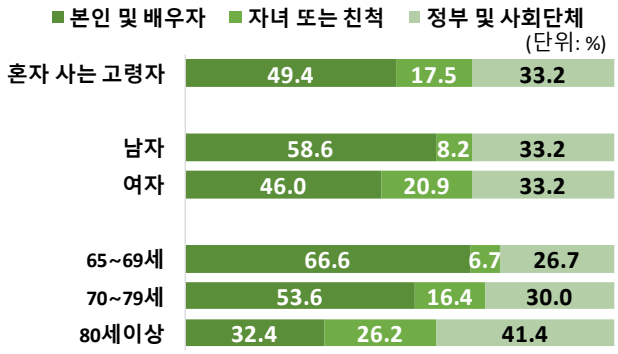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은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9.4%로 가장 많았고, 정부 및 사회단체 등 33.2%, 자녀 또는 친척 지원 17.5% 순임

○ '23년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는 남자(58.6%)가 여자(46.0%)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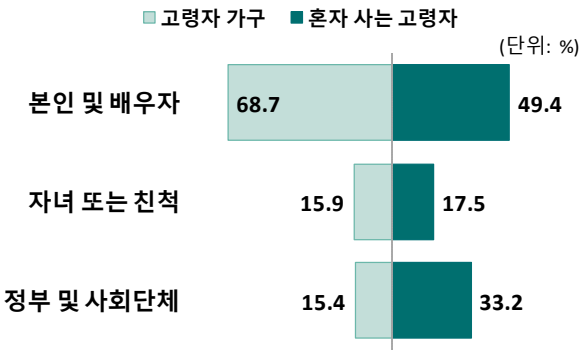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낮아짐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33.2%)은 전체 고령자(15.4%)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2023) >



< 생활비 마련 방법 비교(2023)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

(단위: %)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퇴직급여	예금 등 기타	자녀 또는 친척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등
혼자 사는 고령자	2015	100.0	41.6	39.5	12.2	40.2	8.1	31.8	26.6
	2017	100.0	42.8	41.8	11.1	36.4	10.7	32.6	24.6
	2019	100.0	44.6	47.3	9.9	32.1	10.6	24.3	31.1
	2021	100.0	46.6	46.3	11.1	32.5	10.1	18.1	35.3
	2023	100.0	49.4	44.6	9.5	38.4	7.5	17.5	33.2
	남자	100.0	58.6	49.9	5.9	36.7	7.5	8.2	33.2
	여자	100.0	46.0	42.1	11.3	39.2	7.5	20.9	33.2
	65~69세	100.0	66.6	61.5	4.9	27.8	5.8	6.7	26.7
	70~79세	100.0	53.6	42.2	9.5	40.5	7.7	16.4	30.0
	80세이상	100.0	32.4	24.9	16.3	49.3	9.5	26.2	41.4
전체 고령자(2023)		100.0	68.7	48.3	10.3	35.6	5.9	15.9	15.4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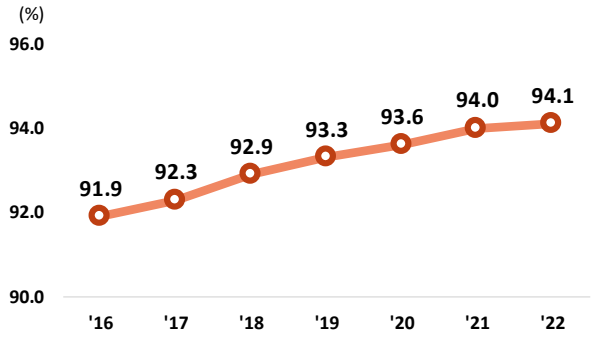
5. 연금 수급 현황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94.1%가 연금을 받고 있고, 월평균 58만 원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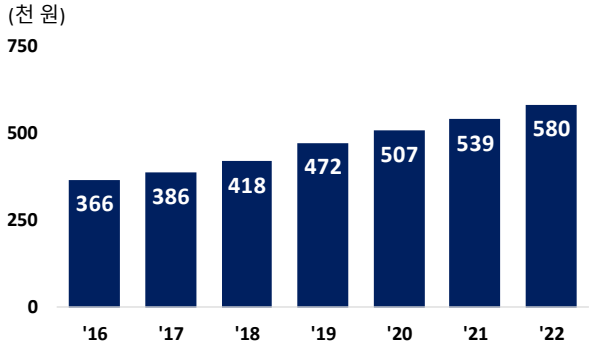
□ '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4.1%이며,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2년 월평균 연금 수급 금액은 전년 대비 4만 1천 원 증가한 58만 원임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 >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 금액 >



자료: 통계청, 「연금통계」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1] 수급 현황 >

(단위: 천 가구, %, 천 원, %p)

		연금 수급 가구	수급률	월평균 수급 금액	전년 대비 수급률 (%p)	전년 대비 월평균 수급 금액 증감액	연금 미수급 가구 수	미수급률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1,190	91.9	366	-	-	104	8.1
	2017	1,266	92.3	386	0.4	20	105	7.7
	2018	1,342	92.9	418	0.6	32	102	7.1
	2019	1,430	93.3	472	0.4	54	103	6.7
	2020	1,555	93.6	507	0.3	35	106	6.4
	2021	1,715	94.0	539	0.4	32	110	6.0
	2022	1,857	94.1	580	0.1	41	117	5.9

자료: 통계청, 「연금통계」

주: 1) 기초(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등 11종의 연금

6. 소득 및 소비 만족도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20.7%는 소득에 만족하고, 12.6%는 소비에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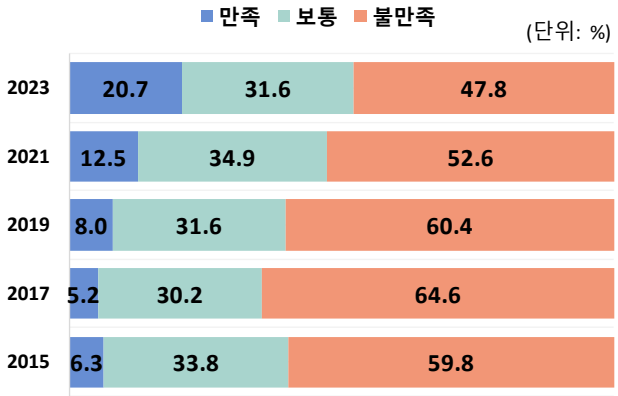
□ '23년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비중은 20.7%이고, 만족하지 않는 비중은 47.8%임

○ 성별로는 남자의 만족 비중(23.9%)이 여자(19.4%)보다 높고, 연령대별로는 65~69세의 만족 비중이 23.1%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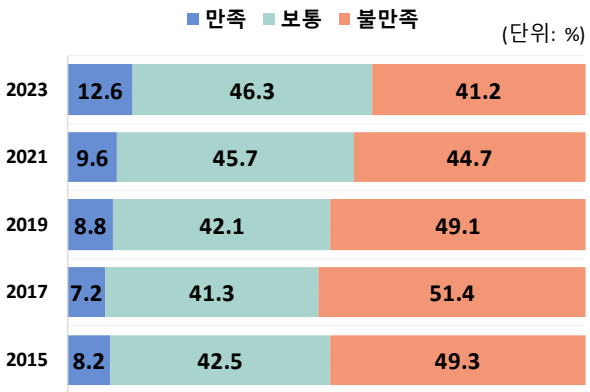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소비에 만족하는 비중은 12.6%이고, 만족하지 않은 비중은 41.2%임

○ 성별로는 남자의 만족 비중(15.4%)이 여자(11.5%)보다 높고, 연령대별로는 70대의 만족 비중이 14.1%로 가장 높음

< 소득 만족도 >



< 소비생활 만족도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

(단위: %)

		소득 만족도[1]			소비생활 만족도		
		만족[2]	보통	불만족[3]	만족	보통	불만족
혼자 사는 고령자	2015	6.3	33.8	59.8	8.2	42.5	49.3
	2017	5.2	30.2	64.6	7.2	41.3	51.4
	2019	8.0	31.6	60.4	8.8	42.1	49.1
	2021	12.5	34.9	52.6	9.6	45.7	44.7
	2023	20.7	31.6	47.8	12.6	46.3	41.2
	남자	23.9	26.7	49.5	15.4	40.7	43.8
	여자	19.4	33.5	47.1	11.5	48.3	40.2
	65~69세	23.1	29.8	47.1	13.1	44.5	42.5
	70~79세	21.5	32.8	45.7	14.1	48.2	37.7
	80세이상	17.6	31.4	51.0	10.4	45.2	44.4
전체 고령자(2023)		24.3	35.8	39.9	14.7	51.5	33.7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2)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3)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7. 사회적 관계망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18.7%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19.5%는 교류하는 사람이 없음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4.8%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고, 71.0%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으며, 32.6%는 대화상대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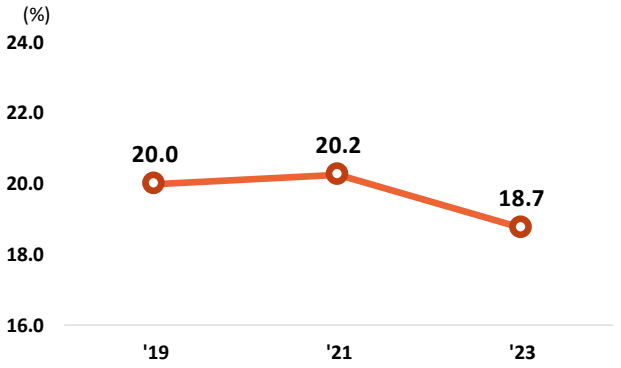
○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 상대 모두 없는 비중(A)은 18.7%임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26.6%는 가족 또는 친척과 교류하는 사람이 없고, 35.9%는 가족 또는 친척이 아닌 사람과 교류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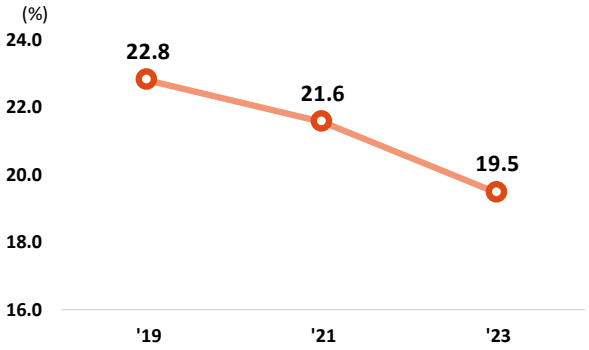
○ 교류하는 사람이 없는 비중(E)은 19.5%임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비중은 8.5%임

<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A) >



< 교류하는 사람 없음(E)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 대상 없음 비율 >

(단위: %)

		가사도움[1] (B)	자금차입[2] (C)	대화상대[3] (D)	도움 없음 (A= B∩C∩D)	교류 가족 또는 친척[4](F)	교류 가족 또는 친척 외[4](G)	교류 없음 (E= F∩G)	도움과 교류 없음 (A∩E)
혼자 사는 고령자	2019	34.7	71.6	33.4	20.0	30.5	38.7	22.8	9.8
	2021	33.7	73.6	34.3	20.2	26.7	42.9	21.6	9.7
	2023	34.8	71.0	32.6	18.7	26.6	35.9	19.5	8.5
	남자	42.6	71.1	44.1	29.8	33.1	36.6	24.3	13.7
	여자	31.9	70.9	28.4	14.7	24.2	35.6	17.7	6.6
	65~69세	43.4	71.7	35.2	23.9	28.6	32.7	20.3	10.1
	70~79세	36.3	70.6	30.5	17.6	25.6	31.1	17.1	7.2
	80세이상	27.0	71.0	33.2	16.5	26.3	43.7	21.6	9.0
전체 고령자(2023)		28.6	63.8	28.3	15.5	25.3	34.2	20.3	7.5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 할 경우
4)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우편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8. 활동 제약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21.4%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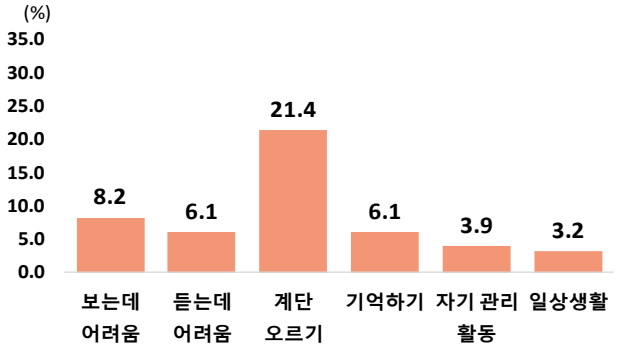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21.4%는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고, 8.2%는 안경을 써도 보는데 어렵고, 6.1%는 기억하거나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성별로는 모든 부문에서 활동 제약이 남자보다 여자가 어려움을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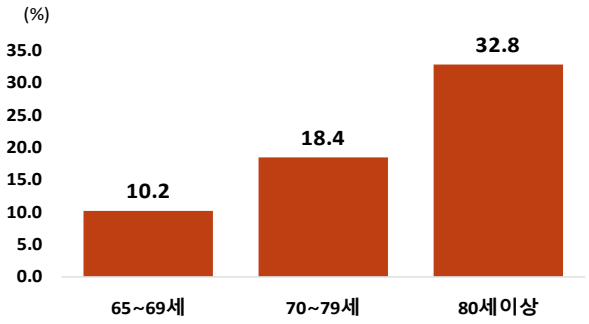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보다 보는 데, 듣는 데, 계단 오르기, 자기 관리 활동에서 더 어려움을 느낌

< 활동 제약(2023, 어려움) >



< 연령대별 계단 오르기(2023, 어려움)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활동 제약 >

(단위: %)

		보는데 어려움		듣는데 어려움		계단 오르기		기억하기		자기 관리 활동		일상생활	
		어렵지 않다[1]	어렵다[2]	어렵지 않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혼자 사는 고령자	2021	92.6	7.4	94.1	5.9	79.9	20.1	94.5	5.5	96.5	3.5	97.3	2.7
	2022	92.7	7.3	94.6	5.4	79.4	20.6	93.1	6.9	95.9	4.1	96.3	3.7
	2023	91.8	8.2	94.0	6.1	78.6	21.4	93.9	6.1	96.1	3.9	96.8	3.2
	남자	94.0	6.0	95.2	4.8	86.8	13.2	96.4	3.6	97.0	3.0	97.2	2.8
	여자	90.9	9.1	93.5	6.5	75.5	24.5	93.0	7.0	95.8	4.2	96.7	3.3
	65~69세	94.4	5.6	97.4	2.6	89.8	10.2	96.4	3.6	98.8	1.2	97.9	2.1
	70~79세	94.5	5.5	97.1	2.9	81.6	18.4	96.9	3.1	97.1	2.9	98.5	1.5
	80세이상	86.7	13.3	87.8	12.2	67.3	32.8	88.8	11.2	93.0	7.0	94.1	5.9
전체 고령자(2023)		93.9	6.1	94.4	5.6	83.6	16.4	93.7	6.3	96.2	3.8	96.8	3.2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전혀 어렵지 않다'와 '약간 어렵다'를 합한 수치임
2) '상당히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를 합한 수치임

9. 건강 평가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전체 고령자에 비해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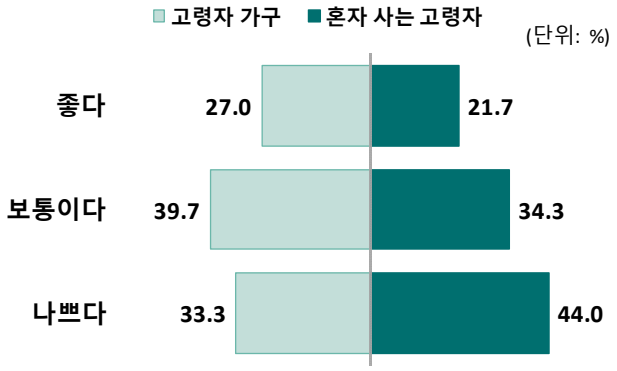
□ '22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7%로 2년 전보다 4.5%p 높아짐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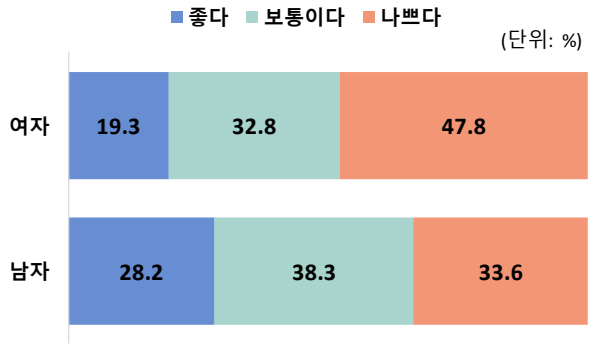
□ '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전체 고령자에 비해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 전체 고령자의 33.3%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반면, 혼자 사는 고령자는 44.0%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함

< 고령자의 건강 평가(2022) >



< 성별 건강 평가(2022)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 평가 >

(단위: %)

		좋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쁘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혼자 사는 고령자	2014	14.4	1.8	12.6	23.8	61.8	48.4	13.4
	2016	16.9	2.0	14.8	28.1	55.0	44.1	10.9
	2018	17.1	1.9	15.1	28.4	54.5	42.7	11.8
	2020	17.2	2.1	15.0	33.3	49.5	42.5	7.0
	2022	21.7	2.3	19.4	34.3	44.0	38.3	5.7
	남자	28.2	3.8	24.4	38.3	33.6	27.9	5.7
	여자	19.3	1.7	17.6	32.8	47.8	42.2	5.7
	65~69세	31.3	3.6	27.6	37.8	30.9	29.4	1.5
	70~79세	23.5	2.3	21.2	38.3	38.2	32.8	5.4
	80세이상	13.2	1.4	11.8	27.0	59.8	51.1	8.7
전체 고령자(2022)		27.0	2.8	24.2	39.7	33.3	28.8	4.4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10. 건강 관리

2022년 전반적인 건강 관리 실천율은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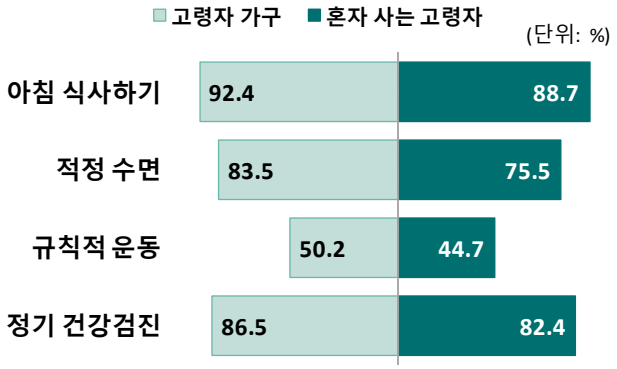
□ '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아침 식사하기 88.7%, 정기 건강검진 82.4%, 적정 수면 75.5%, 규칙적 운동 44.7% 순임

○ 성별로 보면,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아침 식사하기 실천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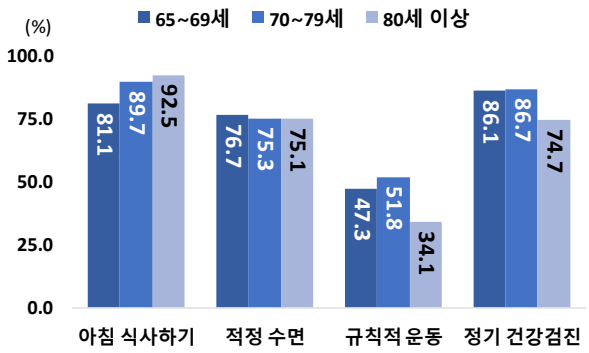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침 식사하기 실천율이 높은 반면,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낮음

○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 실천율은 전체 고령자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낮게 나타남

< 고령자의 건강 관리(2022) >



< 연령대별 건강 관리(2022)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 >

(단위: %)

		아침 식사하기		적정 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함	실천 안함	실천함	실천 안함	실천함	실천 안함	실천함	실천 안함
혼자 사는 고령자	2014	89.3	10.7	73.8	26.3	38.0	62.0	68.9	31.1
	2016	86.6	13.4	73.5	26.5	41.4	58.6	73.0	27.0
	2018	85.5	14.5	74.5	25.5	35.7	64.3	79.2	20.8
	2020	86.7	13.3	74.2	25.8	38.6	61.4	79.3	20.7
	2022	88.7	11.3	75.5	24.5	44.7	55.3	82.4	17.6
	남자	83.2	16.8	80.8	19.2	52.2	47.8	83.2	16.8
	여자	90.7	9.3	73.6	26.4	41.9	58.1	82.1	17.9
	65~69세	81.1	18.9	76.7	23.3	47.3	52.7	86.1	13.9
	70~79세	89.7	10.3	75.3	24.7	51.8	48.2	86.7	13.3
	80세이상	92.5	7.5	75.1	24.9	34.1	65.9	74.7	25.3
전체 고령자(2022)		92.4	7.6	83.5	16.5	50.2	49.8	86.5	13.5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11. 스트레스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1.8%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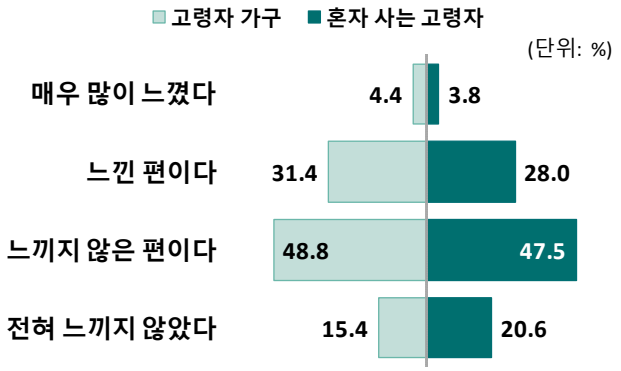
□ '22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1.8%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느끼고 있으며, 연도별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인식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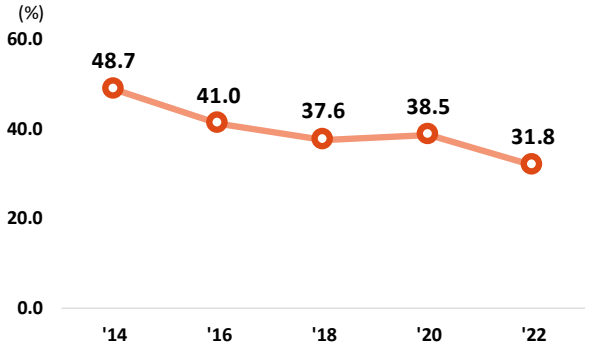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65~69세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정도가 32.9%로 가장 높았고, 70대 31.9%, 80세 이상 31.1% 순임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전체 고령자보다 낮게 나타남

< 일상생활 스트레스(2022) >



< 연도별 일상생활 스트레스(느낌)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전반적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

(단위: %)

		느낌	매우 많이 느꼈다	느낀 편이다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은 편이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
혼자 사는 고령자	2014	48.7	9.7	39.1	51.3	42.2	9.1
	2016	41.0	7.7	33.3	59.0	44.4	14.6
	2018	37.6	6.2	31.4	62.4	44.5	18.0
	2020	38.5	6.8	31.7	61.5	45.5	16.0
	2022	31.8	3.8	28.0	68.2	47.5	20.6
	남자	33.3	3.9	29.4	66.7	47.9	18.8
	여자	31.3	3.8	27.5	68.7	47.4	21.3
	65~69세	32.9	2.6	30.2	67.1	48.2	18.9
	70~79세	31.9	3.7	28.2	68.1	48.8	19.3
	80세이상	31.1	4.7	26.4	68.9	45.5	23.5
전체 고령자(2022)		35.8	4.4	31.4	64.2	48.8	15.4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12. 노후 준비(주된 응답)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44.2%가 노후 준비하고(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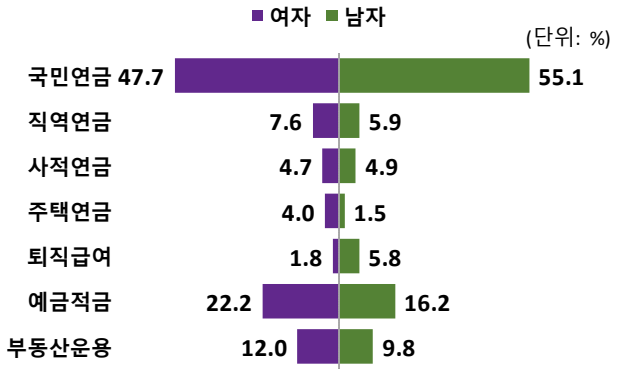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44.2%는 노후 준비하고(되어) 있고, 55.8%는 준비하고(되어) 있지 않음

○ 성별로는 남자의 50.4%가, 여자의 41.9%가 노후 준비를 하고(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8.5%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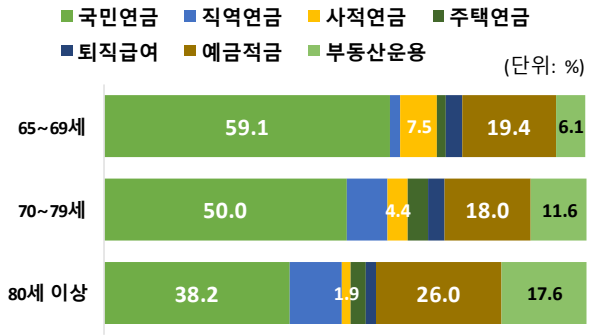
○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고,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20.4%, 부동산 운용 11.4% 순임

○ 혼자 사는 고령자의 44.2%가 노후 준비하고(되어) 있고, 전체 고령자는 59.5%가 노후 준비하고(되어) 있음

< 성별 노후 준비 방법(2023) >



< 연령대별 노후 준비 방법(2023)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 준비 방법(주된 응답) >

(단위: %)

		준비하고 있음	국민 연금	직역 연금[1]	사적 연금[2]	주택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3]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등	준비하고 있지 않음
혼자 사는 고령자	2021	39.7	48.1	8.0	3.5	4.0	3.0	23.3	8.9	1.1	60.3
	2023	44.2	50.0	7.1	4.8	3.2	3.0	20.4	11.4	0.2	55.8
	남자	50.4	55.1	5.9	4.9	1.5	5.8	16.2	9.8	0.8	49.6
	여자	41.9	47.7	7.6	4.7	4.0	1.8	22.2	12.0	0.0	58.1
	65~69세	55.7	59.1	2.2	7.5	1.9	3.3	19.4	6.1	0.5	44.3
	70~79세	48.9	50.0	8.4	4.4	4.1	3.3	18.0	11.6	0.1	51.2
	80세이상	30.7	38.2	10.8	1.9	3.3	2.0	26.0	17.6	0.2	69.3
전체 고령자(2023)		59.5	47.5	11.0	4.6	3.3	3.5	19.8	9.9	0.5	40.5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2) 은행, 보험회사 등을 통한 개인연금
3)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13.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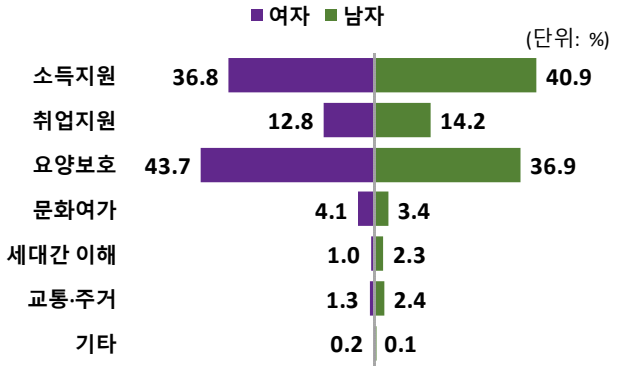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는 국민의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을 의료 · 요양보호 서비스(41.9%), 노후 소득지원(37.9%)이라고 주로 응답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는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을 의료·요양보호서비스 41.9%, 노후 소득지원 37.9%, 노후 취업지원 13.2%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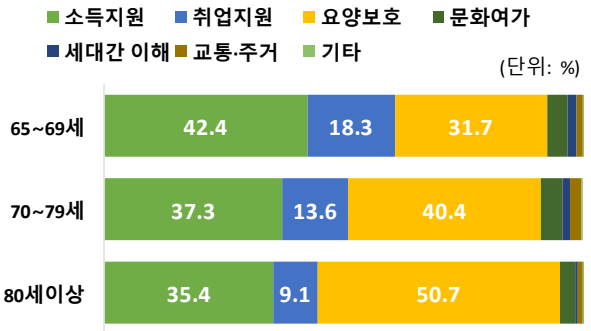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남자는 노후 소득지원(40.9%) 응답이 많고, 여자는 의료·요양 보호서비스(43.7%) 응답이 많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료·요양 보호서비스 응답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후 소득지원, 노후 취업지원의 비중이 높음

< 성별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2023) >



< 연령대별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2023)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를 위한 사회의 역할 >

(단위: %)

		노후 소득지원	노후 취업지원	의료·요양 보호서비스	문화·여가 복지 서비스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교통·주거 환경 조성	기타
혼자 사는 고령자	2015	41.3	13.4	36.1	5.9	1.6	1.4	0.2
	2017	44.6	11.6	38.6	3.6	0.7	0.9	0.1
	2019	37.5	13.3	41.1	4.4	0.8	2.4	0.5
	2021	43.2	13.6	33.4	6.5	1.4	1.5	0.4
	2023	37.9	13.2	41.9	3.9	1.4	1.6	0.2
	남자	40.9	14.2	36.9	3.4	2.3	2.4	0.1
	여자	36.8	12.8	43.7	4.1	1.0	1.3	0.2
	65~69세	42.4	18.3	31.7	4.3	1.9	1.4	0.1
	70~79세	37.3	13.6	40.4	4.4	1.7	2.4	0.3
	80세이상	35.4	9.1	50.7	3.1	0.7	0.9	0.1
전체 고령자(2023)		35.5	14.8	40.8	5.0	1.8	2.0	0.2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14.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 및 노후 생활 방법

2023년 혼자 사는 고령자는 취미(45.4%), 여행 · 관광(20.2%) 등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며, 실제로는 취미(40.5%), 소득창출(21.4%) 활동을 하며 보냄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활동(45.4%), 여행·관광 활동(20.2%), 종교활동(12.0%), 소득 창출 활동(10.7%) 순임

○ 성별로 보면, 여행·관광활동(4.7%p), 종교 활동(5.9%p)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종교 활동(12.0%) 비중이 전체 고령자에 비해(9.6%) 높게 나타남

<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2023) >

(단위: %)

		취미활동	여행·관광 활동	학습·자기 개발활동	자원봉사 활동	종교 활동	소득 창출 활동	가족 돌봄	기타
혼자 사는 고령자	2023	45.4	20.2	3.9	2.2	12.0	10.7	2.3	3.2
	남자	44.8	23.7	4.3	2.0	7.6	13.1	1.8	2.8
	여자	45.7	19.0	3.7	2.3	13.6	9.9	2.5	3.4
	65~69세	38.9	24.3	4.2	2.3	9.7	16.5	3.4	0.7
	70~79세	47.6	18.5	4.3	2.7	13.0	10.1	1.9	2.0
	80세이상	47.4	19.5	3.1	1.5	12.4	7.6	2.1	6.4
전체 고령자(2023)		44.8	22.4	3.4	2.1	9.6	10.9	4.7	2.2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23년 혼자 사는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취미활동(40.5%), 소득 창출 활동(21.4%), 기타(13.0%), 종교 활동(12.2%) 순임

○ 성별로 보면, 종교 활동(6.2%p), 소득 창출 활동(5.1%p)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 방법(2023) >

(단위: %)

		취미활동	여행·관광 활동	학습·자기 개발활동	자원봉사 활동	종교 활동	소득 창출 활동	가족 돌봄	기타
혼자 사는 고령자	2023	40.5	4.2	4.9	0.7	12.2	21.4	3.1	13.0
	남자	38.8	4.7	6.7	1.3	7.6	25.1	2.7	13.0
	여자	41.1	4.0	4.2	0.5	13.9	20.1	3.3	13.0
	65~69세	33.4	4.8	5.2	0.4	7.8	35.4	5.2	7.8
	70~79세	42.3	4.0	4.5	0.7	14.2	22.8	2.6	9.0
	80세이상	43.3	4.1	5.1	1.0	13.0	10.1	2.2	21.3
전체 고령자(2023)		36.9	5.0	3.6	1.0	9.4	25.2	11.2	7.7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15.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27.7%는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낌

□ '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27.7%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령자가 느끼는 불안보다 1.4%p 높은 수치임

○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인식함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단위: %)

		안전	매우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다	보통	불안	비교적 안전하지 않다	매우 안전하지 않다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14.2	1.2	13.0	42.7	43.1	38.4	4.7
	2018	16.7	1.2	15.6	47.4	35.9	33.2	2.6
	2020	24.3	2.0	22.3	46.3	29.4	26.7	2.7
	2022	26.9	1.6	25.3	45.4	27.7	25.1	2.6
	남자	29.0	1.4	27.5	48.0	23.0	20.3	2.7
	여자	26.2	1.7	24.5	44.5	29.4	26.8	2.5
	65~69세	25.8	1.9	23.8	45.8	28.5	25.1	3.3
	70~79세	24.6	1.5	23.0	45.0	30.5	27.8	2.7
	80세이상	30.6	1.5	29.2	45.8	23.6	21.6	2.0
전체 고령자(2022)		26.5	1.9	24.6	47.2	26.3	23.8	2.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22년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느끼는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 신종 질병이 33.0%로 가장 높았고, 국가안보 17.0%, 범죄 12.0% 순임

○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도는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 비해 4.3%p 높음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 가장 주된 불안 요인 >

(단위: %)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신종 질병	범죄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24.7	5.4	4.1	8.9	9.4	5.8	6.9	29.0	4.9
	2018	23.4	11.7	8.4	11.9	8.9	6.1	4.9	19.5	4.9
	2020	11.7	4.2	3.6	6.2	11.0	2.8	50.2	7.6	2.5
	2022	17.0	5.4	5.9	8.8	9.0	4.5	33.0	12.0	4.1
	남자	18.3	3.4	7.7	8.1	11.8	4.9	28.0	11.5	6.3
	여자	16.5	6.1	5.2	9.1	7.9	4.4	34.8	12.3	3.2
	65~69세	13.2	5.9	5.3	7.8	10.0	5.9	32.7	13.1	5.4
	70~79세	19.2	5.8	6.7	8.6	9.1	4.1	29.4	12.6	4.1
	80세이상	16.8	4.6	5.1	9.8	8.2	4.2	37.6	10.6	3.2
전체 고령자(2022)		18.7	5.2	7.5	8.0	9.4	6.4	28.7	10.4	5.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4 고령자 통계

2024 고령자 통계 (요약)

Ⅰ 인구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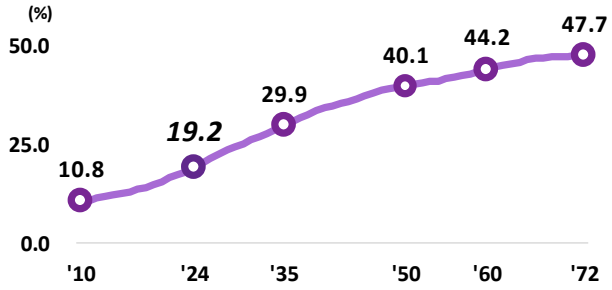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

○ ‘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5년에 20%, ‘36년에 30%, ’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22쪽)

○ ’24년 고령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여자 21.5%, 남자 17.0%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5%p 높음(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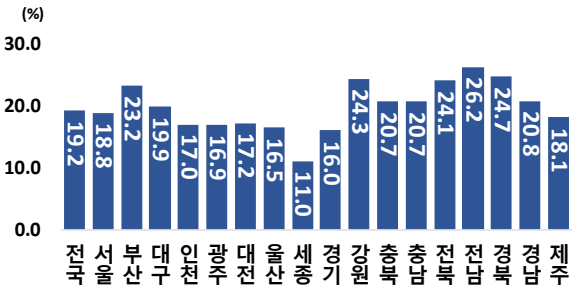
○ ’24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지역은 전남(26.2%), 경북(24.7%), 강원(24.3%), 전북(24.1%), 부산(23.2%), 경남(20.8%), 충북(20.7%), 충남(20.7%)으로 총 8곳임(24쪽)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Ⅱ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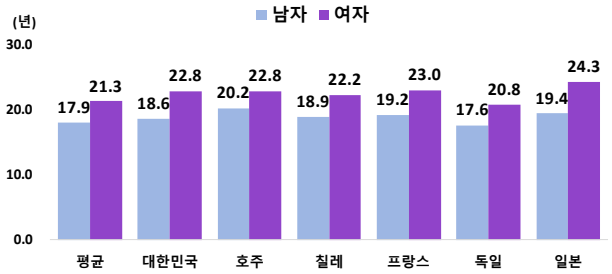
2022년 65세 기대여명은 20.7년, 75세 기대여명은 12.6년

○ ’22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0.7년(남자 18.6년, 여자 22.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0.7년, 여자는 1.5년 더 높은 수준임(28쪽)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22만 9천 원, 본인부담금은 12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만 6천 원, 6만 8천 원 증가함(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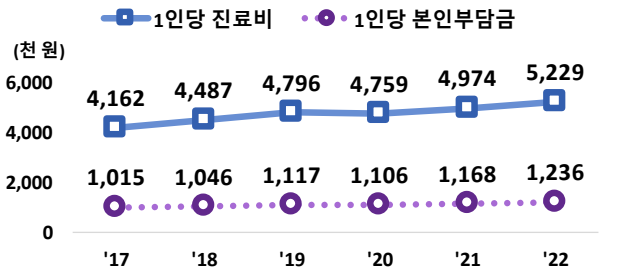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9.2%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함(30쪽)

< 기대여명(65세, 2022) >



자료: OECD,「Health Status」(2024.9.2. 기준)

< 고령자(65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Ⅲ 소득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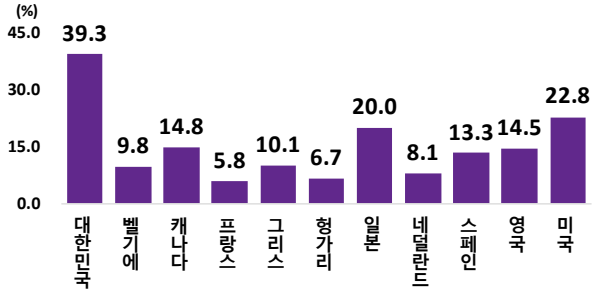
2023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순자산은 4억 5,540만 원, 2022년 65세 이상 인구대비 연금 수급률은 90.4%

○ ’23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만 원 증가함(34쪽)

○ ’22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고, 지니계수는 0.383, 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임(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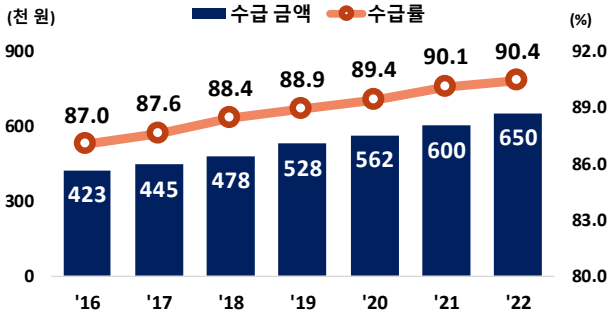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0.4%, 월평균 수급 금액은 65만 원임(36쪽)

<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66세 이상, 2021) >



자료: OECD,「Social and Welfare Statistics」(2024.9.2. 기준)

< 연금 수급률 및 월평균 수급 금액 >



자료: 통계청,「연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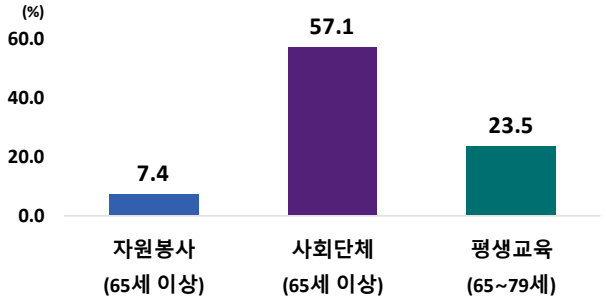
Ⅳ 사회참여·관계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4%, 19세 이상 성인 중 10.8%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 이라고 생각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4%, 단체 참여율은 57.1%, 평생교육 참여율(65~79세)은 23.5%임(40~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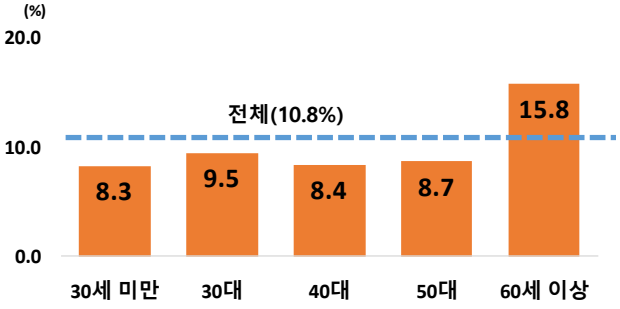
○ ’22년 19세 이상 성인의 10.4%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 이라고 생각하였고,「장애인(18.9%)」 다음으로 높았음(43쪽)

< 사회 참여(2023) >



자료:통계청,「사회조사」, 한국교육개발원,「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연령대별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3, 노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실태조사」

Ⅴ 생활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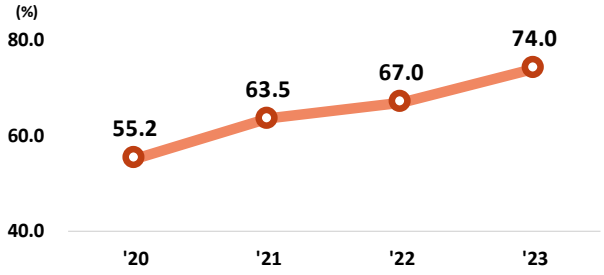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0%는 인터넷을 이용하였고, 93.9%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기 기능을 주로 이용함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0%는 인터넷을 이용하였고, 93.9%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기 기능을 주로 이용함(45·46쪽)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5.8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하였고, 부상률은 111.6명으로 0.1명 증가함(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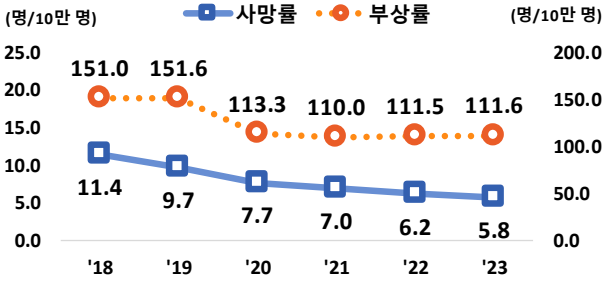
○ ’23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9.2%이며, 부상자 비중은 19.8%로 전년 대비 각각 2.3%p 증가함(48쪽)

< 인터넷 이용률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 및 부상률 >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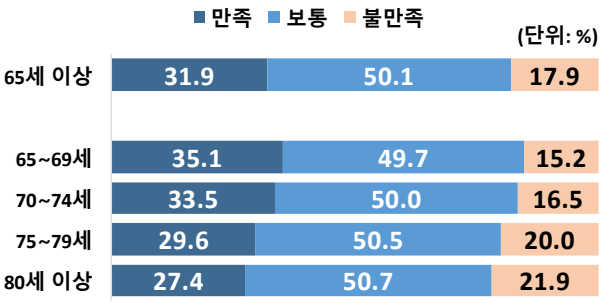
Ⅵ 주관적 웰빙

2023년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31.9%이고,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고령자는 26.7%

○ ’23년 65세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1.9%로 전년 대비 2.4%p 감소함(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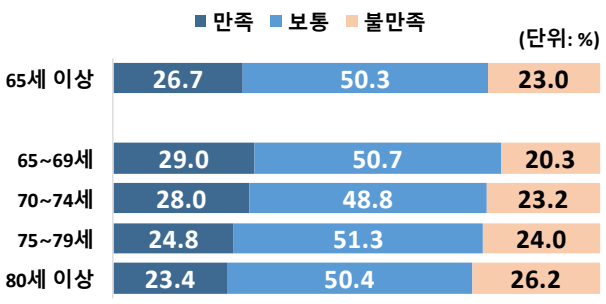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26.7%로 전년 대비 4.6%p 감소함(52쪽)

< 삶에 대한 만족도(2023)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성취에 대한 만족도(2023)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Ⅰ. 인구 · 가구

1.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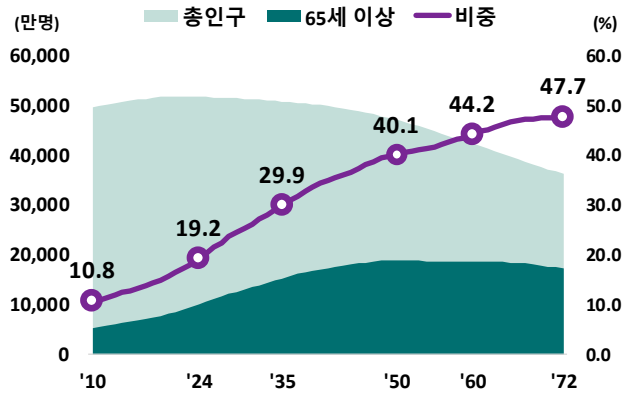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 2025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인 993만 8천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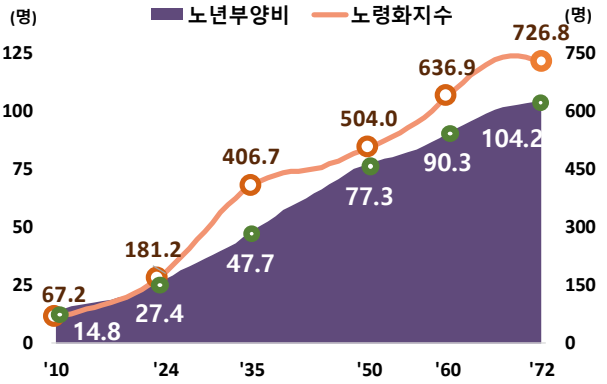
○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5년에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36년 30%, ’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4년 27.4명이며, ‘35년 47.7명, ’50년 77.3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1]	노년부양비[2]	노령화지수[3]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20	51,836	8,152	15.7	21.8	129.3
2024	51,751	9,938	19.2	27.4	181.2
2025	51,685	10,514	20.3	29.3	199.9
2030	51,306	12,980	25.3	38.0	312.0
2035	50,825	15,208	29.9	47.7	406.7
2040	50,059	17,151	34.3	59.1	442.2
2050	47,107	18,908	40.1	77.3	504.0
2060	42,302	18,682	44.2	90.3	636.9
2072	36,222	17,271	47.7	104.2	726.8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통계표 (55쪽) 참조

주: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2024년 성별 고령인구 비중은 여자 21.5%, 남자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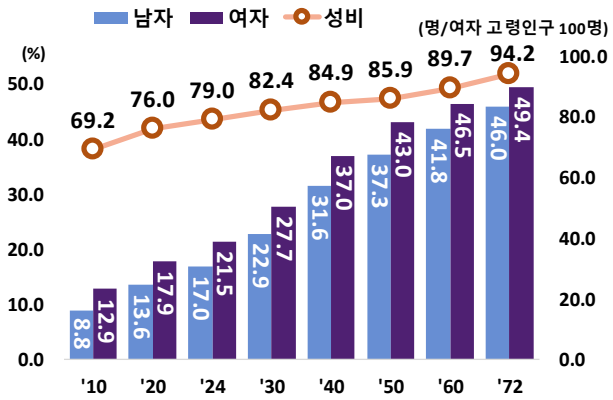
□ ’24년 성별로 고령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여자 21.5%, 남자 17.0%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5%p 높음

○ 65세 이상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남자 고령인구는 ’24년 79.0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50년 85.9명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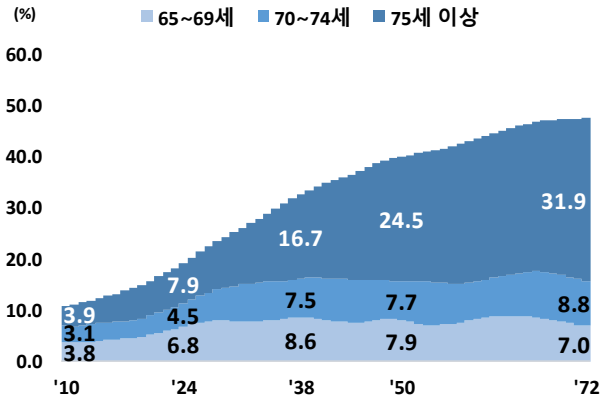
□ ‘24년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19.2%)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65~69세 6.8%, 70~74세 4.5%, 75세 이상 7.9%임

○ ’24년 65~74세 인구(583만 2천 명)가 75세 이상 인구(410만 6천 명)보다 많으나, ‘38년부터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성별					연령대별					
		남자	고령 비중[1]	여자	고령 비중	성비[2]	65~69세	비중[3]	70~74세	비중	75세 이상	비중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1,878	3.8	1,540	3.1	1,948	3.9
2020	8,152	3,521	13.6	4,631	17.9	76.0	2,662	5.1	1,990	3.8	3,499	6.8
2024	9,938	4,387	17.0	5,551	21.5	79.0	3,509	6.8	2,323	4.5	4,106	7.9
2025	10,514	4,661	18.0	5,853	22.6	79.6	3,689	7.1	2,527	4.9	4,298	8.3
2030	12,980	5,862	22.9	7,118	27.7	82.4	4,037	7.9	3,528	6.9	5,415	10.6
2038	16,492	7,559	30.1	8,933	35.3	84.6	4,329	8.6	3,765	7.5	8,399	16.7
2040	17,151	7,874	31.6	9,277	37.0	84.9	4,185	8.4	3,987	8.0	8,979	17.9
2050	18,908	8,738	37.3	10,170	43.0	85.9	3,743	7.9	3,632	7.7	11,533	24.5
2060	18,682	8,834	41.8	9,848	46.5	89.7	3,583	8.5	3,155	7.5	11,943	28.2
2072	17,271	8,377	46.0	8,894	49.4	94.2	2,534	7.0	3,173	8.8	11,564	31.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통계표 (56~57쪽) 참조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대별 비중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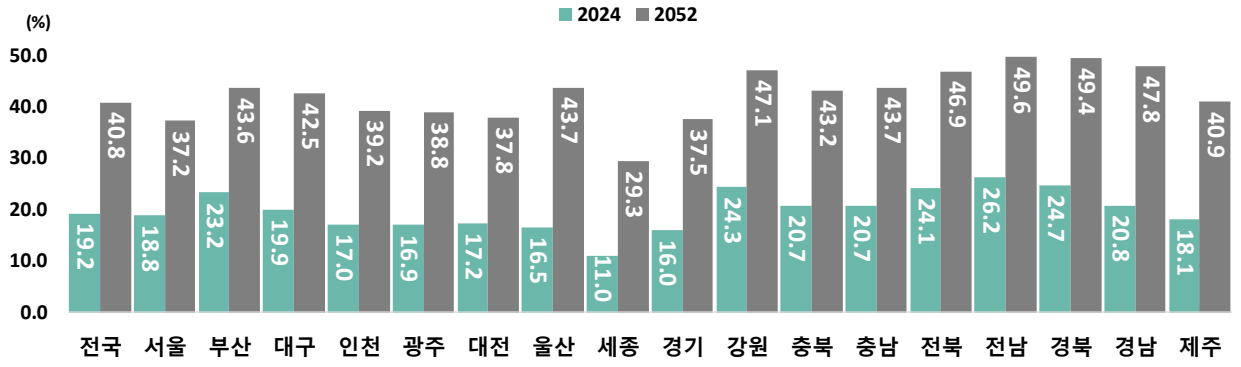
2. 지역별 고령인구

2024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6.2%),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11.0%)

□ ’24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전남(26.2%), 경북(24.7%), 강원(24.3%), 전북(24.1%), 부산(23.2%), 경남(20.8%), 충북(20.7%), 충남(20.7%)으로 총 8곳임

○ ’28년에는 세종(13.5%)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38년에는 세종까지도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위)

	2023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24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28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38	고령인구 비중	순위	2052	고령인구 비중	순위
전국	9,436	18.2		9,938	19.2	-	12,125	23.6	-	16,492	32.7		18,861	40.8	-
서울	1,687	17.9	10	1,769	18.8	10	2,080	22.6	10	2,669	30.3	14	2,950	37.2	16
부산	722	22.0	5	756	23.2	5	887	28.1	5	1,065	36.6	6	1,068	43.6	8
대구	445	18.9	9	469	19.9	9	565	24.8	9	733	34.8	7	762	42.5	10
인천	482	16.0	13	517	17.0	13	666	21.6	13	964	30.8	12	1,161	39.2	12
광주	233	15.9	14	245	16.9	14	297	20.9	15	406	30.4	13	458	38.8	13
대전	240	16.3	12	253	17.2	12	310	21.5	14	419	30.3	14	472	37.8	14
울산	169	15.3	15	181	16.5	15	235	22.0	11	336	34.2	10	361	43.7	6
세종	40	10.3	17	43	11.0	17	57	13.5	17	98	20.2	17	157	29.3	17
경기	2,073	15.0	16	2,214	16.0	16	2,843	20.1	16	4,229	29.1	16	5,176	37.5	15
강원	352	23.1	3	369	24.3	3	447	29.5	3	596	39.2	3	677	47.1	4
충북	322	19.8	7	338	20.7	7	414	25.3	7	570	34.8	7	667	43.2	9
충남	440	20.0	6	461	20.7	7	560	25.0	8	780	34.3	9	955	43.7	6
전북	409	23.1	3	423	24.1	4	494	28.8	4	628	38.8	4	680	46.9	5
전남	445	25.2	1	460	26.2	1	528	30.6	1	672	40.8	1	742	49.6	1
경북	617	23.6	2	643	24.7	2	763	30.0	2	988	40.7	2	1,071	49.4	2
경남	644	19.7	8	677	20.8	6	831	26.2	6	1,125	37.8	5	1,241	47.8	3
제주	116	17.2	11	122	18.1	11	149	21.9	12	213	31.5	11	263	40.9	1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 통계표 (58~59쪽) 참조

3. 고령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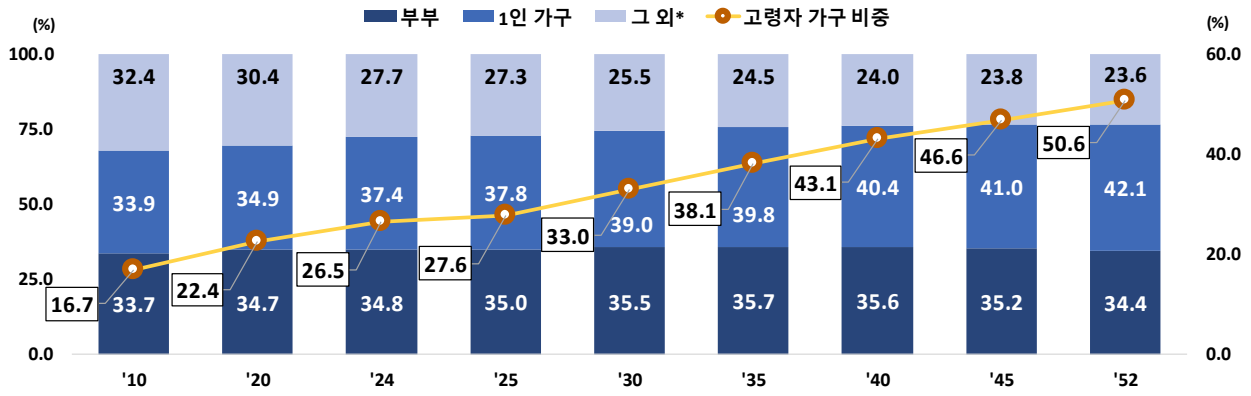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6.5%

□ '24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86만 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5%임

○ '24년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가 37.4%로 가장 많고, 부부(34.8%), 부부+미혼자녀(9.2%), 부(모)+미혼자녀(5.6%) 순임

○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38년에는 천만 가구를 넘고, '52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6%로 전망됨

< 고령자 가구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 그 외: 부부+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기타

< 고령자 가구 >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1]	비중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부부	구성비	부부+미혼자녀	구성비	부(모)+미혼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20	20,731	4,640	22.4	1,610	34.7	443	9.6	259	5.6	1,618	34.9	710	15.3
2024	22,180	5,867	26.5	2,043	34.8	542	9.2	328	5.6	2,197	37.4	757	12.9
2025	22,389	6,187	27.6	2,163	35.0	567	9.2	346	5.6	2,336	37.8	775	12.5
2030	23,349	7,694	33.0	2,728	35.5	667	8.7	427	5.5	3,004	39.0	868	11.3
2035	24,020	9,151	38.1	3,269	35.7	753	8.2	509	5.6	3,642	39.8	979	10.7
2038	24,274	10,025	41.3	3,578	35.7	808	8.1	562	5.6	4,022	40.1	1,055	10.5
2040	24,358	10,491	43.1	3,736	35.6	828	7.9	589	5.6	4,236	40.4	1,102	10.5
2045	24,221	11,291	46.6	3,978	35.2	847	7.5	639	5.7	4,632	41.0	1,196	10.6
2052	23,277	11,788	50.6	4,050	34.4	841	7.1	672	5.7	4,961	42.1	1,265	10.7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 통계표 (60쪽) 참조

4. 이혼 및 재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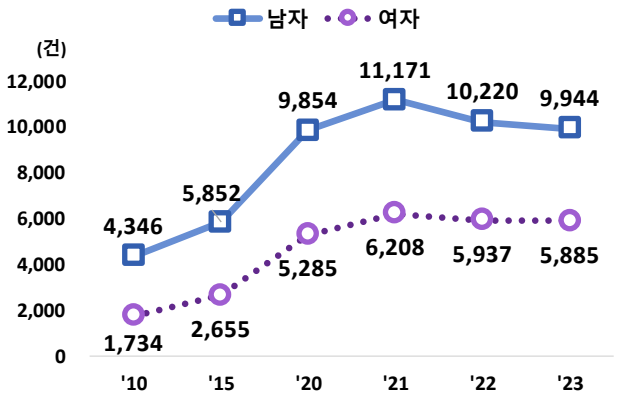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이혼 건수는 남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재혼 건수는 증가

□ '23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0.9%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2.7%, 0.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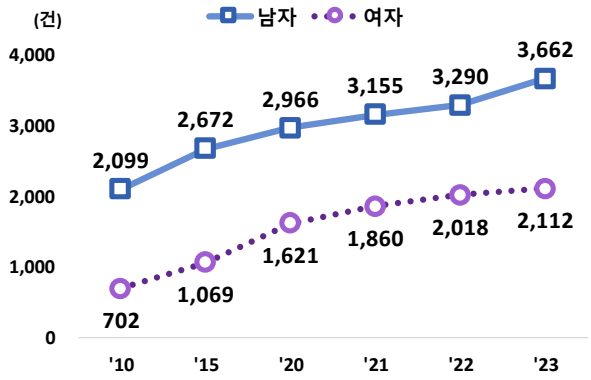
○ 전체 이혼 건수에서 65세 이상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8%, 6.4%로 나타남

□ '23년 전체 재혼 건수는 남녀 각각 1.4%, 0.6%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11.3%, 4.7% 증가함

< 이혼(65세 이상) >



< 재혼(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이혼 및 재혼 >

(단위: 건, %)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2005	128,035	2,589	2.0	916	0.7	59,662	1,566	66,587	413
2010	116,858	4,346	3.7	1,734	1.5	53,043	2,099	57,451	702
2015	109,153	5,852	5.4	2,655	2.4	46,388	2,672	52,747	1,069
2020	106,500	9,854	9.3	5,285	5.0	33,261	2,966	38,064	1,621
2021	101,673	11,171	11.0	6,208	6.1	31,059	3,155	35,597	1,860
2022	93,232	10,220	11.0	5,937	6.4	31,204	3,290	35,000	2,018
2023	**92,394**	**9,944**	**10.8**	**5,885**	**6.4**	**31,644**	**3,662**	**35,223**	**2,112**
전년대비 증감률	-0.9	-2.7		-0.9		1.4	11.3	0.6	4.7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통계표 (61쪽) 참조

5. 주택 소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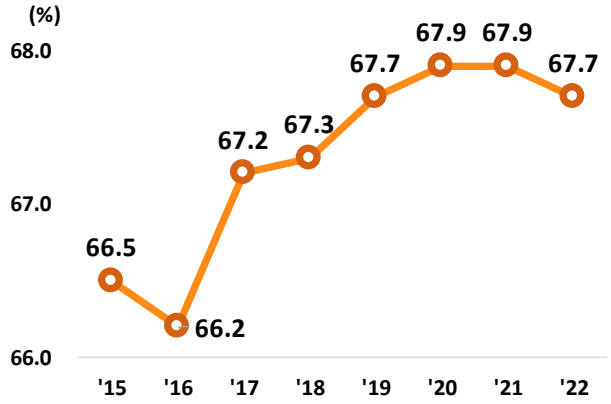
2022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67.7%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22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67.7%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전년 대비 0.2%p 감소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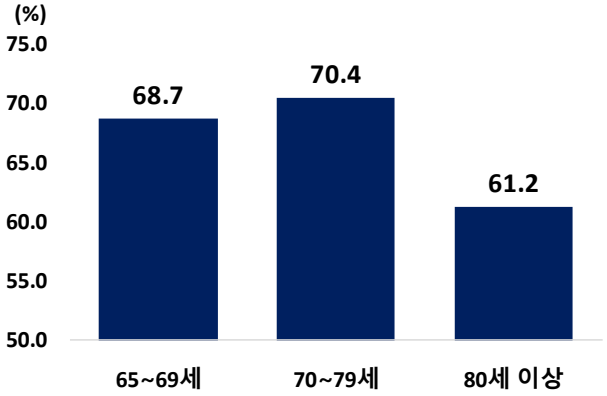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70.4%로 가장 높고, 65~69세(68.7%), 80세 이상(61.2%) 순임

- ‘18년까지 65~69세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70대, 8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높았으나, ‘20년부터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았음

<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주택 소유율 >



<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2022) >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가구의 주택 소유율[1)2)] >

(단위: %)

	65세 이상	가구주 연령대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6.5	71.1	67.8	54.4
2016	66.2	70.3	67.8	54.9
2017	67.2	70.5	69.1	57.2
2018	67.3	70.2	69.4	58.1
2019	67.7	70.0	70.0	59.3
2020	67.9	69.6	70.3	60.3
2021	67.9	69.2	70.4	60.7
2022	67.7	68.7	70.4	61.2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표 (62쪽) 참조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6. 기대여명

2022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0.7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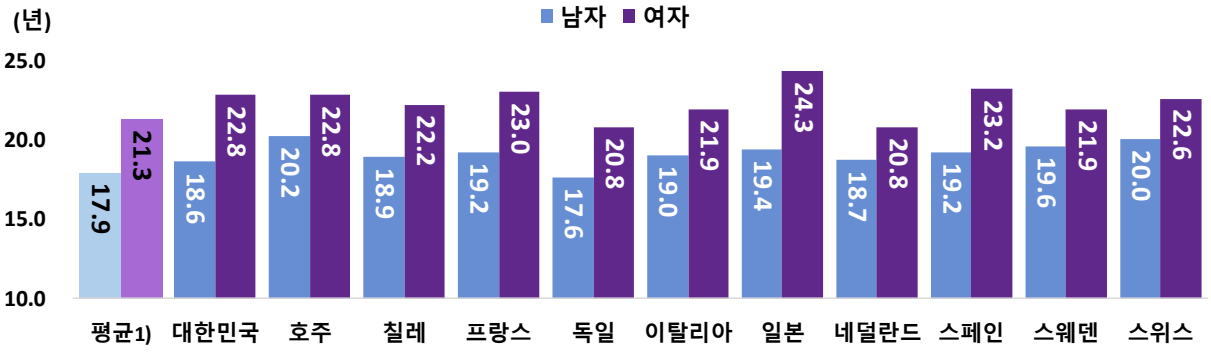
□ ’22년 65세의 기대여명은 20.7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2.6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년씩 줄어듦

○ 65세 여자(22.8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8.6년)보다 4.1년 더 길고, 75세 여자(14.0년)의 기대여명은 남자(11.0년)보다 2.9년 더 길었음

□ ’22년 우리나라 65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5년 높으며, 남자는 0.7년 더 높음

<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여명(65세, 2022) >



자료: OECD,「Health Status」(2024.9.2. 기준)
주: 1) OECD 38개국 중 2022년 기준의 자료가 공표된 30개국의 산술평균임

< 연령별 기대여명[1)2)] >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A)
2000	16.4	14.3	18.2	3.9	9.8	8.5	10.7	2.2
2005	17.7	15.5	19.6	4.0	10.6	9.2	11.6	2.4
2010	19.1	16.8	21.2	4.4	11.6	10.0	12.9	2.9
2015	20.3	18.2	22.4	4.2	12.4	10.8	13.7	2.9
2020	21.5	19.2	23.6	4.3	13.3	11.6	14.7	3.1
2021	21.6	19.3	23.7	4.4	13.4	11.7	14.9	3.2
2022	20.7	18.6	22.8	4.1	12.6	11.0	14.0	2.9

자료: 통계청,「생명표」
☞ 통계표 (63쪽) 참조
주: 1) 특정 연령(x세)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2)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7. 본인부담 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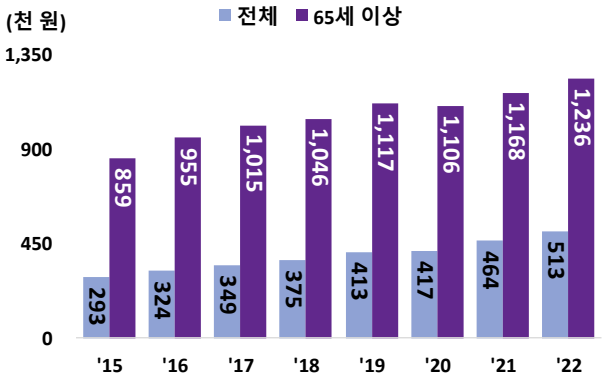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522만 9천 원,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123만 6천 원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1인당 522만 9천 원,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만 6천 원, 6만 8천 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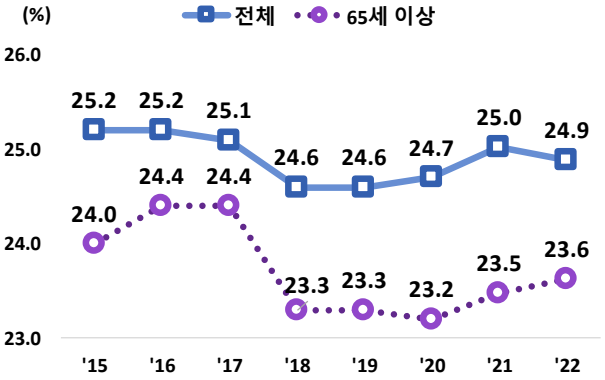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본인부담금 23.6%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함

- 1인당 본인부담금은 65~74세 10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2천 원 증가하였고, 75세 이상 15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만 9천 원 증가함

<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 >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

(단위: 천 원, %)

	전체			65세 이상			65~74세			75세 이상		
	1인당 진료비[1]	1인당 본인 부담금[2]	본인 부담금 비중[3]	1인당 진료비	1인당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중	1인당 진료비	1인당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중	1인당 진료비	1인당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중
2015	1,164	293	25.2	3,573	859	24.0	2,901	685	23.6	4,587	1,121	24.4
2016	1,284	324	25.2	3,921	955	24.4	3,205	784	24.5	4,941	1,200	24.3
2017	1,389	349	25.1	4,162	1,015	24.4	3,372	838	24.8	5,233	1,255	24.0
2018	1,526	375	24.6	4,487	1,046	23.3	3,614	849	23.5	5,659	1,310	23.2
2019	1,676	413	24.6	4,796	1,117	23.3	3,881	912	23.5	6,039	1,395	23.1
2020	1,689	417	24.7	4,759	1,106	23.2	3,851	904	23.5	6,049	1,393	23.0
2021	1,856	464	25.0	4,974	1,168	23.5	4,070	968	23.8	6,284	1,458	23.2
2022	2,059	513	24.9	5,229	1,236	23.6	4,271	1,029	24.1	6,624	1,536	23.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통계표 (64~65쪽) 참조

주: 1)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2)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 ÷ 진료비} × 100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 202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65세 이상: 8,751,362명, 65~74세: 5,187,935명, 75세 이상: 3,563,427명)

8. 건강검진 수검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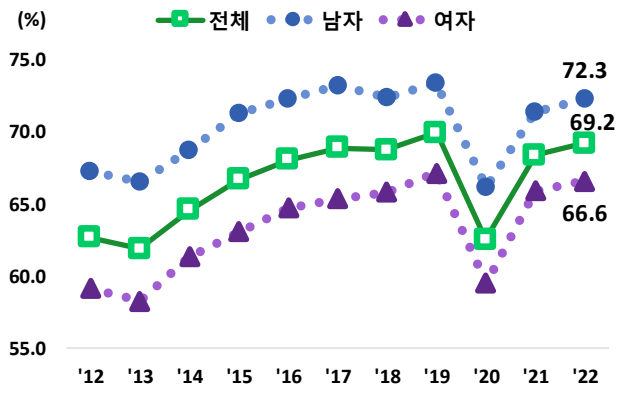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9.2%로 전년 대비 0.8%p 증가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9.2%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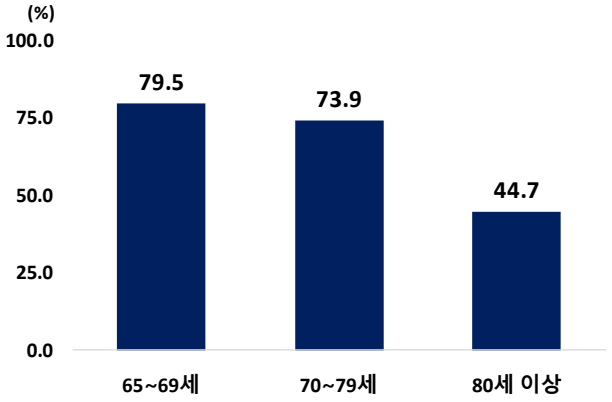
○ 연령대별 건강검진 수검률은 65~69세(79.5%)가 가장 높았고, 70~79세(73.9%), 80세 이상(44.7%)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았음

- 전년 대비 건강검진 수검률은 65~69세 0.1%p, 70~79세 1.0%p, 80세 이상 1.8%p 증가하였음

< 고령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



< 연령대별 건강검진 수검률(2022)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건강검진 수검률[1] >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2020	62.5	66.2	59.5	74.0	73.4	74.6	66.4	68.4	64.7	36.9	45.1	32.4
2021	68.4	71.4	65.9	79.4	78.2	80.5	73.0	74.0	72.0	42.9	51.3	38.0
2022	69.2	72.3	66.6	79.5	78.5	80.5	73.9	74.8	73.1	44.7	53.8	39.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통계표 (66쪽) 참조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일반검진 수검인원 ÷ 일반검진 대상인원) × 100

9. 운동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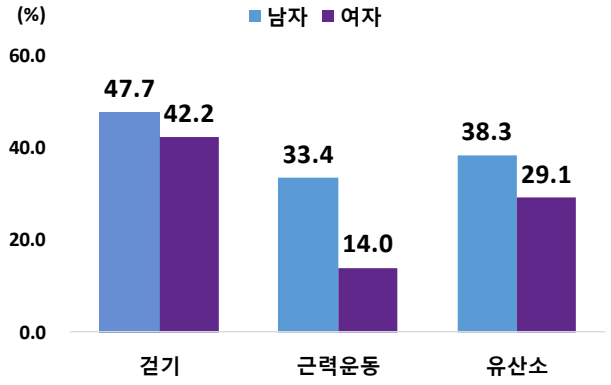
2022년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44.6%, 유산소 신체활동 33.1%, 근력운동 22.5% 순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44.6%), 유산소 신체활동(33.1%), 근력운동(22.5%) 순이고,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은 전년 대비 각각 4.4%p, 1.5%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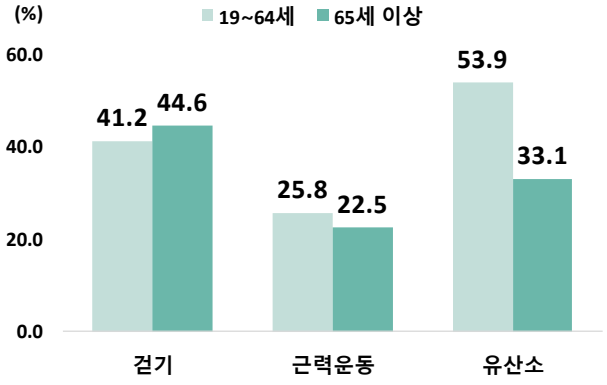
○ 성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남자의 운동 실천율이 여자보다 높았으며, 특히 근력운동(19.4%p)에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65세 이상 고령자는 19~64세보다 걷기 실천율이 3.4%p 높았으나,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실천율은 각각 20.8%p, 3.3%p 낮았음

< 고령자의 성별 운동 실천율(2022) >



< 연령대별 운동 실천율(2022)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운동 실천율 >

(단위: %)

	걷기 실천율[1]				근력운동 실천율[2]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3]			
	19~64세	65세이상	남자	여자	19~64세	65세이상	남자	여자	19~64세	65세이상	남자	여자
2015	41.5	35.8	41.1	32.0	23.1	17.7	30.7	8.3	54.2	33.7	41.7	27.9
2016	39.8	35.4	39.0	32.7	21.7	15.2	24.7	8.4	50.3	34.4	43.4	27.9
2017	39.2	35.7	42.2	30.8	22.1	17.5	28.8	9.0	49.8	29.4	32.6	26.9
2018	39.7	37.3	46.1	30.8	23.1	18.3	30.3	9.5	48.3	28.1	33.4	24.3
2019	43.4	39.9	44.3	36.5	24.3	18.3	30.5	8.7	48.2	33.0	36.6	30.1
2020	38.6	42.3	44.8	40.2	24.4	22.5	35.0	12.5	46.1	33.2	40.8	27.0
2021	39.1	44.4	46.7	42.5	25.7	21.0	30.0	13.8	48.6	28.7	30.4	27.3
2022	41.2	44.6	47.7	42.2	25.8	22.5	33.4	14.0	53.9	33.1	38.3	29.1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통계표 (67쪽) 참조

주: 1)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2)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3)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10.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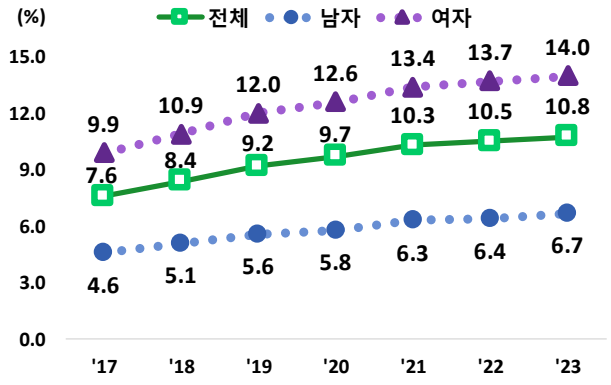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8%로 전년 대비 0.3%p 증가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10.8%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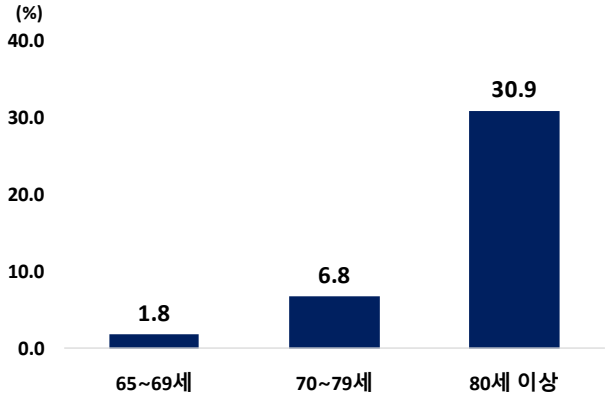
○ 성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여자(14.0%)가 남자(6.7%)의 2.1배 수준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65~69세 1.8%, 70~79세 6.8%, 80세 이상은 30.9%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

<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 연령대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2023)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1)2)3)] >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5	6.6	4.0	8.5	1.3	1.3	1.3	5.0	3.7	5.9	18.7	11.5	21.8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2021	10.3	6.3	13.4	1.7	1.8	1.6	7.1	5.3	8.6	28.5	17.9	34.0
2022	10.5	6.4	13.7	1.7	1.9	1.6	6.9	5.3	8.3	29.2	18.2	34.9
2023	10.8	6.7	14.0	1.8	1.9	1.6	6.8	5.4	8.0	30.9	19.7	36.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통계표 (68쪽) 참조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11. 노인 복지시설

2023년 노인 복지시설은 9만 3,056개소로 전년 대비 3.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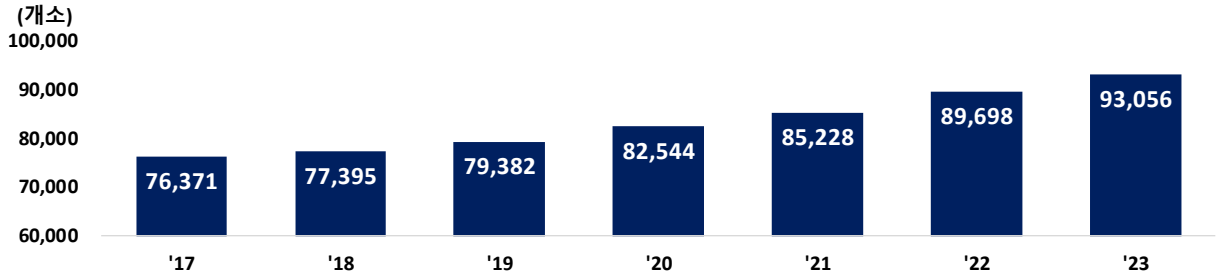
□ ’23년 노인 복지시설 수는 9만 3,056개소로 전년 대비 3.7% 증가함

○ 전체 노인 복지시설 수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3년 1만 5,896개소이며, 전년 대비 2,624개소(19.8%) 증가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3년 297개소이며, 전년 대비 11개소(-3.6%) 감소함

< 노인 복지시설 수 >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 복지시설 수 >

(단위: 개소)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76,371	77,395	79,382	82,544	85,228	89,698	93,056
노인주거 복지시설	소계	404	390	382	352	337	308	297
	양로시설	252	238	232	209	192	180	175
	노인공동생활가정	119	117	115	107	107	89	82
	노인복지주택	33	35	35	36	38	39	40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계	5,242	5,287	5,529	5,725	5,821	6,069	6,139
	노인요양시설	3,261	3,390	3,595	3,844	4,057	4,346	4,5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81	1,897	1,934	1,881	1,764	1,723	1,614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계	67,324	68,013	68,413	69,005	68,823	69,786	70,455
	노인복지관	364	385	391	398	357	366	438
	경로당	65,604	66,286	66,737	67,316	67,211	68,180	68,792
	노인교실	1,356	1,342	1,285	1,291	1,255	1,240	1,225
재가노인 복지시설[1]	소계	3,216	3,494	4,821	7,212	9,984	13,272	15,896
	방문요양서비스	1,001	1,051	1,513	2,656	4,156	5,808	7,192
	주야간보호서비스	1,174	1,312	1,816	2,321	2,618	3,035	3,397
	단기보호서비스	80	73	78	73	69	70	60
	방문목욕서비스	609	650	942	1,596	2,415	3,394	4,070
	방문간호서비스[2]	10	21	60	95	158	234	295
	복지용구지원서비스[3]	-	-	-	86	208	368	540
	재가노인지원서비스[4]	342	387	412	385	360	363	342
노인보호전문기관		32	33	34	35	37	37	38
노인일자리지원기관[5]		153	160	184	196	206	206	211
학대피해노인쉼터[6]		-	18	19	19	20	20	20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 통계표 (69쪽) 참조

주: 1)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2)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6.7.1.)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12.12.)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0.2.24.)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3.12.15.)
6)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2.7.)

Ⅲ. 소득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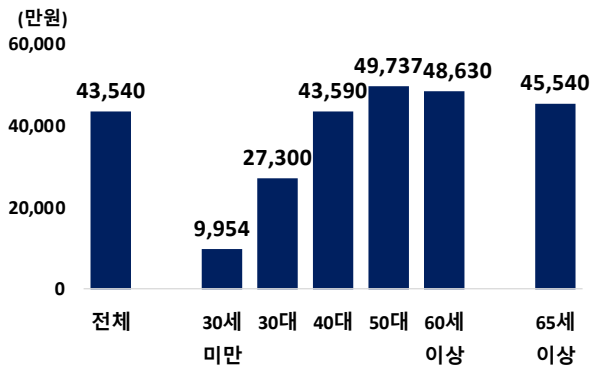
12. 자산 소유액 및 구성

2023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만 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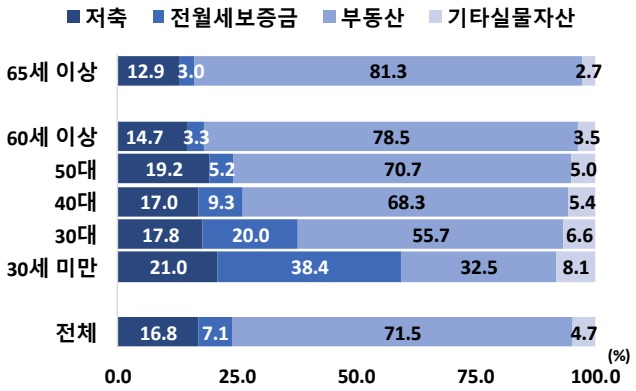
□ '23년 가구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 5,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6만 원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4억 3,540만 원)보다 2,000만 원 높은 수준임

○ 고령자 가구의 경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1.3%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2.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음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2023) >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구성비(2023)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고령자[1] 가구 자산 소유액 및 구성[2] >

(단위: 만 원)

	순자산[3]	자산	금융자산	저축액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2021	41,048	45,615	7,454	6,299	1,155	38,161	36,881	1,280	4,567	2,628	1,939
2022	45,364	50,289	7,488	6,243	1,245	42,801	41,453	1,348	4,925	2,685	2,240
2023	45,540	50,714	8,080	6,566	1,514	42,635	41,242	1,393	5,174	2,909	2,265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표 (70쪽) 참조

주: 1)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인 가구
2)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
3) 순자산 = 자산 -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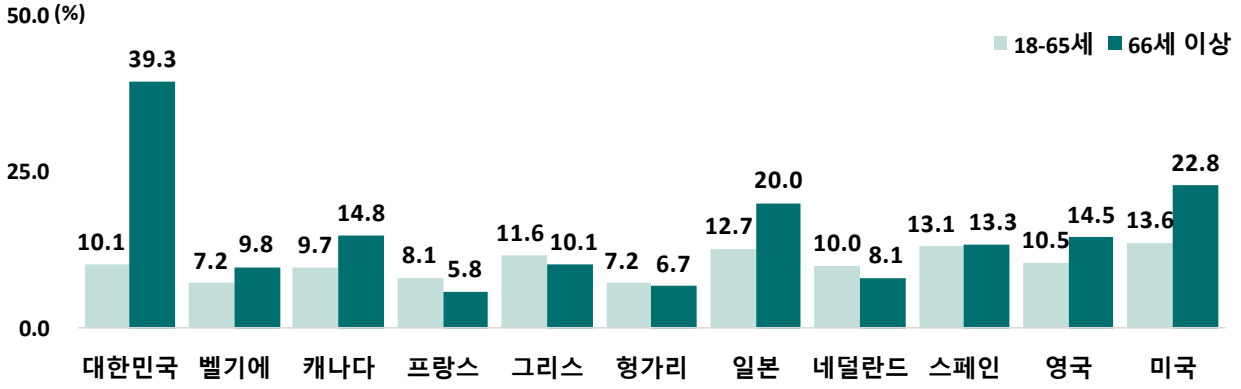
13. 은퇴연령층 빈곤율

2022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 대비 0.4%p 증가

□ '22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보다 0.4%p 증가하였고, 지니계수는 0.383, 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전년보다 증가함

○ '21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21) >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2024.9.2. 기준)
주: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자료임

< 은퇴연령층 주요 소득분배지표[1)2)] >

(단위: %, 배)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3)]		지니계수[4)]		소득 5분위 배율[5)]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2014	13.7	46.0	0.348	0.450	6.49	10.73
2015	12.9	44.3	0.337	0.427	6.09	9.27
2016	12.9	45.0	0.338	0.425	6.12	9.05
2017	12.6	44.0	0.337	0.419	6.09	8.82
2018	11.8	43.4	0.325	0.406	5.67	7.94
2019	11.1	43.2	0.317	0.389	5.40	7.21
2020	10.3	40.5	0.309	0.376	5.07	6.64
2021	10.1	39.3	0.310	0.378	5.15	6.92
2022	10.0	39.7	0.303	0.383	4.98	7.11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표 (71쪽) 참조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2) 2020년부터 공적 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여, 2019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함
3)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4)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5)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14.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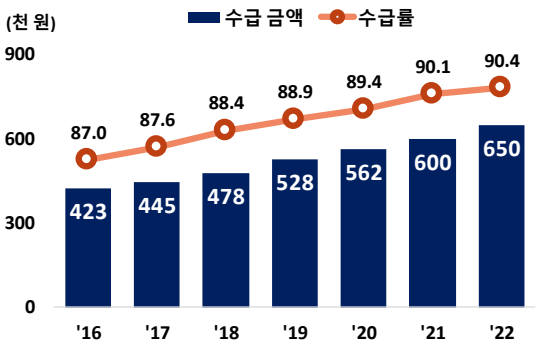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90.4%는 연금을 받고 있음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전체 고령자의 90.4%가 6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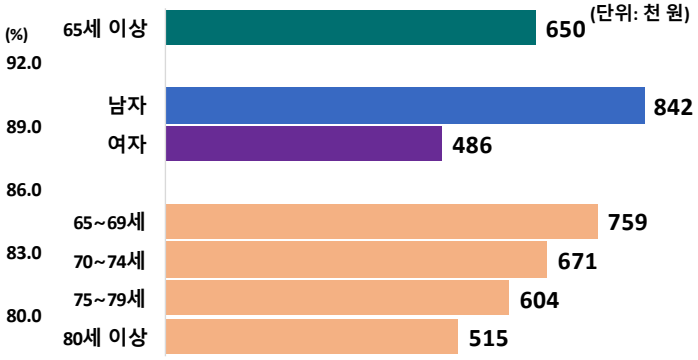
○ 남자(95.1%)의 연금 수급률은 여자(86.8%)보다 8.3%p 높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92.0%)의 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았고, 75~79세(91.9%), 70~74세(90.0%), 65~69세(88.9%) 순으로 나타남

< 연금 수급률 및 월평균 수급 금액(65세 이상) >



< 성 및 연령대별 연금 수급 금액(2022) >



자료: 통계청,「연금통계」

< 연금[1] 수급 현황(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천 원, %p)

	수급자 수	수급률	월평균 수급 금액	전년 대비 수급률 (%p)	전년 대비 월평균 수급 금액 증감액	미수급자 수	미수급률
2016	5,897	87.0	423	-	-	878	13.0
2017	6,236	87.6	445	0.6	22	879	12.4
2018	6,536	88.4	478	0.8	33	858	11.6
2019	6,885	88.9	528	0.5	50	861	11.1
2020	7,335	89.4	562	0.5	34	871	10.6
2021	7,768	90.1	600	0.7	38	852	9.9
2022	8,182	90.4	650	0.3	50	864	9.6
남자	3,768	95.1	842	0.2	61	195	4.9
여자	4,414	86.8	486	0.4	39	669	13.2
65~69세	2,744	88.9	759	0.6	51	342	11.1
70~74세	1,951	90.0	671	0.0	49	218	10.0
75~79세	1,461	91.9	604	0.1	59	128	8.1
80세 이상	2,026	92.0	515	0.5	43	176	8.0

자료: 통계청,「연금통계」

☞ 통계표 (72쪽) 참조

주: 1) 기초(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등 11종의 연금

15.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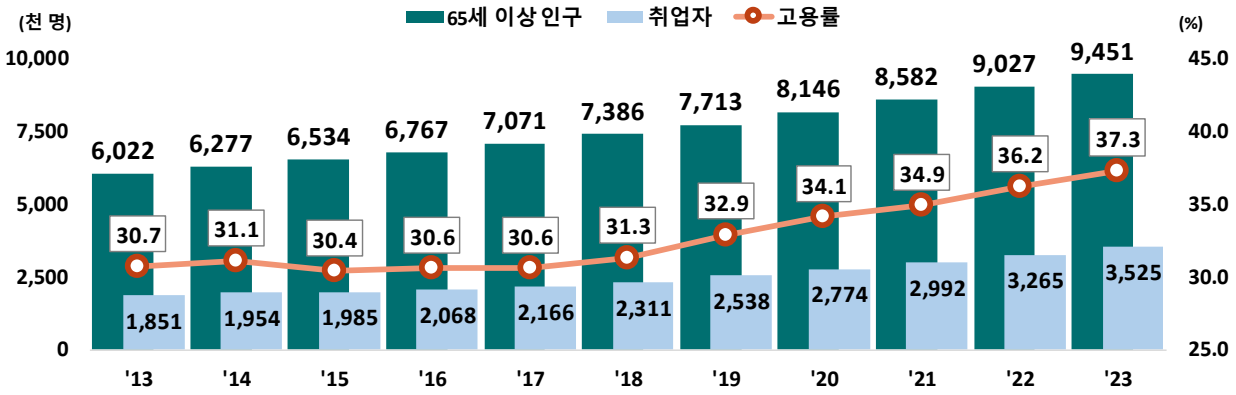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 실업률은 2.7%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로 전년(36.2%) 대비 1.1%p 상승함

○ 고령자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2.6%)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음

○ 고령자의 실업률은 '23년 2.7%로 '21년(3.8%) 이후 하락하고 있음

<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 현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현황 >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1]	실업률[2]
			취업자	실업자		
2013	6,022	1,879	1,851	28	30.7	1.5
2014	6,277	1,995	1,954	41	31.1	2.1
2015	6,534	2,034	1,985	48	30.4	2.4
2016	6,767	2,116	2,068	49	30.6	2.3
2017	7,071	2,228	2,166	62	30.6	2.8
2018	7,386	2,381	2,311	70	31.3	2.9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2021	8,582	3,112	2,992	119	34.9	3.8
2022	9,027	3,365	3,265	100	36.2	3.0
2023	**9,451**	**3,623**	**3,525**	**98**	**37.3**	**2.7**
전체[3](2023년)	45,407	29,203	28,416	787	62.6	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3쪽) 참조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3) 15세 이상 인구

□ **(산업별 취업자)** ’23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44.2%), 농림어업(23.6%), 도소매·음식숙박업(13.5%) 순임

○ 고령층은 전체 취업자에 비해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고령자(65세 이상)의 산업별[1]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6.9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6
2021	2,992	100.0	25.0	5.7	5.7	69.3	4.3	13.1	44.0	7.8
2022	3,265	100.0	24.7	5.9	5.9	69.4	4.9	12.9	43.7	7.9
2023	3,525	100.0	23.6	6.0	6.0	70.4	4.8	13.5	44.2	7.8
전체[2](2023년)	28,416	100.0	5.3	15.7	15.7	79.0	7.4	19.6	39.4	1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4쪽) 참조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

□ **(직업별 취업자)** ’23년 65세 이상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34.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3.3%), 서비스·판매 종사자(17.7%),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5.0%) 순임

○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사무종사자 및 관리자·전문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1]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2021	2,992	100.0	4.8	3.4	16.8	24.2	14.1	36.6
2022	3,265	100.0	5.1	3.3	16.7	24.2	15.2	35.6
2023	3,525	100.0	5.8	3.5	17.7	23.3	15.0	34.6
전체[2](2023년)	28,416	100.0	23.4	17.5	21.4	5.2	18.7	1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표 (75쪽) 참조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

16.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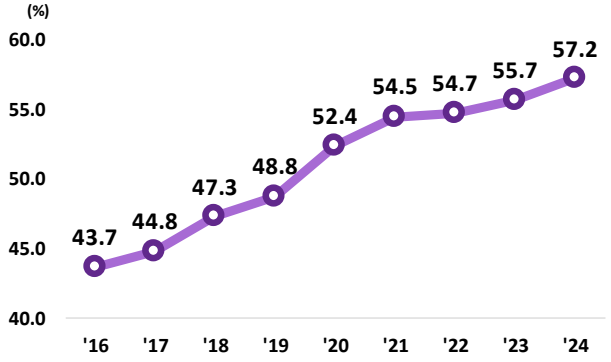
2024년 65~79세 고령자의 57.2%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고,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가장 많았음

□ '24년 6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57.2%로 전년 대비 1.5%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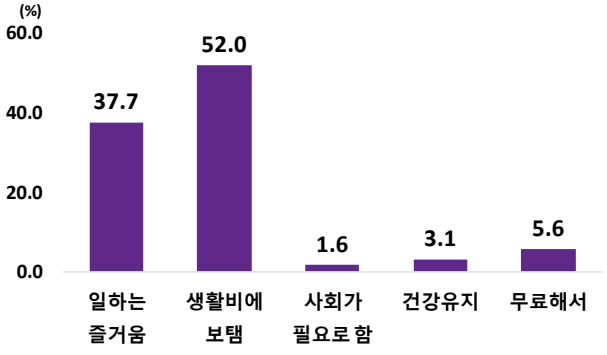
○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하는 즐거움 37.7%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65.9%)가 여자(49.7%)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고 근로 희망 사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 보탬, 일하는 즐거움 순임

< 장래 근로 원함(65~79세) >



< 취업을 원하는 이유(65~79세, 2024)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각년도 5월

<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65~79세) >

(단위: %)

	장래 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2016	43.7	100.0	36.5	55.2	1.4	2.4	4.4	0.1
2017	44.8	100.0	36.2	56.0	1.1	2.5	4.1	0.1
2018	47.3	100.0	34.8	57.2	1.1	2.4	4.5	0.0
2019	48.8	100.0	35.7	56.4	1.0	2.4	4.5	0.1
2020	52.4	100.0	37.2	54.4	1.5	2.4	4.4	0.0
2021	54.5	100.0	36.2	54.7	1.5	2.8	4.9	0.0
2022	54.7	100.0	37.3	53.3	1.2	3.0	5.2	0.0
2023	55.7	100.0	38.0	52.2	1.5	2.9	5.3	0.0
2024	**57.2**	**100.0**	**37.7**	**52.0**	**1.6**	**3.1**	**5.6**	**0.0**
남자	65.9	100.0	40.5	48.7	2.5	3.5	4.9	-
여자	49.7	100.0	34.5	55.8	0.7	2.6	6.5	0.0
65~69세	67.6	100.0	37.4	53.0	2.0	2.8	4.8	-
70~74세	54.0	100.0	36.8	52.8	1.6	3.1	5.8	0.0
75~79세	41.3	100.0	40.2	47.2	0.7	3.9	8.0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각년도 5월

☞ 통계표 (76쪽) 참조

17.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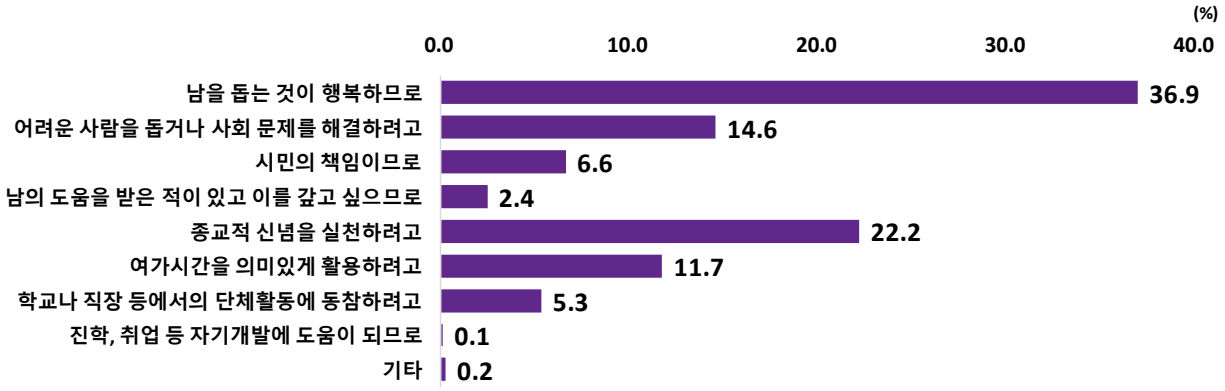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4%로 2021년 대비 2.2%p 증가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4%로 '21년 보다 2.2%p 증가함

○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체 참여율(10.6%)보다 3.2%p 낮음

○ 자원봉사 참여 이유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36.9%),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22.2%),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14.6%) 순임

< 자원봉사 참여 이유(2023)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 >

(단위: %)

	참여율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의 책임이므로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갚고 싶으므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하려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단체활동에 동참하려고	진학, 취업 등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기타
2021	5.2	38.1	16.7	13.2	4.7	15.2	10.1	1.9	0.1	-
2023	7.4	36.9	14.6	6.6	2.4	22.2	11.7	5.3	0.1	0.2
남자	8.0	33.5	14.3	10.3	3.7	18.1	12.6	7.2	0.2	0.2
여자	6.9	40.1	14.8	3.2	1.3	25.9	11.0	3.6	-	0.2
65~69세	10.6	38.1	12.3	7.4	3.4	26.6	8.6	3.6	0.2	-
70~79세	7.3	36.8	17.3	6.2	1.9	17.6	13.7	6.0	-	0.6
80세이상	2.8	30.6	14.6	4.1	-	18.3	20.3	12.1	-	-
전체[1](2023년)	10.6	25.8	12.7	7.4	1.9	11.3	8.0	25.9	6.6	0.3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통계표(77쪽) 참조

18. 단체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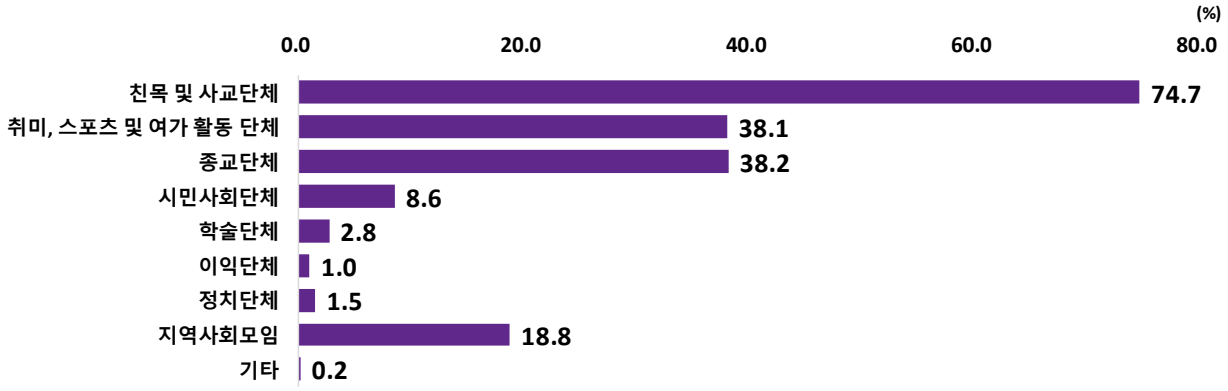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57.1%는 단체에 참여 경험이 있음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57.1%는 지난 1년간 단체 참여 경험이 있고, 전체 참여율(64.2%)보다 7.1%p 낮았음

○ 유형별 단체 참여 비중은 친목 및 사교단체(74.7%), 종교단체(38.2%), 취미, 스포츠 및 여가활동 단체(38.1%) 순임

○ 전체와 비교하면, 종교단체(38.2%), 지역사회 모임(18.8%)의 참여 비중이 높았음

< 단체 유형별 참여 비중(2023)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단체 참여율(복수 응답) >

(단위: %)

	참여율	친목 및 사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단체	종교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2019	58.7	72.7	29.6	43.0	8.4	2.3	1.4	0.9	20.4	0.0
2021	28.7	55.8	33.3	43.0	7.5	1.0	1.0	1.0	11.5	-
2023	57.1	74.7	38.1	38.2	8.6	2.8	1.0	1.5	18.8	0.2
남자	60.4	80.5	43.3	29.0	9.6	4.0	1.4	2.3	21.3	0.2
여자	54.5	69.8	33.6	46.2	7.6	1.7	0.7	0.8	16.7	0.2
65~69세	68.0	81.6	45.1	34.4	10.3	3.5	1.1	1.9	17.1	0.3
70~79세	59.5	75.1	36.6	38.9	8.3	2.4	1.1	1.5	19.9	0.1
80세이상	36.5	54.5	23.5	47.1	4.6	1.8	0.6	0.5	20.4	0.2
전체[1](2023년)	64.2	77.1	54.9	25.0	8.9	7.2	4.4	2.1	10.0	0.3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통계표(77쪽) 참조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9. 평생교육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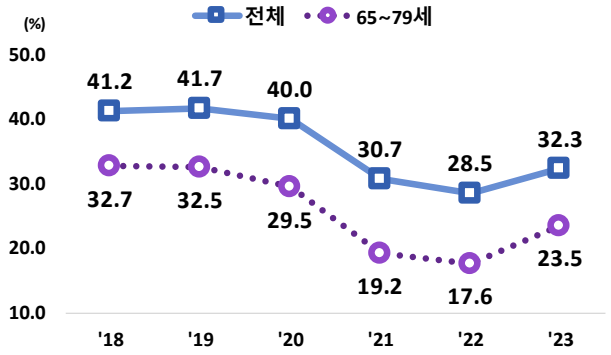
2023년 65~79세 고령자의 23.5%가 평생교육에 참여하였고, 전년 대비 5.9%p 증가

□ '23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65~79세 고령자는 23.5%로 전년 대비 5.9%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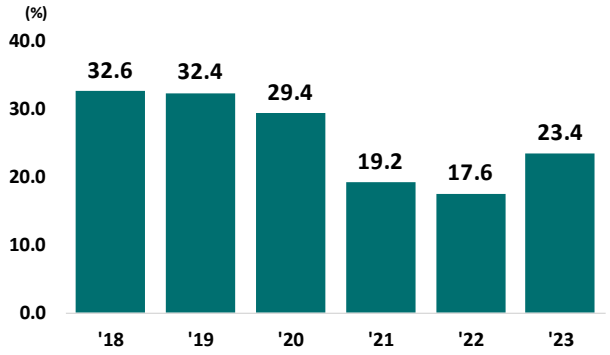
○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고령자의 비형식교육 참여 비중은 23.4%로 전년 대비 5.8%p 증가함

○ 직업관련 목적의 비형식 교육을 받은 고령자는 6.9%로 전년 대비 1.5%p 증가함

< 평생교육 참여율 >



< 고령층(65~79세)의 비형식교육 참여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평생교육 참여율[1] >

(단위: %)

	전체				65~79세			
	참여율[2]	형식교육[3]	비형식 교육[4]	직업관련 목적[5]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 교육	직업관련 목적
2018	41.2	2.3	40.4	18.8	32.7	0.1	32.6	5.5
2019	41.7	1.5	40.9	18.7	32.5	0.1	32.4	4.9
2020	40.0	1.4	39.3	20.1	29.5	0.1	29.4	6.0
2021	30.7	0.8	30.2	17.1	19.2	0.2	19.2	4.9
2022	28.5	0.6	28.0	13.6	17.6	X[6]	17.6	5.4
2023	32.3	0.6	31.9	15.0	23.5	0.1	23.4	6.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통계표 (78쪽) 참조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6) 사례수가 작아 공표하지 않음

20. 노인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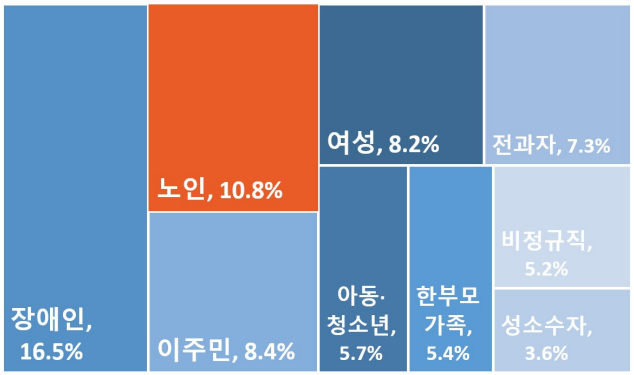
2023년 성인의 10.8%는 노인이 인권침해 ·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

□ '23년 19세 이상 성인 중 10.8%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장애인(16.5%)」 다음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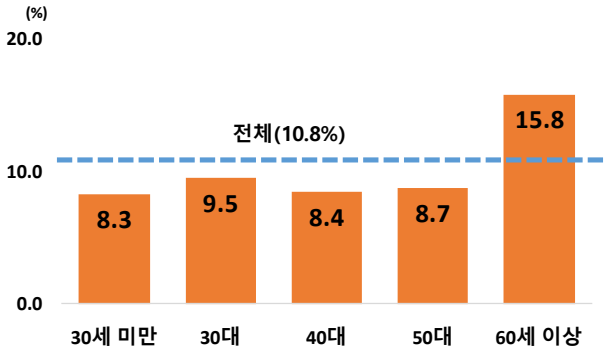
○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남자, 여자의 비중은 각각 10.2%, 11.4%로 비슷하였음

○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은 60세 이상(15.8%), 30대(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3) >



< 연령대별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3, 노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3)[1)2)] >

(단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전체	8.2	5.7	10.8	16.5	5.4	8.4	7.3	3.6	5.2
남자	6.7	5.7	10.2	16.6	5.3	8.2	7.5	4.0	5.9
여자	9.7	5.7	11.4	16.4	5.6	8.6	7.2	3.3	4.6
30세 미만	9.7	6.5	8.3	17.2	5.9	8.2	7.3	4.1	5.6
30대	8.2	6.8	9.5	17.5	5.3	8.1	5.2	4.5	6.4
40대	8.3	6.0	8.4	17.6	5.7	7.9	7.4	3.8	4.9
50대	9.2	5.6	8.7	16.7	5.5	9.2	7.1	3.9	5.9
60세 이상	6.6	4.6	15.8	14.7	5.0	8.3	8.5	2.6	4.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 통계표 (78쪽) 참조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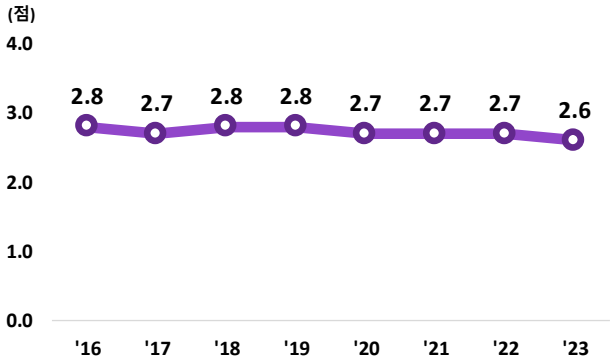
21. 세대 갈등

2023년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6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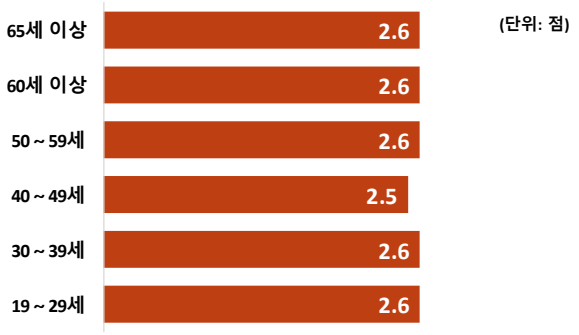
□ '23년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6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함

○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정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 세대 갈등 인식 >



< 연령대별 세대 갈등 인식(2023)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 세대 갈등[1] 인식[2] >

(단위: 점, %)

	평균[3]	전혀 심하지 않다(1점)	별로 심하지 않다(2점)	약간 심하다(3점)	매우 심하다(4점)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2021	2.7	3.2	36.3	48.7	11.8
2022	2.7	2.7	37.7	49.3	10.3
2023	2.6	5.4	39.4	46.6	8.6
19~29세	2.6	3.9	40.5	46.1	9.5
30~39세	2.6	5.2	39.1	46.6	9.2
40~49세	2.5	7.4	39.9	44.6	8.1
50~59세	2.6	5.0	39.3	46.5	9.3
60세 이상	2.6	5.3	38.8	48.2	7.7
65세 이상	2.6	5.4	37.6	49.0	8.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 통계표 (79쪽) 참조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중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

22.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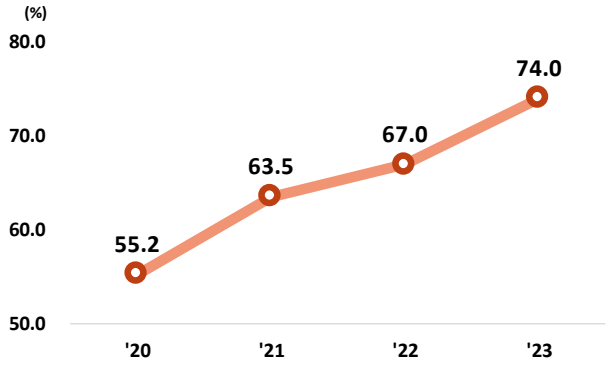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0%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0%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전체 연령대 이용률(94.0%)보다 20.0%p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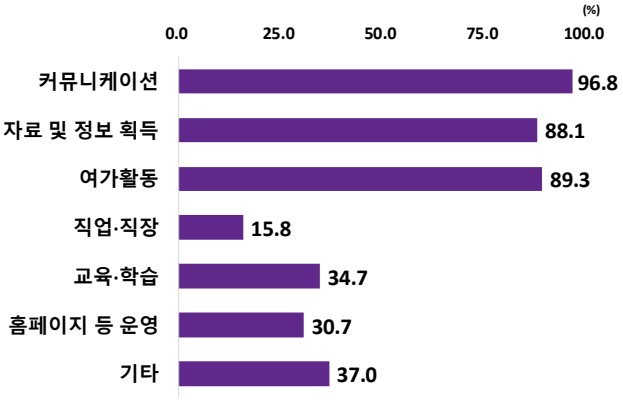
○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96.8%)이 가장 많았고, 여가활동(89.3%), 자료 및 정보 획득 (88.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터넷 이용률은 낮아짐

< 인터넷 이용률 >



< 이용 목적(2023)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인터넷 이용률[1] 및 이용 목적(항목별 응답) >

(단위: %)

	이용률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활동	직업·직장	교육·학습	홈페이지 등 운영	기타
2020	55.2	95.3	91.5	81.1	3.5	9.7	26.3	31.4
2021	63.5	96.1	99.7	84.5	2.5	10.8	25.2	72.9
2022	67.0	98.1	99.8	94.3	3.5	10.7	25.7	75.3
2023	74.0	96.8	88.1	89.3	15.8	34.7	30.7	37.0
남자	77.9	97.5	92.3	90.6	18.9	35.4	33.7	43.4
여자	70.9	96.1	84.4	88.2	13.2	34.1	28.1	31.3
65~69세	91.9	99.3	93.4	94.1	19.8	36.9	38.9	53.2
70~74세	78.7	96.9	87.3	88.8	14.4	34.8	27.4	31.5
75~79세	62.4	92.4	81.8	85.4	10.2	30.5	21.6	15.9
80세이상	34.2	90.4	72.3	69.5	10.8	29.7	16.4	9.7
전체[2](2023년)	94.0	97.2	96.1	96.9	24.6	57.9	60.8	77.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1)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 기준
2) 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함

☞ 통계표(80쪽) 참조

23.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및 이용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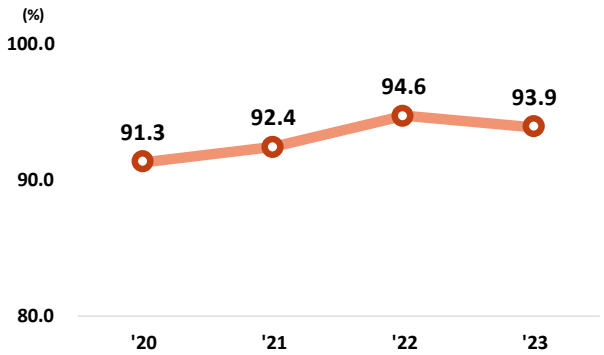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 93.9%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음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93.9%는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고, 전체 연령대 참여율(97.7%)보다 3.9%p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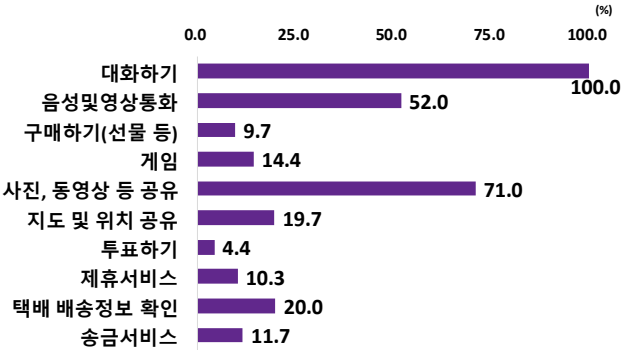
○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으로는 대화하기 100.0%로 가장 많았고, 사진, 동영상 등 공유 71.0%, 음성 및 영상통화 52.0% 순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낮아짐

<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



< 인스턴트 메신저로 이용하는 것(2023)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인스턴트 메신저[1] 이용률[2] 및 이용(복수 응답) >

(단위: %)

	이용률	대화하기	음성 및 영상통화	구매하기 (선물 등)	게임	사진, 동영상 등 공유	지도 및 위치 공유	투표하기	제휴 서비스	택배 배송정보 확인	송금 서비스
2020	91.3	100.0	47.3	8.0	12.5	67.6	18.9	5.9	13.0	19.7	6.5
2021	92.4	100.0	49.4	3.4	12.2	71.1	13.7	1.8	4.8	14.5	6.1
2022	94.6	100.0	51.8	6.2	10.4	71.6	14.2	2.1	7.7	19.2	7.0
2023	93.9	100.0	52.0	9.7	14.4	71.0	19.7	4.4	10.3	20.0	11.7
남자	95.1	100.0	51.7	10.4	15.3	72.4	24.1	5.4	10.2	21.0	14.1
여자	92.8	100.0	52.4	9.1	13.6	69.8	15.8	3.5	10.4	19.1	9.6
65~69세	98.3	100.0	53.5	12.9	16.9	76.0	25.1	5.8	11.6	23.8	16.7
70~74세	93.8	100.0	52.4	8.2	13.6	69.6	18.4	3.7	9.3	18.4	8.7
75~79세	87.1	100.0	49.7	6.2	11.5	63.4	12.1	2.2	9.6	15.1	5.8
80세이상	81.9	100.0	43.7	3.3	7.2	60.6	5.2	3.2	8.1	11.9	4.8
전체[3](2023년)	97.7	100.0	61.2	38.6	30.6	82.7	39.4	16.5	23.5	38.6	34.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통계표(80쪽) 참조

주: 1)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네이트온, 텔레그램, DM 등)
2) 최근 1년이내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기준
3)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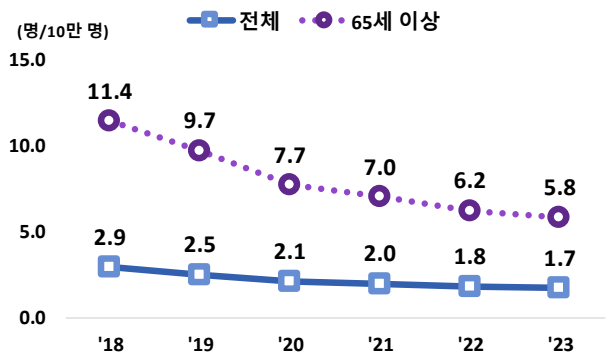
24. 보행 안전성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5.8명, 부상률은 11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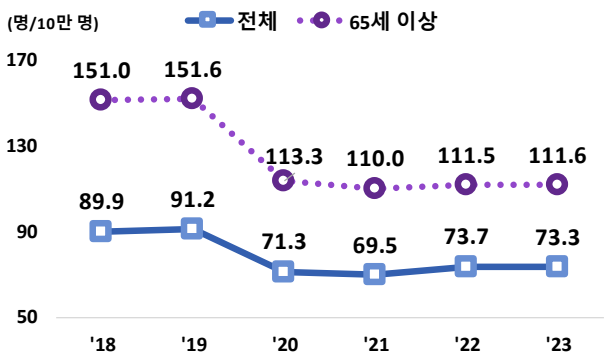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5.8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하였고, 부상률은 111.6명으로 0.1명 증가함

○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률의 3.4배, 부상률은 1.5배 수준으로 나타났음

<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보행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사망자 수	사망률[1]	부상자 수	부상률[2]
전체	2018	1,487	2.9	46,400	89.9
	2019	1,302	2.5	47,200	91.2
	2020	1,093	2.1	36,939	71.3
	2021	1,018	2.0	36,001	69.5
	2022	933	1.8	38,088	73.7
	2023	886	1.7	37,899	73.3
65세 이상	2018	842	11.4	11,124	151.0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3
	2021	601	7.0	9,423	110.0
	2022	558	6.2	10,016	111.5
	2023	550	5.8	10,529	111.6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통계표 (81쪽) 참조

주: 1)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000

2)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연령별 추계인구) × 100,000

25. 운전자 사고 비중

2023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20.0%이며, 전년보다 2.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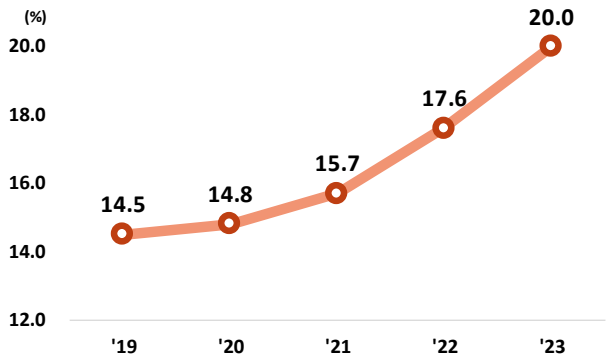
□ '23년 전체 운전자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20.0%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고건수와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65~69세의 사고 비중이 9.6%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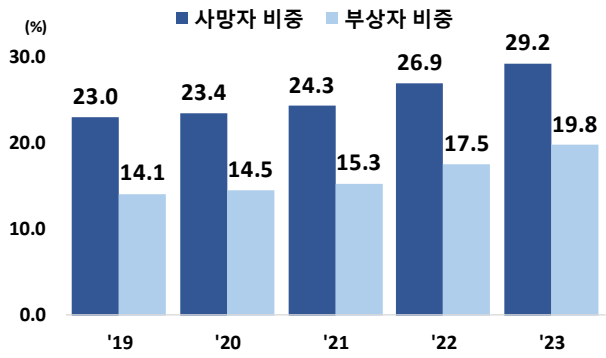
□ '23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9.2%이며, 부상자 비중은 19.8%로 전년 대비 각각 2.3%p 증가함

○ 고령 운전자 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1.9%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으나, 전체연령 치사율보다 0.6%p 높음

<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 >



<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상자 비중 >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1] >

(단위: 건, 명, %)

	전체				65세 이상						
	사고 건수	사망자	치사율[2]	부상자	사고 건수	비중[3]	사망자	비중[4]	치사율[2]	부상자	비중[5]
2019	229,600	3,349	1.5	341,712	33,239	14.5	769	23.0	2.3	48,223	14.1
2020	209,654	3,081	1.5	306,194	31,072	14.8	720	23.4	2.3	44,269	14.5
2021	203,130	2,916	1.4	291,608	31,841	15.7	709	24.3	2.2	44,713	15.3
2022	196,836	2,735	1.4	281,803	34,652	17.6	735	26.9	2.1	49,281	17.5
2023	198,296	2,551	1.3	283,799	39,614	20.0	745	29.2	1.9	56,067	19.8
65~69세	-	-	-	-	19,104	9.6	305	12.0	1.6	27,289	9.6
70~74세	-	-	-	-	11,213	5.7	188	7.4	1.7	15,980	5.6
75~79세	-	-	-	-	5,989	3.0	132	5.2	2.2	8,303	2.9
80~84세	-	-	-	-	2,634	1.3	89	3.5	3.4	3,619	1.3
85세 이상	-	-	-	-	674	0.3	31	1.2	4.6	876	0.3

자료: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통계표(82쪽) 참조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2) 치사율 = (해당 연령 운전자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해당 연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 × 100
3) 사고 건수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건수 ÷ 전체 운전자 사고 건수) × 100
4) 사망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100
5) 부상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100

26.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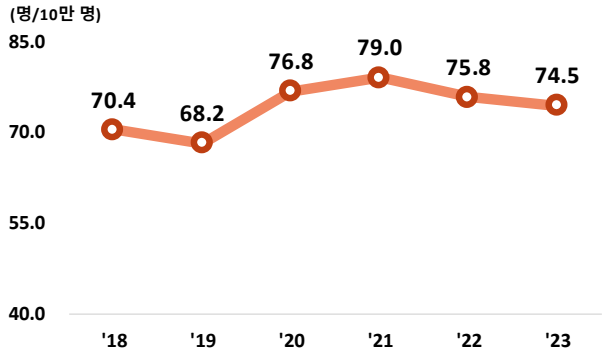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74.5명은 학대 피해를 경험함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 명당 74.5명으로 전년 대비 1.3명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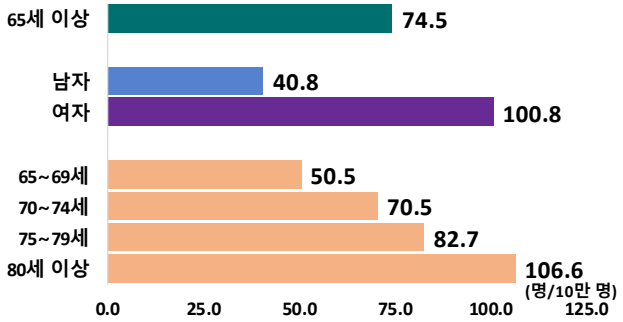
○ 여자(100.8명)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남자(40.8명)보다 높았음

○ 학대 피해 경험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80세 이상의 학대 피해 경험률은 106.6명임

<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2023) >



자료: 보건복지부,「노인학대현황」

< 고령자(65세 이상) 학대 피해[1)2)] 경험률 >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학대 피해 경험률[3)]	성별[4)]		연령대별[5)]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18	70.4	43.0	90.9	34.8	66.4	79.2	117.8
2019	68.2	38.5	90.6	37.5	63.0	72.8	112.1
2020	76.8	44.0	101.7	46.6	69.6	83.2	121.4
2021	79.0	43.8	106.1	49.3	72.0	88.9	121.3
2022	75.8	39.8	103.7	47.9	66.5	85.9	117.3
2023	74.5	40.8	100.8	50.5	70.5	82.7	106.6

자료: 보건복지부,「노인학대현황」,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통계표 (82쪽) 참조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4) 성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성별 추계인구) × 100,000
5) 연령대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연령대별 추계 인구) × 100,000

27. 주거 만족도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는 모두 2.93점

□ '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3점으로 전년과 같았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3점으로 전년 대비 0.01점 상승함

○ 전체 가구에 비해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 0.07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0.04점 낮았음

○ 대기오염, 지역유대 항목에서 고령자 가구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체 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

(단위: 점)

	전체 가구					고령자 가구[3]				
	2018	2019	2020	2021	2022	2018	2019	2020	2021	2022
주택 만족도[1]	2.98	3.00	3.00	3.00	3.00	2.89	2.92	2.92	2.93	2.93
주거환경 만족도[2]	2.94	2.94	2.97	2.96	2.96	2.89	2.87	2.93	2.92	2.93
편의시설	2.94	2.91	2.93	2.96	2.91	2.78	2.75	2.78	2.82	2.78
의료·복지시설	2.91	2.89	2.91	2.93	2.89	2.74	2.72	2.75	2.79	2.74
공공시설	2.92	2.94	2.95	2.96	2.92	2.78	2.79	2.82	2.83	2.79
문화시설	2.74	2.71	2.65	2.65	2.68	2.59	2.55	2.51	2.53	2.55
공원·녹지	2.92	2.98	3.01	3.00	3.00	2.81	2.89	2.94	2.93	2.94
대중교통	2.93	2.97	2.99	2.99	2.96	2.81	2.85	2.89	2.89	2.86
주차시설	2.77	2.84	2.85	2.82	2.80	2.76	2.82	2.83	2.79	2.78
보행안전	2.99	3.03	3.05	3.03	3.03	2.95	2.98	3.02	3.01	2.99
교육환경	2.93	2.95	2.95	2.95	2.96	2.82	2.83	2.85	2.87	2.87
치안문제	3.00	3.05	3.07	3.07	3.06	2.95	2.99	3.02	3.03	3.02
소음문제	2.87	2.91	2.91	2.93	2.91	2.86	2.92	2.94	2.94	2.92
주변청결	3.01	3.07	3.08	3.09	3.07	2.98	3.04	3.05	3.07	3.04
대기오염	2.96	3.00	3.05	3.05	3.05	2.98	3.03	3.08	3.08	3.07
지역유대	3.06	3.07	3.06	3.05	3.06	3.09	3.13	3.14	3.11	3.09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통계표 (83쪽) 참조

주: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3)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Ⅵ. 주관적 웰빙

28. 삶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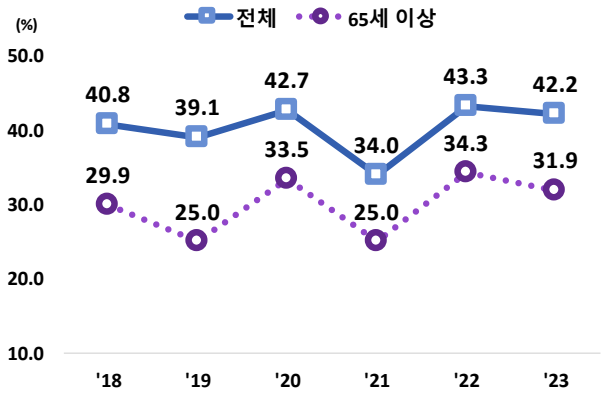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31.9%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음

□ ’23년 65세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1.9%로 전년 대비 2.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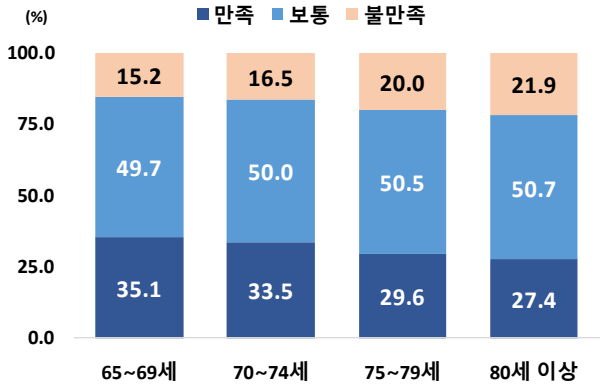
○ 고령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보다 낮은 수준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삶에 대한 만족도[1] >



< 연령대별 삶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 삶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단위: %)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8	29.9	6.1	23.8	47.7	22.4	18.5	3.9
2019	25.0	6.2	18.8	50.3	24.7	19.5	5.3
2020	33.5	8.6	25.0	50.9	15.6	12.7	2.9
2021	25.0	6.5	18.6	49.7	25.3	20.4	4.9
2022	34.3	7.7	26.5	48.5	17.2	14.1	3.1
2023	31.9	7.6	24.3	50.1	17.9	14.5	3.4
65~69세	35.1	8.7	26.5	49.7	15.2	11.5	3.7
70~74세	33.5	8.2	25.2	50.0	16.5	13.9	2.6
75~79세	29.6	6.8	22.8	50.5	20.0	16.6	3.4
80세 이상	27.4	6.0	21.3	50.7	21.9	18.0	3.9
전체(2023년)[1]	42.2	11.9	30.3	43.3	14.5	11.5	3.0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통계표(84쪽) 참조

29. 성취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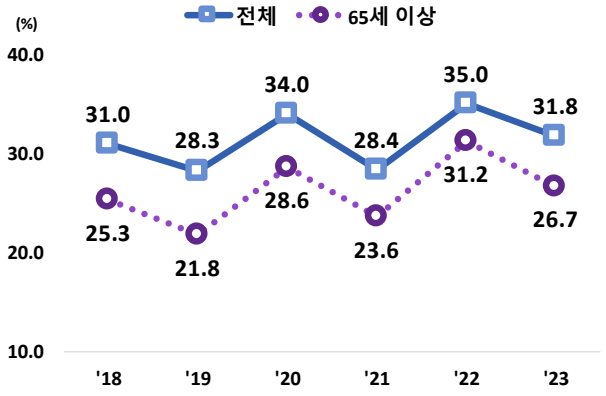
202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26.7%는 자신의 사회 · 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

□ '23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26.7%로 전년보다 4.6%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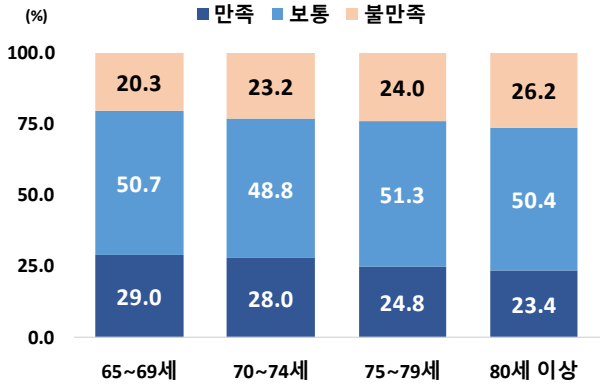
○ 고령자의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보다 낮은 수준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성취에 대한 만족도[1] >



< 연령대별 성취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로 응답한 사람의 비중임

< 성취에 대한 만족도(65세 이상) >

(단위: %)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8	25.3	4.6	20.8	49.6	25.0	20.7	4.3
2019	21.8	4.1	17.7	51.3	26.9	20.8	6.1
2020	28.6	5.7	23.0	48.1	23.3	18.7	4.6
2021	23.6	5.3	18.3	51.4	25.0	19.6	5.5
2022	31.2	5.4	25.8	49.8	19.0	15.5	3.5
2023	26.7	5.1	21.6	50.3	23.0	18.3	4.7
65~69세	29.0	5.6	23.4	50.7	20.3	15.3	5.0
70~74세	28.0	5.7	22.3	48.8	23.2	18.9	4.3
75~79세	24.8	4.0	20.7	51.3	24.0	19.2	4.8
80세 이상	23.4	4.4	19.0	50.4	26.2	21.6	4.6
전체(2023년)[1]	31.8	6.6	25.2	46.6	21.6	16.4	5.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통계표(85쪽) 참조

통계표

Ⅰ.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1-1. 인구 추이 ····· 55

1-2. 성, 연령별 고령인구 ····· 56

2. 지역별 고령인구 ····· 58

3. 고령자 가구 ····· 60

4. 이혼 및 재혼 ····· 61

5. 주택 소유율 ····· 62

Ⅱ. 건강

6. 기대여명 ····· 63

7. 본인부담 의료비 ····· 64

8. 건강검진 수검률 ····· 66

9. 운동 실천율 ····· 67

10.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8

11. 노인 복지시설 ····· 69

Ⅲ. 소득보장

12. 자산 소유액 및 구성 ····· 70

13. 은퇴연령층 빈곤율 ····· 71

14.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 ····· 72

15. 고용률

15-1. 고용률 ····· 73

15-2. 산업별 취업자 분포 ····· 74

15-3. 직업별 취업자 분포 ····· 75

16.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 76

Ⅳ. 사회참여·관계

17.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 ····· 77
18. 단체 참여율 ····· 77
19. 평생교육 참여율 ····· 78
20. 노인차별 ····· 78
21. 세대 갈등 ····· 79

Ⅴ. 생활환경

22.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 목적 ····· 80
23.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 및 이용 기능 ····· 80
24. 보행 안전성 ····· 81
25. 운전자 사고 비중 ····· 82
26. 고령자 학대 피해 경험률 ····· 82
27. 주거 만족도 ····· 83

Ⅵ. 주관적 웰빙

28. 삶에 대한 만족도 ····· 84
29. 성취에 대한 만족도 ····· 85

□ 국제비교

1. OECD 주요 국가별 연령구조 ····· 86
2.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 87
3.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 ····· 88

1-1. 인구 추이

(단위: 명,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명, 유소년인구 100명당 명)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1]	노년부양비[2]	노령화지수[3]
2000	47,008,111	3,394,896	7.2	10.1	34.3
2005	48,184,561	4,320,787	9.0	12.5	46.8
2010	49,554,112	5,366,109	10.8	14.8	67.2
2015	51,014,947	6,541,168	12.8	17.5	93.0
2020	51,836,239	8,151,867	15.7	21.8	129.3
2021	51,769,539	8,569,865	16.6	23.1	139.4
2022	51,672,569	8,981,133	17.4	24.4	151.0
2023	51,712,619	9,435,816	18.2	25.8	165.4
2024	51,751,065	9,938,235	19.2	27.4	181.2
2025	51,684,564	10,513,907	20.3	29.3	199.9
2026	51,609,121	11,125,016	21.6	31.3	222.7
2027	51,534,551	11,597,067	22.5	33.0	244.0
2028	51,459,877	12,125,349	23.6	34.8	267.6
2029	51,384,052	12,521,322	24.4	36.3	288.2
2030	51,305,713	12,980,219	25.3	38.0	312.0
2031	51,223,269	13,417,660	26.2	39.7	336.0
2032	51,135,265	13,832,534	27.1	41.4	356.8
2033	51,040,632	14,259,858	27.9	43.2	375.1
2034	50,937,726	14,763,385	29.0	45.5	393.1
2035	50,824,868	15,208,221	29.9	47.7	406.7
2036	50,701,389	15,674,083	30.9	50.1	418.7
2037	50,567,057	16,091,402	31.8	52.4	427.6
2038	50,417,167	16,491,853	32.7	54.7	434.6
2039	50,247,657	16,862,009	33.6	57.1	439.8
2040	50,059,218	17,151,313	34.3	59.1	442.2
2045	48,835,031	18,235,107	37.3	68.4	462.1
2050	47,106,960	18,907,853	40.1	77.3	504.0
2055	44,867,534	18,705,468	41.7	82.1	555.6
2060	42,302,086	18,681,892	44.2	90.3	636.9
2065	39,685,210	18,481,573	46.6	99.1	721.0
2072	36,222,293	17,270,735	47.7	104.2	726.8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1-2. 성, 연령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명)

	65세 이상	성별				
		남자	고령인구 비중[1]	여자	고령인구 비중[1]	성비[2]
2000	3,395	1,300	5.5	2,095	9.0	62.0
2005	4,321	1,721	7.1	2,600	10.9	66.2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2015	6,541	2,749	10.7	3,793	14.9	72.5
2020	8,152	3,521	13.6	4,631	17.9	76.0
2021	8,570	3,723	14.4	4,847	18.7	76.8
2022	8,981	3,925	15.2	5,057	19.6	77.6
2023	9,436	4,146	16.0	5,290	20.5	78.4
2024	9,938	4,387	17.0	5,551	21.5	79.0
2025	10,514	4,661	18.0	5,853	22.6	79.6
2026	11,125	4,954	19.2	6,171	23.9	80.3
2027	11,597	5,184	20.1	6,413	24.9	80.8
2028	12,125	5,447	21.2	6,679	25.9	81.6
2029	12,521	5,640	22.0	6,881	26.8	82.0
2030	12,980	5,862	22.9	7,118	27.7	82.4
2031	13,418	6,077	23.8	7,340	28.6	82.8
2032	13,833	6,278	24.6	7,555	29.5	83.1
2033	14,260	6,479	25.4	7,781	30.4	83.3
2034	14,763	6,720	26.4	8,043	31.5	83.5
2035	15,208	6,935	27.3	8,273	32.5	83.8
2036	15,674	7,162	28.3	8,512	33.5	84.1
2037	16,091	7,367	29.2	8,724	34.4	84.4
2038	16,492	7,559	30.1	8,933	35.3	84.6
2039	16,862	7,736	30.9	9,126	36.2	84.8
2040	17,151	7,874	31.6	9,277	37.0	84.9
2045	18,235	8,390	34.5	9,845	40.1	85.2
2050	18,908	8,738	37.3	10,170	43.0	85.9
2055	18,705	8,708	39.0	9,997	44.4	87.1
2060	18,682	8,834	41.8	9,848	46.5	89.7
2065	18,482	8,858	44.6	9,624	48.6	92.0
2072	17,271	8,377	46.0	8,894	49.4	94.2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인구} × 100

(단위: 천 명, %, 여자 고령인구 100명 당 명)

	연령대별					
	65~69세	구성비[3]	70~74세	구성비[3]	75세 이상	구성비[3]
2000	1,381	2.9	922	2.0	1,091	2.3
2005	1,690	3.5	1,215	2.5	1,416	2.9
2010	1,878	3.8	1,540	3.1	1,948	3.9
2015	2,106	4.1	1,780	3.5	2,656	5.2
2020	2,662	5.1	1,990	3.8	3,499	6.8
2021	2,895	5.6	2,091	4.0	3,584	6.9
2022	3,064	5.9	2,165	4.2	3,753	7.3
2023	3,274	6.3	2,235	4.3	3,927	7.6
2024	3,509	6.8	2,323	4.5	4,106	7.9
2025	3,689	7.1	2,527	4.9	4,298	8.3
2026	3,937	7.6	2,753	5.3	4,435	8.6
2027	4,022	7.8	2,919	5.7	4,655	9.0
2028	4,134	8.0	3,124	6.1	4,868	9.5
2029	4,088	8.0	3,351	6.5	5,082	9.9
2030	4,037	7.9	3,528	6.9	5,415	10.6
2031	3,931	7.7	3,772	7.4	5,715	11.2
2032	3,937	7.7	3,857	7.5	6,039	11.8
2033	3,902	7.6	3,968	7.8	6,391	12.5
2034	4,071	8.0	3,927	7.7	6,765	13.3
2035	4,123	8.1	3,882	7.6	7,204	14.2
2036	4,217	8.3	3,784	7.5	7,673	15.1
2037	4,287	8.5	3,794	7.5	8,011	15.8
2038	4,329	8.6	3,765	7.5	8,399	16.7
2039	4,268	8.5	3,933	7.8	8,661	17.2
2040	4,185	8.4	3,987	8.0	8,979	17.9
2045	3,726	7.6	4,064	8.3	10,445	21.4
2050	3,743	7.9	3,632	7.7	11,533	24.5
2055	3,219	7.2	3,659	8.2	11,827	26.4
2060	3,583	8.5	3,155	7.5	11,943	28.2
2065	3,440	8.7	3,522	8.9	11,520	29.0
2072	2,534	7.0	3,173	8.8	11,564	31.9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대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인구} × 100

2. 지역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10	고령인구 비중	2015	고령인구 비중	2020	고령인구 비중	2024	고령인구 비중	2025	고령인구 비중
전국	5,366	10.8	6,541	12.8	8,152	15.7	9,938	19.2	10,514	20.3
서울	928	9.2	1,209	12.2	1,477	15.4	1,769	18.8	1,855	19.9
부산	391	11.3	495	14.3	628	18.7	756	23.2	792	24.5
대구	247	10.0	308	12.5	388	16.1	469	19.9	494	21.2
인천	230	8.5	303	10.5	398	13.5	517	17.0	555	18.2
광주	130	8.7	164	10.9	204	13.8	245	16.9	260	17.9
대전	128	8.5	162	10.5	206	13.8	253	17.2	268	18.3
울산	74	6.7	99	8.5	138	12.1	181	16.5	195	17.8
세종	-	-	20	10.8	32	9.2	43	11.0	46	11.6
경기	990	8.5	1,281	10.3	1,720	12.8	2,214	16.0	2,374	17.0
강원	223	15.0	253	16.7	304	20.0	369	24.3	390	25.7
충북	204	13.4	229	14.4	277	17.0	338	20.7	356	21.9
충남	309	14.9	330	15.7	390	17.9	461	20.7	486	21.8
전북	284	15.8	321	17.5	372	20.6	423	24.1	443	25.4
전남	349	19.7	370	20.6	410	22.9	460	26.2	478	27.4
경북	424	16.1	466	17.4	551	20.8	643	24.7	675	26.1
경남	386	12.0	450	13.5	556	16.6	677	20.8	716	22.2
제주	68	12.4	82	13.7	101	15.1	122	18.1	129	19.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30	고령인구 비중	2035	고령인구 비중	2040	고령인구 비중	2045	고령인구 비중	2052	고령인구 비중
전국	12,980	25.3	15,208	29.9	17,151	34.3	18,235	37.3	18,861	40.8
서울	2,198	24.2	2,493	28.0	2,751	31.6	2,878	34.1	2,950	37.2
부산	925	29.7	1,019	34.1	1,083	38.0	1,097	40.7	1,068	43.6
대구	600	26.7	688	31.9	753	36.5	775	39.5	762	42.5
인천	728	23.5	877	28.1	1,011	32.4	1,094	35.5	1,161	39.2
광주	317	22.6	374	27.4	423	32.1	449	35.4	458	38.8
대전	330	23.2	386	27.6	435	31.8	461	34.7	472	37.8
울산	257	24.4	311	30.8	347	36.1	363	39.9	361	43.7
세종	64	14.6	83	17.8	107	21.7	129	25.0	157	29.3
경기	3,114	21.8	3,812	26.3	4,451	30.7	4,856	33.8	5,176	37.5
강원	475	31.3	552	36.3	620	40.9	657	43.9	677	47.1
충북	443	27.1	525	32.0	596	36.5	639	39.7	667	43.2
충남	602	26.7	711	31.3	819	36.0	893	39.6	955	43.7
전북	518	30.6	587	35.6	648	40.5	676	43.8	680	46.9
전남	554	32.5	629	37.7	694	42.6	729	46.0	742	49.6
경북	808	32.0	926	37.5	1,021	42.5	1,065	45.9	1,071	49.4
경남	887	28.2	1,041	34.2	1,167	39.8	1,229	43.7	1,241	47.8
제주	160	23.6	193	28.4	224	33.2	245	36.8	263	40.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3. 고령자 가구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1]	비중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부부	구성비	부부+미혼 자녀	구성비	부(모)+미혼 자녀	구성비	1인 가구	구성비	기타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05	16,039	2,350	14.7	796	33.9	243	10.3	116	4.9	746	31.7	450	19.1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15	19,013	3,664	19.3	1,215	33.2	365	10.0	204	5.6	1,208	33.0	671	18.3
2020	20,731	4,640	22.4	1,610	34.7	443	9.6	259	5.6	1,618	34.9	710	15.3
2021	21,273	4,920	23.1	1,726	35.1	458	9.3	270	5.5	1,769	36.0	697	14.2
2022	21,664	5,225	24.1	1,830	35.0	479	9.2	286	5.5	1,923	36.8	707	13.5
2023	21,971	5,546	25.2	1,923	34.7	516	9.3	310	5.6	2,058	37.1	740	13.3
2024	22,180	5,867	26.5	2,043	34.8	542	9.2	328	5.6	2,197	37.4	757	12.9
2025	22,389	6,187	27.6	2,163	35.0	567	9.2	346	5.6	2,336	37.8	775	12.5
2026	22,598	6,507	28.8	2,282	35.1	593	9.1	363	5.6	2,476	38.0	793	12.2
2027	22,807	6,828	29.9	2,401	35.2	618	9.0	381	5.6	2,616	38.3	812	11.9
2028	23,000	7,154	31.1	2,521	35.2	640	8.9	398	5.6	2,760	38.6	834	11.7
2029	23,181	7,404	31.9	2,617	35.3	652	8.8	411	5.6	2,875	38.8	849	11.5
2030	23,349	7,694	33.0	2,728	35.5	667	8.7	427	5.5	3,004	39.0	868	11.3
2031	23,506	7,976	33.9	2,842	35.6	682	8.5	442	5.5	3,125	39.2	886	11.1
2032	23,652	8,247	34.9	2,940	35.7	696	8.4	457	5.5	3,248	39.4	906	11.0
2033	23,786	8,526	35.8	3,044	35.7	711	8.3	472	5.5	3,372	39.6	928	10.9
2034	23,909	8,854	37.0	3,162	35.7	735	8.3	491	5.5	3,512	39.7	953	10.8
2035	24,020	9,151	38.1	3,269	35.7	753	8.2	509	5.6	3,642	39.8	979	10.7
2036	24,120	9,463	39.2	3,385	35.8	774	8.2	528	5.6	3,771	39.9	1,005	10.6
2037	24,205	9,749	40.3	3,483	35.7	792	8.1	545	5.6	3,900	40.0	1,030	10.6
2038	24,274	10,025	41.3	3,578	35.7	808	8.1	562	5.6	4,022	40.1	1,055	10.5
2039	24,325	10,283	42.3	3,670	35.7	821	8.0	577	5.6	4,137	40.2	1,078	10.5
2040	24,358	10,491	43.1	3,736	35.6	828	7.9	589	5.6	4,236	40.4	1,102	10.5
2041	24,372	10,666	43.8	3,795	35.6	831	7.8	600	5.6	4,318	40.5	1,122	10.5
2042	24,366	10,821	44.4	3,844	35.5	833	7.7	609	5.6	4,395	40.6	1,140	10.5
2043	24,339	10,970	45.1	3,888	35.4	836	7.6	619	5.6	4,469	40.7	1,158	10.6
2044	24,291	11,114	45.8	3,933	35.4	839	7.6	628	5.7	4,539	40.8	1,175	10.6
2045	24,221	11,291	46.6	3,978	35.2	847	7.5	639	5.7	4,632	41.0	1,196	10.6
2046	24,132	11,461	47.5	4,019	35.1	855	7.5	650	5.7	4,719	41.2	1,218	10.6
2047	24,024	11,620	48.4	4,061	34.9	864	7.4	660	5.7	4,800	41.3	1,235	10.6
2048	23,899	11,731	49.1	4,083	34.8	868	7.4	667	5.7	4,864	41.5	1,249	10.6
2049	23,760	11,788	49.6	4,089	34.7	867	7.4	672	5.7	4,903	41.6	1,257	10.7
2050	23,610	11,801	50.0	4,078	34.6	859	7.3	673	5.7	4,930	41.8	1,261	10.7
2051	23,448	11,804	50.3	4,063	34.4	850	7.2	673	5.7	4,954	42.0	1,264	10.7
2052	23,277	11,788	50.6	4,050	34.4	841	7.1	672	5.7	4,961	42.1	1,265	10.7

자료: 통계청,「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4. 이혼 및 재혼

(단위: 건)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2000	119,455	1,321	1.1	423	0.4	43,370	971	48,132	202
2001	134,608	1,502	1.1	467	0.3	46,739	999	52,374	205
2002	144,910	1,768	1.2	537	0.4	47,013	1,042	52,412	242
2003	166,617	2,332	1.4	778	0.5	49,988	1,177	55,585	277
2004	138,932	2,340	1.7	816	0.6	56,530	1,394	63,452	332
2005	128,035	2,589	2.0	916	0.7	59,662	1,566	66,587	413
2006	124,524	3,061	2.5	1,120	0.9	55,563	1,746	59,661	502
2007	124,072	3,581	2.9	1,412	1.1	57,144	1,992	61,883	606
2008	116,535	4,409	3.8	1,738	1.5	57,217	1,855	62,758	548
2009	123,999	4,370	3.5	1,739	1.4	53,770	2,065	58,825	641
2010	116,858	4,346	3.7	1,734	1.5	53,043	2,099	57,451	702
2011	114,284	4,484	3.9	1,789	1.6	51,637	2,234	56,430	799
2012	114,316	4,836	4.2	1,955	1.7	51,114	2,449	56,488	912
2013	115,292	5,464	4.7	2,317	2.0	48,948	2,515	54,320	938
2014	115,510	5,914	5.1	2,721	2.4	47,516	2,467	53,927	902
2015	109,153	5,852	5.4	2,655	2.4	46,388	2,672	52,747	1,069
2016	107,328	6,101	5.7	2,910	2.7	43,286	2,568	48,899	1,109
2017	106,032	6,883	6.5	3,427	3.2	41,712	2,684	47,374	1,202
2018	108,684	8,032	7.4	4,148	3.8	41,115	2,759	46,747	1,347
2019	110,831	8,867	8.0	4,647	4.2	39,443	2,926	44,500	1,494
2020	106,500	9,854	9.3	5,285	5.0	33,261	2,966	38,064	1,621
2021	101,673	11,171	11.0	6,208	6.1	31,059	3,155	35,597	1,860
2022	93,232	10,220	11.0	5,937	6.4	31,204	3,290	35,000	2,018
2023	92,394	9,944	10.8	5,885	6.4	31,644	3,662	35,223	2,11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5. 주택 소유율[1)2)]

(단위: %)

	65세 이상	가구주 연령대별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6.5	71.1	67.8	54.4
2016	66.2	70.3	67.8	54.9
2017	67.2	70.5	69.1	57.2
2018	67.3	70.2	69.4	58.1
2019	67.7	70.0	70.0	59.3
2020	67.9	69.6	70.3	60.3
2021	67.9	69.2	70.4	60.7
2022	67.7	68.7	70.4	61.2

자료: 통계청,「주택소유통계」, 「인구주택총조사」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6. 기대여명[1)2)]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0	16.4	14.3	18.2	9.8	8.5	10.7
2001	16.6	14.5	18.4	9.9	8.6	10.8
2002	16.8	14.7	18.5	10.0	8.7	10.8
2003	17.1	15.1	18.9	10.3	9.0	11.2
2004	17.4	15.3	19.2	10.4	9.1	11.4
2005	17.7	15.5	19.6	10.6	9.2	11.6
2006	17.9	15.8	19.8	10.8	9.4	11.8
2007	18.2	16.0	20.2	11.0	9.5	12.1
2008	18.6	16.3	20.7	11.3	9.7	12.5
2009	19.0	16.7	21.1	11.6	10.0	12.9
2010	19.1	16.8	21.2	11.6	10.0	12.9
2011	19.4	17.1	21.5	11.8	10.1	13.0
2012	19.5	17.2	21.5	11.8	10.1	13.1
2013	19.9	17.6	21.9	12.1	10.5	13.4
2014	20.2	17.9	22.3	12.4	10.7	13.7
2015	20.3	18.2	22.4	12.4	10.8	13.7
2016	20.6	18.4	22.6	12.6	11.0	13.9
2017	20.8	18.6	22.7	12.7	11.1	14.0
2018	20.8	18.7	22.8	12.7	11.1	14.1
2019	21.3	19.1	23.4	13.2	11.5	14.6
2020	21.5	19.2	23.6	13.3	11.6	14.7
2021	21.6	19.3	23.7	13.4	11.7	14.9
2022	20.7	18.6	22.8	12.6	11.0	14.0

자료: 통계청,「생명표」

주: 1) 특정 연령(x세)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2)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7. 본인부담 의료비

(단위: 억 원, 천 원, %)

	65세 이상				
	진료비[1]	1인당 진료비[2]	본인부담금	1인당 본인부담금[3]	본인부담금 비중[4]
2005	60,731	1,549	15,155	387	25.0
2006	73,504	1,805	17,515	430	23.8
2007	91,190	2,079	21,653	494	23.7
2008	107,371	2,334	26,350	573	24.5
2009	124,236	2,574	30,286	627	24.4
2010	141,350	2,839	32,945	662	23.3
2011	153,893	2,968	35,805	691	23.3
2012	164,494	3,008	38,553	705	23.4
2013	180,852	3,151	42,578	742	23.5
2014	199,687	3,326	47,074	784	23.6
2015	222,361	3,573	53,426	859	24.0
2016	252,692	3,921	61,583	955	24.4
2017	283,247	4,162	69,074	1,015	24.4
2018	318,235	4,487	74,183	1,046	23.3
2019	357,925	4,796	83,351	1,117	23.3
2020	376,135	4,759	87,412	1,106	23.2
2021	413,829	4,974	97,156	1,168	23.5
2022	457,647	5,229	108,140	1,236	23.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 ÷ 진료비} × 100

* 202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65세 이상: 8,751,362명, 65~74세: 5,187,935명, 75세 이상: 3,563,427명)

(단위: 억 원, 천 원, %)

	65~74세					75세 이상				
	진료비	1인당 진료비	본인 부담금	1인당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중	진료비	1인당 진료비	본인 부담금	1인당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비중
2005	41,414	1,544	10,415	388	25.1	19,316	1,561	4,741	383	24.5
2006	49,297	1,766	11,778	422	23.9	24,207	1,888	5,737	447	23.7
2007	59,792	1,988	14,215	473	23.8	31,398	2,276	7,438	539	23.7
2008	67,400	2,160	16,404	526	24.3	39,971	2,702	9,946	672	24.9
2009	75,542	2,352	18,236	568	24.1	48,694	3,017	12,050	747	24.7
2010	82,420	2,548	18,954	586	23.0	58,930	3,378	13,991	802	23.7
2011	86,400	2,619	19,867	602	23.0	67,493	3,579	15,938	845	23.6
2012	89,234	2,593	20,664	601	23.2	75,260	3,713	17,890	883	23.8
2013	94,384	2,650	21,776	611	23.1	86,468	3,969	20,803	955	24.1
2014	99,726	2,728	22,894	626	23.0	99,961	4,257	24,180	1,030	24.2
2015	108,554	2,901	25,616	685	23.6	113,807	4,587	27,809	1,121	24.4
2016	121,391	3,205	29,706	784	24.5	131,301	4,941	31,876	1,200	24.3
2017	132,102	3,372	32,815	838	24.8	151,145	5,233	36,260	1,255	24.0
2018	146,905	3,614	34,517	849	23.5	171,330	5,659	39,667	1,310	23.2
2019	166,774	3,881	39,185	912	23.5	191,151	6,039	44,166	1,395	23.1
2020	178,640	3,851	41,945	904	23.5	197,495	6,049	45,468	1,393	23.0
2021	200,288	4,070	47,618	968	23.8	213,541	6,284	49,538	1,458	23.2
2022	221,590	4,271	53,393	1,029	24.1	236,057	6,624	54,748	1,536	23.2

8. 건강검진 수검률[1)]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58.0	63.4	53.9	73.3	74.2	72.4	60.5	64.0	57.8	30.7	39.0	26.8
2011	61.8	67.0	57.8	77.2	78.3	76.0	65.0	67.8	62.9	35.4	44.0	31.4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2020	62.5	66.2	59.5	74.0	73.4	74.6	66.4	68.4	64.7	36.9	45.1	32.4
2021	68.4	71.4	65.9	79.4	78.2	80.5	73.0	74.0	72.0	42.9	51.3	38.0
2022	69.2	72.3	66.6	79.5	78.5	80.5	73.9	74.8	73.1	44.7	53.8	39.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일반검진 수검인원 ÷ 일반검진 대상인원) × 100

9. 운동 실천율

(단위: %)

65세 이상	걷기 실천율[1)3)]			근력운동 실천율[1)4)]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2)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46.8	50.3	44.4	11.6	19.0	6.5	-	-	-
2008	49.9	60.2	42.8	9.9	19.7	3.3	-	-	-
2009	47.1	54.6	41.9	10.7	19.0	5.1	-	-	-
2010	39.8	44.2	36.6	11.9	20.6	5.8	-	-	-
2011	35.9	45.4	29.2	13.2	24.4	5.3	-	-	-
2012	33.5	41.4	28.0	15.0	25.5	7.7	-	-	-
2013	35.3	42.2	30.4	18.7	30.7	10.2	-	-	-
2014	41.3	47.6	36.7	16.8	28.5	8.3	41.1	50.9	33.6
2015	35.8	41.1	32.0	17.7	30.7	8.3	33.7	41.7	27.9
2016	35.4	39.0	32.7	15.2	24.7	8.4	34.4	43.4	27.9
2017	35.7	42.2	30.8	17.5	28.8	9.0	29.4	32.6	26.9
2018	37.3	46.1	30.8	18.3	30.3	9.5	28.1	33.4	24.3
2019	39.9	44.3	36.5	18.3	30.5	8.7	33.0	36.6	30.1
2020	42.3	44.8	40.2	22.5	35.0	12.5	33.2	40.8	27.0
2021	44.4	46.7	42.5	21.0	30.0	13.8	28.7	30.4	27.3
2022	44.6	47.7	42.2	22.5	33.4	14.0	33.1	38.3	29.1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2005년부터 조사, 2007년부터 조사주기 1년으로 변경
2) 2014년부터 조사
3)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4)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5)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10. 장기요양인정자 비중[1)2)3)]

(단위: %)

	65세 이상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3	5.7	3.5	7.3	1.3	1.4	1.3	4.4	3.3	5.2	16.7	10.4	19.4
2014	6.2	3.8	7.9	1.3	1.3	1.3	4.7	3.5	5.6	17.8	11.0	20.8
2015	6.6	4.0	8.5	1.3	1.3	1.3	5.0	3.7	5.9	18.7	11.5	21.8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2021	10.3	6.3	13.4	1.7	1.8	1.6	7.1	5.3	8.6	28.5	17.9	34.0
2022	10.5	6.4	13.7	1.7	1.9	1.6	6.9	5.3	8.3	29.2	18.2	34.9
2023	10.8	6.7	14.0	1.8	1.9	1.6	6.8	5.4	8.0	30.9	19.7	36.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11. 노인 복지시설

(단위: 개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70,643	71,873	72,860	73,774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85,228	89,698	93,056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414	416	435	443	427	425	404	390	382	352	337	308	297
	양로시설	303	285	285	272	265	265	252	238	232	209	192	180	175
	노인공동생활가정	87	108	125	142	131	128	119	117	115	107	107	89	82
	노인복지주택	24	23	25	29	31	32	33	35	35	36	38	39	40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4,079	4,352	4,585	4,841	5,063	5,163	5,242	5,287	5,529	5,725	5,821	6,069	6,139
	노인요양시설	2,489	2,610	2,497	2,707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4,057	4,346	4,52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590	1,742	2,088	2,134	2,130	2,027	1,981	1,897	1,934	1,881	1,764	1,723	1,614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계	63,375	64,077	64,983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68,823	69,786	70,455
	노인복지관	281	300	319	344	347	350	364	385	391	398	357	366	438
	경로당	61,537	62,442	63,251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67,211	68,180	68,792
	노인교실	1,557	1,335	1,413	1,361	1,377	1,393	1,356	1,342	1,285	1,291	1,255	1,240	1,225
재가 노인 복지 시설[2]	소계	2,750	3,003	2,832	2,797	3,089	3,168	3,216	3,494	4,821	7,212	9,984	13,272	15,896
	방문요양서비스	1,180	1,113	1,042	992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4,156	5,808	7,192
	주야간보호서비스	842	840	848	913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2,618	3,035	3,397
	단기보호서비스	95	94	110	96	112	95	80	73	78	73	69	70	60
	방문목욕서비스	633	633	603	588	617	588	609	650	942	1,596	2,415	3,394	4,070
	방문간호서비스[2]	–	–	–	–	–	–	10	21	60	95	158	234	295
	복지용구지원서비스[3]	–	–	–	–	–	–	–	–	–	86	208	368	540
	재가노인지원서비스[4]	–	323	229	208	332	390	342	387	412	385	360	363	342
노인보호전문기관		25	25	25	28	29	29	32	33	34	35	37	37	38
노인일자리지원기관[5]		–	–	–	–	129	136	153	160	184	196	206	206	211
학대피해노인쉼터[6]		–	–	–	–	–	–	–	18	19	19	20	20	20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현황」

주: 1)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2)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6.7.1.)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12.12.)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0.2.24.)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3.12.15.)
6)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2019.2.7.)

12. 자산 소유액 및 구성[1)]

(단위: 만 원)

65세 이상	순자산[2)]	자산	금융자산	저축액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실물자산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부채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2013	25,769	28,951	4,337	3,519	818	24,614	23,812	803	3,182	1,659	1,523
2014	26,365	29,720	4,422	3,664	758	25,298	24,175	1,123	3,355	1,705	1,650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2021	41,048	45,615	7,454	6,299	1,155	38,161	36,881	1,280	4,567	2,628	1,939
2022	45,364	50,289	7,488	6,243	1,245	42,801	41,453	1,348	4,925	2,685	2,240
2023	45,540	50,714	8,080	6,566	1,514	42,635	41,242	1,393	5,174	2,909	2,265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
2) 순자산 = 자산 - 부채

13. 은퇴연령층 빈곤율

(단위: %, 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1]		지니계수[2]		소득 5분위 배율[3]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4]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2011	57.8	47.8	0.560	0.460	40.14	11.43
2012	56.7	47.0	0.556	0.458	40.26	11.48
2013	56.9	47.7	0.555	0.453	39.43	11.23
2014	57.3	46.0	0.567	0.450	47.99	10.73
2015	57.8	44.3	0.564	0.427	46.71	9.27
2016	58.7	45.0	0.568	0.425	49.47	9.05
2017	58.3	44.0	0.564	0.419	45.97	8.82
2018	59.9	43.4	0.560	0.406	41.99	7.94
2019	61.0	43.2	0.554	0.389	42.82	7.21
2020	60.6	40.5	0.554	0.376	43.13	6.64
2021	59.9	39.3	0.552	0.378	41.08	6.92
2022	59.1	39.7	0.551	0.383	39.52	7.11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2)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3)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5) 2020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여, 2019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함

14. 개인의 연금[1] 수급 현황

(단위: 천 명, %, 천 원, %p)

65세 이상	수급자 수	수급률	월평균 수급 금액	전년 대비		미수급자 수	미수급률
				수급률 (%p)	월평균 수급 금액 증감액		
2016	5,897	87.0	423	-	-	878	13.0
2017	6,236	87.6	445	0.6	22	879	12.4
2018	6,536	88.4	478	0.8	33	858	11.6
2019	6,885	88.9	528	0.5	50	861	11.1
2020	7,335	89.4	562	0.5	34	871	10.6
2021	7,768	90.1	600	0.7	38	852	9.9
2022	8,182	90.4	650	0.3	50	864	9.6
남자	3,768	95.1	842	0.2	61	195	4.9
여자	4,414	86.8	486	0.4	39	669	13.2
65~69세	2,744	88.9	759	0.6	51	342	11.1
70~74세	1,951	90.0	671	0.0	49	218	10.0
75~79세	1,461	91.9	604	0.1	59	128	8.1
80세 이상	2,026	92.0	515	0.5	43	176	8.0

자료: 통계청,「연금통계」

주: 1) 기초(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 등 11종의 연금

15-1. 고용률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1]	실업률[2]
			취업자	실업자		
2006	4,529	1,381	1,371	10	30.3	0.7
2007	4,759	1,491	1,482	10	31.1	0.7
2008	4,983	1,535	1,523	12	30.6	0.8
2009	5,177	1,571	1,553	18	30.0	1.2
2010	5,361	1,590	1,553	38	29.0	2.4
2011	5,527	1,642	1,606	36	29.1	2.2
2012	5,766	1,770	1,733	37	30.1	2.1
2013	6,022	1,879	1,851	28	30.7	1.5
2014	6,277	1,995	1,954	41	31.1	2.1
2015	6,534	2,034	1,985	48	30.4	2.4
2016	6,767	2,116	2,068	49	30.6	2.3
2017	7,071	2,228	2,166	62	30.6	2.8
2018	7,386	2,381	2,311	70	31.3	2.9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2021	8,582	3,112	2,992	119	34.9	3.8
2022	9,027	3,365	3,265	100	36.2	3.0
2023	9,451	3,623	3,525	98	37.3	2.7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15-2. 산업별[1]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014	1,954	100.0	33.6	5.1	5.1	61.3	3.8	17.5	33.1	6.9
2015	1,985	100.0	30.5	5.5	5.5	64.0	3.5	17.8	35.5	7.1
2016	2,068	100.0	28.4	6.2	6.2	65.4	3.3	16.6	38.4	7.1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6.9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6
2021	2,992	100.0	25.0	5.7	5.7	69.3	4.3	13.1	44.0	7.8
2022	3,265	100.0	24.7	5.9	5.9	69.4	4.9	12.9	43.7	7.9
2023	3,525	100.0	23.6	6.0	6.0	70.4	4.8	13.5	44.2	7.8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15-3. 직업별[1]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4	1,954	100.0	4.8	2.6	15.2	31.7	11.3	34.4
2015	1,985	100.0	4.9	2.5	16.0	28.7	12.4	35.5
2016	2,068	100.0	4.5	2.6	16.8	26.8	12.8	36.5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2021	2,992	100.0	4.8	3.4	16.8	24.2	14.1	36.6
2022	3,265	100.0	5.1	3.3	16.7	24.2	15.2	35.6
2023	3,525	100.0	5.8	3.5	17.7	23.3	15.0	34.6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7년) 기준임

16.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

65세 이상	장래 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2015	43.7	100.0	37.0	54.4	1.2	2.5	4.7	0.1
2016	43.7	100.0	36.5	55.2	1.4	2.4	4.4	0.1
2017	44.8	100.0	36.2	56.0	1.1	2.5	4.1	0.1
2018	47.3	100.0	34.8	57.2	1.1	2.4	4.5	0.0
2019	48.8	100.0	35.7	56.4	1.0	2.4	4.5	0.1
2020	52.4	100.0	37.2	54.4	1.5	2.4	4.4	0.0
2021	54.5	100.0	36.2	54.7	1.5	2.8	4.9	0.0
2022	54.7	100.0	37.3	53.3	1.2	3.0	5.2	0.0
2023	55.7	100.0	38.0	52.2	1.5	2.9	5.3	0.0
2024	57.2	100.0	37.7	52.0	1.6	3.1	5.6	0.0
남자	65.9	100.0	40.5	48.7	2.5	3.5	4.9	0.0
여자	49.7	100.0	34.5	55.8	0.7	2.6	6.5	0.0
65~69세	67.6	100.0	37.4	53.0	2.0	2.8	4.8	0.0
70~74세	54.0	100.0	36.8	52.8	1.6	3.1	5.8	0.0
75~79세	41.3	100.0	40.2	47.2	0.7	3.9	8.0	0.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각년도 5월

17.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이유

(단위: %)

65세 이상	참여율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므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민의 책임이므로	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이를 갚고 싶으므로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하려고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단체활동에 동참하려고	진학, 취업 등 자기개발에 도움이 되므로	기타
2021	5.2	38.1	16.7	13.2	4.7	15.2	10.1	1.9	0.1	-
2023	7.4	36.9	14.6	6.6	2.4	22.2	11.7	5.3	0.1	0.2
남자	8.0	33.5	14.3	10.3	3.7	18.1	12.6	7.2	0.2	0.2
여자	6.9	40.1	14.8	3.2	1.3	25.9	11.0	3.6	-	0.2
65~69세	10.6	38.1	12.3	7.4	3.4	26.6	8.6	3.6	0.2	-
70~79세	7.3	36.8	17.3	6.2	1.9	17.6	13.7	6.0	-	0.6
80세이상	2.8	30.6	14.6	4.1	-	18.3	20.3	12.1	-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18. 단체 참여율

(단위: %)

65세 이상	참여율	친목 및 사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 모임	기타
2019	58.7	72.7	29.6	43.0	8.4	2.3	1.4	0.9	20.4	0.0
2021	28.7	55.8	33.3	43.0	7.5	1.0	1.0	1.0	11.5	-
2023	57.1	74.7	38.1	38.2	8.6	2.8	1.0	1.5	18.8	0.2
남자	60.4	80.5	43.3	29.0	9.6	4.0	1.4	2.3	21.3	0.2
여자	54.5	69.8	33.6	46.2	7.6	1.7	0.7	0.8	16.7	0.2
65~69세	68.0	81.6	45.1	34.4	10.3	3.5	1.1	1.9	17.1	0.3
70~79세	59.5	75.1	36.6	38.9	8.3	2.4	1.1	1.5	19.9	0.1
80세이상	36.5	54.5	23.5	47.1	4.6	1.8	0.6	0.5	20.4	0.2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19. 평생교육 참여율[1)]

(단위: %)

65~79세	참여율[2)]	형식교육[3)]	비형식교육[4)]	직업관련 목적[5)]
2017	26.9	0.2	26.9	3.0
2018	32.7	0.1	32.6	5.5
2019	32.5	0.1	32.4	4.9
2020	29.5	0.1	29.4	6.0
2021	19.2	0.2	19.2	4.9
2022	17.6	X[6)]	17.6	5.4
2023	23.5	0.1	23.4	6.9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6) 사례수가 작아 공표하지 않음

20. 노인차별[1)2)]

(단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2019	16.4	4.8	13.1	36.2	6.1	14.7	-	-	-
2020	13.8	4.8	7.7	21.9	2.5	6.6	6.0	3.6	5.8
2021	6.1	5.3	8.7	18.4	4.8	11.2	7.7	6.5	4.6
2022	5.1	5.1	10.4	18.9	4.9	9.5	7.3	5.2	4.7
2023	8.2	5.7	10.8	16.5	5.4	8.4	7.3	3.6	5.2
남자	6.7	5.7	10.2	16.6	5.3	8.2	7.5	4.0	5.9
여자	9.7	5.7	11.4	16.4	5.6	8.6	7.2	3.3	4.6
30세 미만	9.7	6.5	8.3	17.2	5.9	8.2	7.3	4.1	5.6
30대	8.2	6.8	9.5	17.5	5.3	8.1	5.2	4.5	6.4
40대	8.3	6.0	8.4	17.6	5.7	7.9	7.4	3.8	4.9
50대	9.2	5.6	8.7	16.7	5.5	9.2	7.1	3.9	5.9
60세 이상	6.6	4.6	15.8	14.7	5.0	8.3	8.5	2.6	4.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21. 세대 갈등[1)2)]

(단위: 점, %)

	평균[3)]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2013	2.8	2.2	33.7	50.2	13.9
2014	2.7	2.3	35.4	47.9	14.4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2021	2.7	3.2	36.3	48.7	11.8
2022	2.7	2.7	37.7	49.3	10.3
2023	2.6	5.4	39.4	46.6	8.6
19~29세	2.6	3.9	40.5	46.1	9.5
30~39세	2.6	5.2	39.1	46.6	9.2
40~49세	2.5	7.4	39.9	44.6	8.1
50~59세	2.6	5.0	39.3	46.5	9.3
60세 이상	2.6	5.3	38.8	48.2	7.7
65세 이상	2.6	5.4	37.6	49.0	8.0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중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

22. 인터넷 이용률[1] 및 이용 목적

(단위: %)

65세 이상	이용률[1]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활동	직업·직장	교육·학습	홈페이지 등 운영	기타
2020	55.2	95.3	91.5	81.1	3.5	9.7	26.3	31.4
2021	63.5	96.1	99.7	84.5	2.5	10.8	25.2	72.9
2022	67.0	98.1	99.8	94.3	3.5	10.7	25.7	75.3
2023	74.0	96.8	88.1	89.3	15.8	34.7	30.7	37.0
남자	77.9	97.5	92.3	90.6	18.9	35.4	33.7	43.4
여자	70.9	96.1	84.4	88.2	13.2	34.1	28.1	31.3
65~69세	91.9	99.3	93.4	94.1	19.8	36.9	38.9	53.2
70~74세	78.7	96.9	87.3	88.8	14.4	34.8	27.4	31.5
75~79세	62.4	92.4	81.8	85.4	10.2	30.5	21.6	15.9
80세이상	34.2	90.4	72.3	69.5	10.8	29.7	16.4	9.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1)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 기준

23. 인스턴트 메신저[1] 이용률[2] 및 이용 기능(복수 응답)

(단위: %)

65세 이상	이용률[2]	대화하기	음성 및 영상통화	구매하기 (선물 등)	게임	사진, 동영상 등 공유	지도 및 위치 공유	투표하기	제휴 서비스	택배 배송정보 확인	송금 서비스
2020	91.3	100.0	47.3	8.0	12.5	67.6	18.9	5.9	13.0	19.7	6.5
2021	92.4	100.0	49.4	3.4	12.2	71.1	13.7	1.8	4.8	14.5	6.1
2022	94.6	100.0	51.8	6.2	10.4	71.6	14.2	2.1	7.7	19.2	7.0
2023	93.9	100.0	52.0	9.7	14.4	71.0	19.7	4.4	10.3	20.0	11.7
남자	95.1	100.0	51.7	10.4	15.3	72.4	24.1	5.4	10.2	21.0	14.1
여자	92.8	100.0	52.4	9.1	13.6	69.8	15.8	3.5	10.4	19.1	9.6
65~69세	98.3	100.0	53.5	12.9	16.9	76.0	25.1	5.8	11.6	23.8	16.7
70~74세	93.8	100.0	52.4	8.2	13.6	69.6	18.4	3.7	9.3	18.4	8.7
75~79세	87.1	100.0	49.7	6.2	11.5	63.4	12.1	2.2	9.6	15.1	5.8
80세이상	81.9	100.0	43.7	3.3	7.2	60.6	5.2	3.2	8.1	11.9	4.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1)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네이트온, 텔레그램, DM 등
2) 최근 1년 이내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기준

24. 보행 안전성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사망자 수	사망률[1]	부상자 수	부상률[2]
2005	991	22.9	6,321	146.3
2006	961	21.2	6,169	136.3
2007	985	20.7	6,541	137.4
2008	903	18.1	7,181	143.9
2009	952	18.4	7,832	151.3
2010	966	18.0	7,924	147.7
2011	883	16.0	8,131	147.4
2012	959	16.6	8,651	150.0
2013	951	15.8	9,413	156.3
2014	919	14.6	10,031	159.8
2015	909	13.9	10,772	164.7
2016	866	12.8	10,693	158.2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1.0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3
2021	601	7.0	9,423	110.0
2022	558	6.2	10,016	111.5
2023	550	5.8	10,529	111.6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2)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25. 운전자 사고 비중[1)]

(단위: 건, 명, %)

65세 이상	사고 건수	비중[3)]	사망자 수	비중[4)]	치사율[2)]	부상자 수	비중[5)]
2015	23,063	9.9	815	17.6	3.5	33,787	9.6
2016	24,429	11.1	759	17.7	3.1	35,687	10.8
2017	26,713	12.3	848	20.3	3.2	38,627	12.0
2018	30,012	13.8	843	22.3	2.8	43,469	13.5
2019	33,239	14.5	769	23.0	2.3	48,223	14.1
2020	31,072	14.8	720	23.4	2.3	44,269	14.5
2021	31,841	15.7	709	24.3	2.2	44,713	15.3
2022	34,652	17.6	735	26.9	2.1	49,281	17.5
2023	39,614	20.0	745	29.2	1.9	56,067	19.8
65~69세	19,104	9.6	305	12.0	1.6	27,289	9.6
70~74세	11,213	5.7	188	7.4	1.7	15,980	5.6
75~79세	5,989	3.0	132	5.2	2.2	8,303	2.9
80~84세	2,634	1.3	89	3.5	3.4	3,619	1.3
85세 이상	674	0.3	31	1.2	4.6	876	0.3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2) 치사율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 건수) × 100
3) 사고 건수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건수 ÷ 전체 운전자 사고 건수) × 100
4) 사망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 × 100
5) 부상자 비중 =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전체 운전자의 사고에 의한 부상자 수) × 100

26. 고령자 학대 피해[1)2)] 경험률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65세 이상	학대피해 경험률[3)]	성별[4)]		연령대별[5)]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7	45.5	35.1	52.5	17.4	40.2	57.2	109.8
2008	44.5	34.4	51.4	16.1	35.8	58.1	111.2
2009	48.3	35.6	57.1	17.4	38.5	65.4	113.8
2010	54.0	42.1	62.2	20.9	44.2	64.4	126.3
2011	58.4	43.4	68.8	24.4	47.4	73.0	123.6
2012	56.0	41.1	66.4	23.6	43.4	64.7	124.1
2013	55.1	36.6	68.3	24.1	41.5	61.3	122.3
2014	53.1	37.5	64.3	22.5	37.1	65.2	114.1
2015	55.2	37.0	68.4	24.9	43.3	64.1	111.1
2016	60.1	39.1	75.5	26.7	49.3	69.8	115.9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9	34.8	66.4	79.2	117.8
2019	68.2	38.5	90.6	37.5	63.0	72.8	112.1
2020	76.8	44.0	101.7	46.6	69.6	83.2	121.4
2021	79.0	43.8	106.1	49.3	72.0	88.9	121.3
2022	75.5	39.7	103.3	47.9	66.4	85.6	115.7
2023	74.5	40.8	100.8	50.5	70.5	82.7	106.6

자료: 보건복지부,「노인학대현황,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 피해 경험률 =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추계인구) × 100,000
4) 성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65세 이상 성별 추계인구) × 100,000
5) 연령대별 학대 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 피해 노인 수 ÷ 연령대별 추계인구) ×100,000

27. 주거 만족도

(단위: 점)

65세 이상[1]	주택 만족도[2]	주거 환경 만족도[3]	편의 시설	의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문화 시설	공원·녹지	대중 교통	주차 시설	보행 안전	교육 환경	치안 문제	소음 문제	주변 청결	대기 오염	지역 유대
2018	2.89	2.89	2.78	2.74	2.78	2.59	2.81	2.81	2.76	2.95	2.82	2.95	2.86	2.98	2.98	3.09
수도권[4]	2.92	2.91	2.91	2.88	2.91	2.68	2.89	2.94	2.71	2.96	2.94	2.96	2.80	2.96	2.91	3.05
비수도권	2.87	2.87	2.69	2.65	2.70	2.53	2.76	2.73	2.79	2.94	2.74	2.95	2.91	3.00	3.04	3.12
2019	2.92	2.87	2.75	2.72	2.79	2.55	2.89	2.85	2.82	2.98	2.83	2.99	2.92	3.04	3.03	3.13
수도권[4]	2.95	2.93	2.87	2.85	2.89	2.67	2.95	2.98	2.81	3.00	2.93	3.00	2.89	3.01	2.96	3.07
비수도권	2.91	2.82	2.67	2.64	2.72	2.47	2.85	2.76	2.83	2.97	2.76	2.98	2.93	3.05	3.08	3.18
2020	2.92	2.93	2.78	2.75	2.82	2.51	2.94	2.89	2.83	3.02	2.85	3.02	2.94	3.05	3.08	3.14
수도권[4]	2.95	2.97	2.92	2.89	2.93	2.60	2.96	3.05	2.80	3.03	2.94	3.03	2.88	3.03	2.98	3.07
비수도권	2.91	2.90	2.69	2.65	2.74	2.44	2.92	2.78	2.85	3.01	2.78	3.02	2.97	3.07	3.15	3.18
2021	2.93	2.92	2.82	2.79	2.83	2.53	2.93	2.89	2.79	3.01	2.87	3.03	2.94	3.07	3.08	3.11
수도권[4]	2.96	2.97	2.96	2.93	2.95	2.65	3.00	3.02	2.80	3.03	2.96	3.04	2.93	3.06	3.00	3.05
비수도권	2.91	2.88	2.72	2.69	2.75	2.44	2.88	2.79	2.79	2.99	2.80	3.03	2.95	3.09	3.13	3.15
2022	2.93	2.93	2.78	2.74	2.79	2.55	2.94	2.86	2.78	2.99	2.87	3.02	2.92	3.04	3.07	3.09
수도권[4]	2.93	2.95	2.87	2.86	2.88	2.62	2.95	2.96	2.73	2.98	2.93	3.00	2.87	3.00	2.98	3.02
비수도권	2.93	2.91	2.71	2.64	2.72	2.50	2.93	2.79	2.81	2.99	2.83	3.04	2.95	3.07	3.13	3.15

자료: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2)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3)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4) 서울, 인천, 경기

28. 삶에 대한 만족도[1)]

(단위: %)

65세 이상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03	15.9	2.9	13.0	50.0	34.1	25.5	8.6
2006	23.1	4.6	18.5	45.9	31.0	21.2	9.8
2009	12.8	2.3	10.5	38.9	48.3	37.0	11.3
2010	21.3	4.5	16.8	47.7	31.0	24.3	6.7
2011	13.1	3.2	10.0	48.4	38.5	28.6	9.9
2012	22.9	5.0	17.9	43.5	33.6	25.5	8.1
2013	21.2	5.3	16.0	49.4	29.3	22.0	7.4
2014	30.8	7.8	23.0	48.2	21.0	16.8	4.2
2015	21.8	5.0	16.8	52.9	25.2	19.7	5.5
2016	31.2	6.8	24.4	49.7	19.1	16.0	3.1
2017	19.3	3.2	16.1	52.0	28.7	22.3	6.4
2018	29.9	6.1	23.8	47.7	22.4	18.5	3.9
2019	25.0	6.2	18.8	50.3	24.7	19.5	5.3
2020	33.5	8.6	25.0	50.9	15.6	12.7	2.9
2021	25.0	6.5	18.6	49.7	25.3	20.4	4.9
2022	34.3	7.7	26.5	48.5	17.2	14.1	3.1
2023	31.9	7.6	24.3	50.1	17.9	14.5	3.4
남자	33.5	8.9	24.6	49.5	17.0	13.8	3.2
여자	30.6	6.6	24.1	50.7	18.7	15.1	3.6
65~69세	35.1	8.7	26.5	49.7	15.2	11.5	3.7
70~74세	33.5	8.2	25.2	50.0	16.5	13.9	2.6
75~79세	29.6	6.8	22.8	50.5	20.0	16.6	3.4
80세 이상	27.4	6.0	21.3	50.7	21.9	18.0	3.9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자신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임

29. 성취에 대한 만족도[1)]

(단위: %)

65세 이상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7	18.2	2.8	15.3	52.7	29.2	23.3	5.8
2018	25.3	4.6	20.8	49.6	25.0	20.7	4.3
2019	21.8	4.1	17.7	51.3	26.9	20.8	6.1
2020	28.6	5.7	23.0	48.1	23.3	18.7	4.6
2021	23.6	5.3	18.3	51.4	25.0	19.6	5.5
2022	31.2	5.4	25.8	49.8	19.0	15.5	3.5
2023	26.7	5.1	21.6	50.3	23.0	18.3	4.7
남자	29.6	6.4	23.2	48.5	21.9	17.7	4.2
여자	24.4	4.0	20.4	51.7	23.9	18.9	5.0
65~69세	29.0	5.6	23.4	50.7	20.3	15.3	5.0
70~74세	28.0	5.7	22.3	48.8	23.2	18.9	4.3
75~79세	24.8	4.0	20.7	51.3	24.0	19.2	4.8
80세 이상	23.4	4.4	19.0	50.4	26.2	21.6	4.6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성취한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임

□ 국제비교: 1. OECD 주요 국가별 연령구조

(단위: 천 명, %)

	2013년				2023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14세	15-64세	65세 이상
호주	23,236	18.9	66.7	14.4	26,451	18.0	64.6	17.4
오스트리아	8,481	14.4	67.4	18.2	9,130	14.3	65.5	20.2
벨기에	11,160	17.0	65.3	17.7	11,713	16.3	63.6	20.1
캐나다	35,293	16.3	68.5	15.2	39,299	15.3	65.3	19.4
칠레	17,687	20.5	68.8	10.7	19,659	17.4	68.9	13.7
콜롬비아	46,152	25.7	67.8	6.5	52,321	20.6	70.0	9.4
코스타리카	4,716	23.4	68.4	8.2	5,106	19.3	69.0	11.7
체코	10,511	14.9	68.0	17.1	10,810	15.7	63.8	20.5
덴마크	5,615	17.3	64.6	18.1	5,948	15.9	63.5	20.6
에스토니아	1,318	15.7	66.1	18.2	1,367	16.0	63.1	20.9
핀란드	5,439	16.4	64.5	19.1	5,601	14.9	61.5	23.6
프랑스	64,388	18.4	63.6	17.9	66,439	16.8	61.5	21.7
독일	81,042	13.2	66.0	20.8	84,548	13.9	63.3	22.8
그리스	10,968	14.7	65.0	20.3	10,243	13.6	62.9	23.5
헝가리	9,889	14.4	68.2	17.3	9,686	14.5	64.7	20.8
아이슬란드	324	20.6	66.3	13.1	388	18.1	66.6	15.3
아일랜드	4,625	21.5	66.1	12.4	5,197	19.0	65.4	15.5
이스라엘	7,749	28.2	61.2	10.6	9,256	27.6	60.0	12.4
이탈리아	60,654	13.9	64.8	21.3	59,499	12.1	63.6	24.2
일본	127,724	13.1	61.5	25.4	124,371	11.6	58.8	29.6
라트비아	2,013	14.6	66.5	18.9	1,882	15.7	63.0	21.3
리투아니아	2,958	14.6	67.0	18.4	2,854	14.9	65.3	19.9
룩셈부르크	543	16.9	69.1	14.0	665	15.8	69.1	15.1
멕시코	118,344	28.7	64.9	6.4	129,740	24.9	67.1	8.0
네덜란드	16,967	17.1	66.0	16.9	18,093	15.2	64.7	20.2
뉴질랜드	4,454	20.4	65.5	14.1	5,173	18.4	64.8	16.8
노르웨이	5,080	18.3	65.9	15.8	5,519	16.5	65.0	18.5
폴란드	38,259	15.1	70.5	14.4	38,763	15.1	65.3	19.6
포르투갈	10,458	14.8	65.6	19.6	10,431	12.9	63.0	24.1
대한민국	50,429	14.7	73.4	11.9	51,713	11.0	70.7	18.2
슬로바키아	5,410	15.3	71.4	13.3	5,518	15.9	66.0	18.1
슬로베니아	2,056	14.6	68.3	17.1	2,118	14.9	63.7	21.3
스페인	46,860	15.1	67.1	17.9	47,912	13.3	66.1	20.7
스웨덴	9,601	17.0	63.8	19.3	10,551	17.2	62.2	20.5
스위스	8,091	14.9	67.6	17.5	8,871	15.0	65.4	19.6
튀르키예	76,403	24.7	67.9	7.4	87,271	21.8	68.2	10.0
영국	64,389	17.8	64.9	17.3	68,683	17.4	63.4	19.2
미국	320,111	19.4	66.9	13.7	343,477	17.6	65.0	17.4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 국제비교: 2. OECD 주요 국가의 65세 기대여명

(단위: 년)

	남자		여자	
	2012	2022	2012	2022
평균[1]	17.4	17.9	20.7	21.3
호주	19.1	20.2	22.0	22.8
오스트리아	18.1	18.0	21.3	21.1
벨기에	17.7	18.7	21.3	21.6
캐나다	19.0	-	22.0	-
칠레	17.5	18.9	20.8	22.2
콜롬비아	16.7	-	19.1	-
코스타리카	18.4	18.9	20.8	21.5
체코	15.7	16.0	19.2	19.8
덴마크	17.5	18.2	20.2	20.7
에스토니아	14.8	15.2	20.3	20.5
핀란드	17.8	18.0	21.6	21.3
프랑스	19.1	19.2	23.4	23.0
독일	17.8	17.6	21.0	20.8
그리스	18.1	17.8	20.9	20.9
헝가리	14.3	14.2	18.1	18.1
아이슬란드	20.1	19.4	21.5	20.7
아일랜드	17.8	19.4	20.9	21.6
이스라엘	18.8	19.3	21.0	22.0
이탈리아	18.5	19.0	22.1	21.9
일본	18.9	19.4	23.8	24.3
라트비아	13.6	13.7	18.5	18.6
리투아니아	14.1	14.1	19.2	19.0
룩셈부르크	18.4	19.6	21.4	22.2
멕시코	16.8	-	18.9	-
네덜란드	18.0	18.7	21.0	20.8
뉴질랜드	18.8	-	21.2	-
노르웨이	18.3	-	21.0	-
폴란드	15.4	15.4	19.8	19.6
포르투갈	17.6	18.7	21.3	22.1
대한민국	17.2	18.6	21.5	22.8
슬로바키아	14.6	15.0	18.5	18.8
슬로베니아	17.1	17.8	21.1	21.5
스페인	18.7	19.2	22.8	23.2
스웨덴	18.5	19.6	21.1	21.9
스위스	19.3	20.0	22.3	22.6
튀르키예	14.1	-	16.1	-
영국	18.3	-	20.7	-
미국	17.9	-	20.5	-

자료: OECD, 「Health Status」, 2024.9.2. 기준, 통계청,「생명표」

주: 1) OECD 38개국 중 2012년, 2022년 기준의 자료가 공표된 나라의 산술평균임

□ 국제비교: 3. OECD 주요 국가의 빈곤율[1)]

(단위: %)

	상대적 빈곤율[2)] (중위소득 50% 이하)				지니계수[3)]			
	2011년		2021년		2011년		2021년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18~65세 (근로연령)	66세 이상 (은퇴연령)
오스트리아	8.7	10.8	8.9	11.2	0.282	0.277	0.278	0.285
벨기에	-	-	7.2	9.8	-	-	0.250	0.247
캐나다	12.9	10.1	9.7	14.8	0.316	0.277	0.293	0.287
칠레	16.1	15.4	-	-	0.471	0.426	-	-
코스타리카	16.9	25.2	17.4	22.4	0.468	0.544	0.479	0.500
체코	5.7	2.5	5.1	8.5	0.256	0.192	0.244	0.209
덴마크	6.6	5.8	-	-	0.249	0.215	-	-
에스토니아	-	-	11.6	41.3	-	-	0.304	0.305
핀란드	7.8	10.9	8.0	6.3	0.267	0.243	0.274	0.254
프랑스	-	-	8.1	5.8	-	-	0.301	0.274
독일	8.7	9.0	-	-	0.295	0.271	-	-
그리스	15.8	7.3	11.6	10.1	0.341	0.271	0.319	0.282
헝가리	7.6	2.4	7.2	6.7	0.275	0.205	0.286	0.266
아이슬란드	5.6	3.2	-	-	0.251	0.249	-	-
아일랜드	9.8	9.5	7.9	18.2	0.312	0.299	0.287	0.300
이스라엘	14.1	23.8	15.7	19.9	0.355	0.438	0.344	0.373
이탈리아	12.2	10.3	12.5	11.7	0.329	0.297	0.327	0.331
일본	-	-	12.7	20.0	-	-	0.331	0.337
라트비아	13.7	7.0	12.9	32.2	0.351	0.286	0.339	0.344
리투아니아	12.4	11.3	10.5	27.8	0.321	0.268	0.357	0.320
룩셈부르크	-	-	9.0	6.8	-	-	0.279	0.281
네덜란드	7.6	2.3	10.0	8.1	0.298	0.241	0.296	0.244
뉴질랜드	11.9	16.9	-	-	0.319	0.321	-	-
노르웨이	9.3	4.3	9.3	3.8	0.260	0.213	0.297	0.249
폴란드	10.2	10.3	8.3	11.5	0.304	0.255	0.263	0.246
포르투갈	11.1	8.3	9.3	10.3	0.335	0.342	0.306	0.337
대한민국[4)]	**14.0**	**47.8**	**10.1**	**39.3**	**0.370**	**0.460**	**0.310**	**0.378**
슬로바키아	7.5	6.4	6.7	5.2	0.258	0.204	0.214	0.192
슬로베니아	7.6	14.5	7.0	12.8	0.243	0.253	0.239	0.252
스페인	14.2	9.2	13.1	13.3	0.340	0.297	0.318	0.300
스웨덴	-	-	8.7	11.1	-	-	0.279	0.298
스위스	7.3	23.9	-	-	0.278	0.306	-	-
튀르키예	14.3	18.3	11.0	9.4	0.395	0.370	0.425	0.413
영국	9.7	13.3	10.5	14.5	0.354	0.311	0.355	0.328
미국	-	-	13.6	22.8	-	-	0.371	0.411

자료: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4.9.2. 기준,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2)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3)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4) 2020년부터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여, 2019년 이전 자료와 직접 비교가 곤란하므로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함